

Annual Report

2023

KBS 시청자상담백서



Contents

1. 시청자상담실 운영	3
2. 2023년 시청자상담실 운영실적	5
3. 시청자상담 일일보고서	37
4. 상담내용 분석	46
5. 정보공개 안내	118
※시청자 권익보호란?	125
6. KBS 고충처리인 활동	128
7. 시청자 청원	130
8. 제작진 답변	132
9. 부록 (관련근거)	
- KBS 방송강령	138
- KBS 민원처리규정	143
- KBS 고충처리인 운영지침	148
- KBS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151
- 시청자청원제도 운영지침	156

1 시청자상담실 운영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는 시청자 의견을 듣고 공유하며 제시된 의견을 방송 전반에 적극 반영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KBS는 방송법 제54조(업무)에 따라 시청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시청자상담실은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해 365 일(1 일, 17 시간 상담) 시청자와 소통하는 공간으로 상담원 19 명이 주간 2 교대 근무형태로 시청자 상담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시청자상담실의 주요 업무는 KBS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접수하는 것이며, 또 방송을 통해 제기될 수 있는 시청자 권익침해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시청자 의견접수는 전화, 인터넷(시청자상담실 자유게시판과 1:1 메일 문의), ARS, 서신,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시청자상담 일일보고서는 전일 오전 6 시부터 23 시까지 접수한 시청자 의견을 정리한 보고서로서 시청자상담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매일 게시되고 있으며 KBS 사내 게시를 통해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정보를 공유하고 KBS 방송제작 및 경영효율화 업무에 반영하고 있다.

방송법 제 54조(업무)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7. 시청자 불만처리와 시청자 보호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

■ 상담실 홈페이지 : <http://iaudience.kbs.co.kr>

■ 상담실 이메일 : happykbs@kbs.co.kr

☎ 상담실 연락처 : 02-781-1000





시청자상담 가이드

시청자상담실은 방송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집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시청자의 다양한 입장을 경청하고 있다.

△ 자유와 책임

- 편성의 독립과, 제작의 자율성은 잘 지켜지고 있는가?
- 제작자가 제작의 자율권만 내세워서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는가?
- 경제관련 프로그램은 국민경제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고려해 신중한가?
- 자연프로그램은 자연에 대한 정확한 지식, 소중함, 환경보존의 역할에 기여하는가?
- 음식, 조리 프로그램은 국민의 식생활과 건강, 음식문화를 고려해 신중하고 적절한가?

△ 정확, 공정, 진실

- 모든 보도, 정보 프로그램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제작되는가?
- 방송프로그램은 사실과 제작자의 의견을 명확하게 구분하는가?
- 취재, 제작과정에서 취재 대상과 시청자들에게 진실하게 대하는가?
- 모든 프로그램에서 사회적 신분, 계층, 성별, 나이, 종교, 출신지역, 국적, 인종 등에 따른 다양한 의견과 이익을 차별 없이 균형 있게 반영하는가?

△ 인권존중

- 방송 표현이 시청자의 기본인권을 침해하는가?
- 청소년(어린이)이 프로그램의 폭력요소를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가?
- 어린이와 청소년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며 소질과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인성교육에 기여하는가?
- 어린이와 인터뷰는 부모나 법적인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는가?
- 취재원과의 보호 신뢰, 실명공개, 내부고발자 익명보도 원칙은 잘 지켜지는가?

△ 사회통합

-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가?
- 사회와 개인에게 커다란 영향, 법적 분쟁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가?
-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프로그램은 충실히 제작되고 있는가?

△ 민주적 여론형성

- 민주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방송에서 정보와 의견이 자유롭게 반영되는가?
- 제작자는 다양한 사회집단의 입장과 의견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가?
- 건전한 사회 여론형성에 충실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가?

△ 전통문화

- 프로그램은 한민족의 정체성과 국가의 자주성을 확립하는 책임을 다하는가?
- 언어는 정확하고 아름다운 한국어를 사용하는가? (어휘, 어법, 발음)
- KBS는 전통문화와 예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문화예술 창조에 이바지 하는가?

2

2023년 시청자상담실 운영실적

시청자상담실은 2023년 한 해 동안 상담전화와 인터넷, 서신(우편, 팩스), ARS 등을 통해 총 237,559건을 접수·처리하였으며 그 중 방송관련 의견(182,544건, 76.8%)이 대부분을 차지해 KBS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

연도별 상담건수 변화

기 간	상 담 건 수	증 감	증 감 륜
2023년	237,559	▼ 25,841	-9.81%
2022년	263,400	▼ 23,216	-8.10%
2021년	286,616	▼ 57,734	-16.77%
2020년	344,350	▼ 29,492	-7.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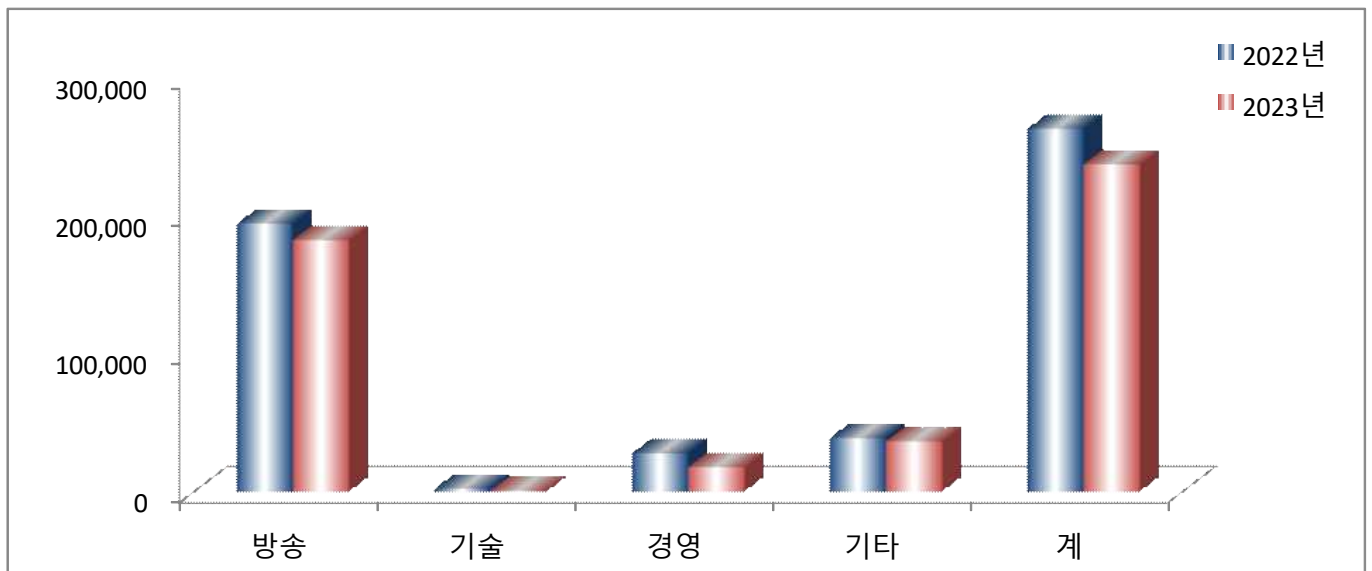


2 시청자의견 집계

■ 2023년 월별, 분야별 상담처리 건수

월		방송	기술	경영	기타+콜백	계
1		16,798	77	1,565	2,834	21,274
2		14,157	60	1,479	2,500	18,196
3		15,212	69	1,785	3,341	20,407
4		13,906	47	1,538	3,259	18,750
5		14,232	52	1,507	3,356	19,147
6		16,216	51	1,696	3,372	21,335
7		16,023	94	1,569	3,410	21,096
8		15,973	80	1,384	2,881	20,318
9		14,587	71	1,275	2,735	18,668
10		13,988	54	1,246	2,950	18,238
11		16,501	68	1,429	3,024	21,022
12		14,951	55	1,247	2,855	19,108
계	건	182,544	778	17,720	36,517	237,559
	비율	76.8%	0.3%	7.5%	15.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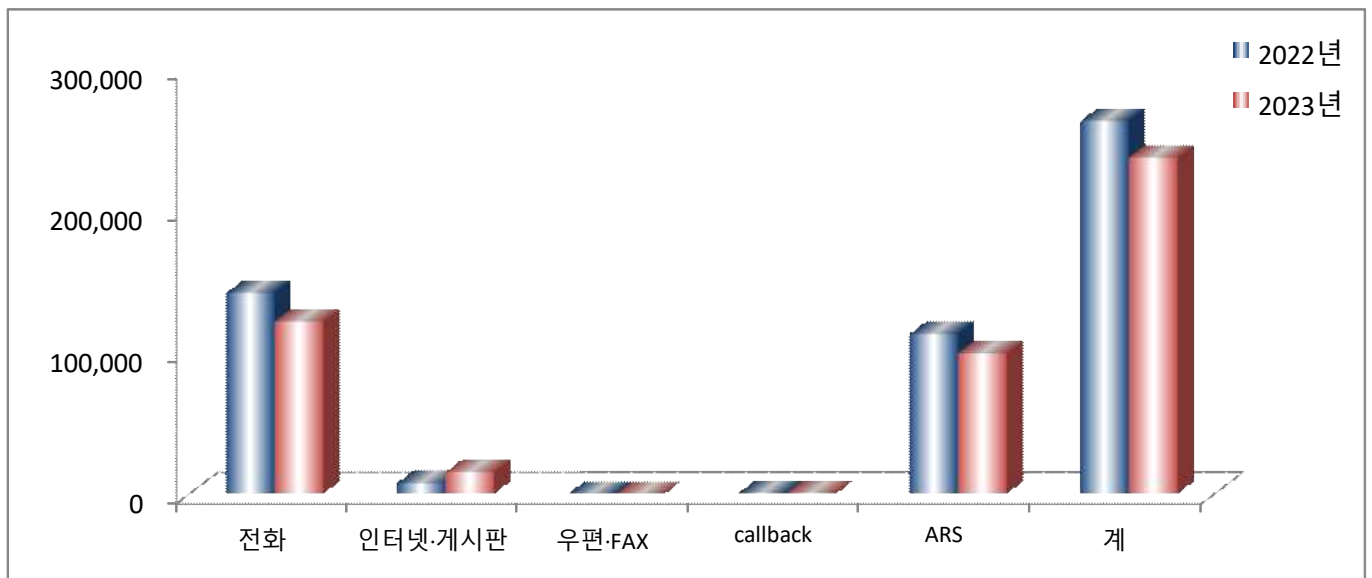
[2022년, 2023년 분야별 상담현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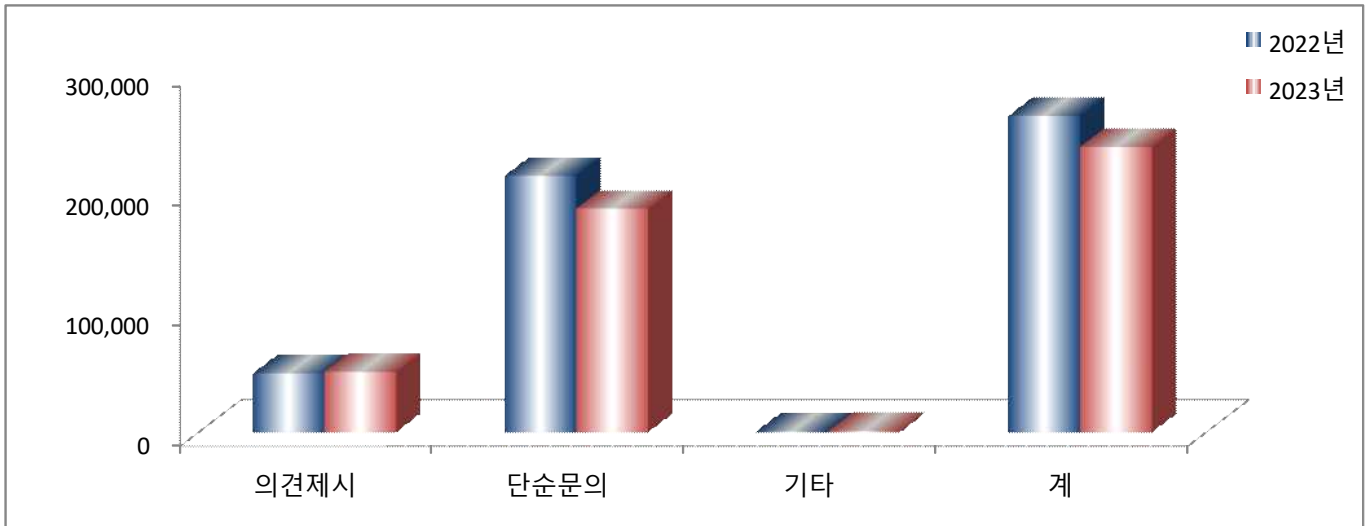
■ 2023년 접수형태별 상담처리 건수

월		전화	인터넷·게시판	우편·FAX	callback	ARS	계
1		10,614	826	8	70	9,756	21,274
2		9,763	495	6	65	7,867	18,196
3		11,467	746	2	125	8,067	20,407
4		9,849	1,372	1	94	7,434	18,750
5		10,158	1,497	3	75	7,414	19,147
6		11,055	1,724	5	60	8,491	21,335
7		11,167	1,441	7	64	8,417	21,096
8		10,024	1,032	4	50	9,208	20,318
9		9,405	1,068	1	50	8,144	18,668
10		8,743	1,670	3	69	7,753	18,238
11		10,057	2,226	6	59	8,674	21,022
12		9,419	1,477	1	49	8,162	19,108
계	건	121,721	15,574	47	830	99,387	237,559
	비율	51.2%	6.6%	0.0%	0.3%	41.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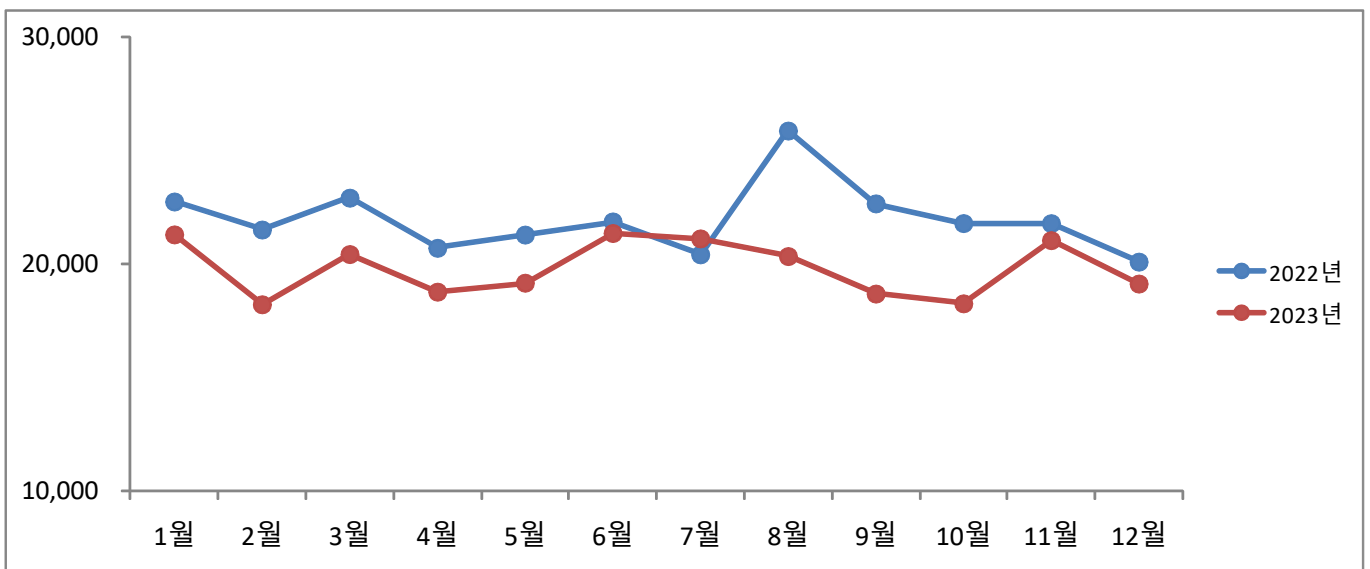
[2022년, 2023년 접수형태별 상담현황 비교]



[2022년, 2023년 시청자의견 건수 비교]



[2022년, 2023년 월별 시청자상담 건수 비교]



■ 2023년 분야별 월별 처리 실적 (상담보고서 등록의견)

월	편성	보도	스포츠	교양	연예·오락	드라마	라디오	DMB	기타	계	
1	124	102	0	146	100	39	31	0	38	580	
2	41	73	0	128	88	8	43	0	3	384	
3	156	180	3	98	70	99	49	0	0	655	
4	104	57	0	99	63	190	48	0	0	561	
5	81	99	3	146	36	51	26	0	0	442	
6	217	61	1	175	315	177	41	0	0	987	
7	466	55	0	140	48	14	39	0	1	763	
8	79	46	0	129	43	54	43	0	0	394	
9	93	21	156	135	23	42	31	0	2	503	
10	251	35	0	100	20	6	53	0	1	466	
11	412	115	2	137	32	24	36	0	4	762	
12	215	73	0	112	41	23	21	0	5	490	
계	건수	2,239	917	165	1,545	879	727	461	0	54	6,987
	비율	32.0%	13.1%	2.4%	22.1%	12.6%	10.4%	6.6%	0.0%	0.8%	100.0%

3 월별 다수의견

구분	프로그램명	의견 내용	건수
1월	'퀴어보이밴드 라이오네시스'	퀴어보이밴드 라이오네시스의 신곡이 MBC로부터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가 방송 적합 판정을 다시 받게 됐다. 해당 곡에는 종교적인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 들어있다. 또한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이 해당 곡을 듣게 되면 성정체성에 혼란이 올 수 있다. 공영방송 KBS에서는 라이오네시스의 신곡을 방송 불가 판정을 내려 출연을 금지시켜주기 바란다.	38
2월	뮤직뱅크	「뮤직뱅크」의 사전 투표에 '뮤빗 투표'가 추가됐다. 그런데 1152회 뮤빗 케이팝 팬투표 후보에 부석순(세븐틴)의 '파이팅 해야지'와 임창정의 '멍청이'가 빠졌다. 현재 세븐틴의 팬들이 전화로도 문의하고, 시청자 게시판에도 글을 게재하고 있지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답답하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 조속히 수정해주시기 바란다.	19
3월	사사건건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진행된 환영 행사를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그런데 진행자가 일본 의장대 사열 장면을 보며 "일장기를 향해서 윤 대통령님이 경례하는 모습을 보셨다."고 해설했다. 그러나 당시 태극기와 일장기가 동시에 걸려있었다. 가장 공정해야 할 공영방송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팩트체크 없이 편파적인 해설을 한 점이 유감스럽다.	87
4월	비밀의 여자	이날 주애라(이채영 분)가 정현태(채재성 분)를 살해했다. 아직 극이 초반 단계인데, 이채영이 벌써 두 명을 살해한다는 설정이 너무 지나치다. 주애라로 인해 시력을 잃고 아이도 잃었던 정겨울(신고은 분)이 아버지까지 잃게 됐다. 약자에게 연이어 불행이 불어 닥치는 모습이 너무 보기 불편하다.	54

구분	프로그램명	의견 내용	건수
5월	KBS 뉴스광장	경북대 인근에 이슬람 사원을 짓는데 주민 반대로 갈등을 겪고 있어, 경북대 학생과 교수들이 이슬람 혐오를 멈추자며 교내에서 평화 행진을 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슬람 사원을 짓는 것에 대한 반대를 혐오라고 표현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당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주민들의 입장은 전혀 담기지 않은 편파적인 보도다.	41
6월	가요대축제	K팝 가수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진행하는 「가요대축제」를 올해는 일본에서 개최한다는 기사를 접했다. 공영방송의 연말시상식을 왜 일본에서 개최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일본 오염수 방류로 국민감정이 좋지 않은 시기라 더욱 당황스럽다. 일본 개최를 철회해 주기 바란다.	262
7월	전국노래자랑	일요일마다 빠짐없이 시청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이날은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결방됐다. 지난주도 결방이 되었기 때문에, 이날 결방이 더욱 서운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결방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89
8월	금이야 옥이야	KBS 1TV 일일연속극을 좋아한다. 그런데 「금이야 옥이야」는 결방이 잦아서 극의 흐름이 자주 끊기고, 내용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결방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28

구분	프로그램명	의견 내용	건수
9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다. 현재 2023년인데 2022년으로 표기되어 상담실에 문의했고, 원래 2022년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되었기에 공식 명칭이 바뀌지 않아 2022년으로 표기되었다는 답변을 받았다. 본인처럼 자막이 잘못 표기되었다고 생각할 시청자들이 많을 것 같다. 2022년으로 표기된 이유를 방송 중 설명해주거나, 자막으로 안내해주면 좋을 것 같다.	156
10월	추석 특선 야생의 대평원 세렝게티3	세렝게티에 서식하는 동물들을 담아낸 다큐멘터리로, 유익하고 볼거리가 풍부해 자녀와 함께 시청하려고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시안게임 때문인지 편성이 변경되어 상당히 아쉬웠다. 약속도 취소하고 해당 방송을 기다리는 시청자들도 있다. 가급적이면 편성을 변경하지 않길 바란다.	46
11월	더 라이브	해당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위해 일도 빨리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정도였다. 그런데 너무 갑작스럽게 폐지되어 당황스럽다. 고정 시청자가 많으니 방송을 재개해주시길 바란다.	145
12월	홍김동전	해당 프로그램이 낮은 시청률 때문에 폐지된다는 기사를 접했다. 요즘 사람들은 TV보다도 OTT로 방송을 시청하는 경우가 많다. 「홍김동전」은 OTT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폐지된다니 안타깝다. 프로그램 폐지를 반대한다.	70

4 월별 Top 10 의견

1월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퀴어보이밴드 라이오네시스']	38	퀴어보이밴드 라이오네시스의 신곡이 MBC로부터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가 방송 적합 판정을 다시 받게 됐다. 해당 곡에는 종교적인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 들어있다. 또한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이 해당 곡을 듣게 되면 성정체성에 혼란이 올 수 있다. 공영방송 KBS에서는 라이오네시스의 신곡을 방송 불가 판정을 내려 출연을 금지시켜주기 바란다.
2TV [주말드라마 삼남매가 용감하게 스페셜]	32	K-장녀와 K-장남이 만나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은 주말극이다.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 매주 빠짐없이 시청해왔다. 그런데 이날 정규방송 대신 스페셜 방송이 편성돼 굉장히 서운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로 스페셜 방송을 편성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다음 전개를 기다리는 시청자들을 위해 스페셜 방송으로 대체하지 않길 바란다.
1TV [2023 설날장사 씨름대회]	26	'2023 설날장사 씨름대회'가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KBS에서 중계해준 덕분에 박진감 넘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었고, 씨름이라는 종목을 재발견 할 수 있었다. 설날을 맞아 공영방송 KBS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스포츠인 씨름 대회를 편성해주어 감사하다.
1TV [신년 기획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23	거동이 불편해 여행이 자유롭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19년째 리무진 여행을 선물하고 있는 이윤규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난생 처음 타본 리무진에서 한껏 들뜬 모습의 어르신들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리무진으로 어르신들에게 특별한 하루를 선물하는 이윤규 씨의 사연이 너무나 감동적이다. 각박한 요즘 위안이 되는 사연을 소개해주어 감사하다.
1TV [설 기획 1020 전국노래자랑]	21	민족 대명절인 설날을 맞아 「설 기획 1020 전국노래자랑」이 방송됐다. '1020' 특집인 만큼 10대와 20대가 주인공이 되어 끼와 재능을 펼쳤는데, 전 국민이 사랑하는 방송에서 연령의 제한을 둔 점이 안타까웠다. 다양한 연령대가 출연했다더라면 더 재미있었을 것 같고, 진행자 김신영 씨가 해당 프로그램만의 구수한 정감을 살리지 못하는 점도 아쉬웠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KBS 뉴스 9]	19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스튜디오에 출연했고, 앵커가 검찰 출석과 관련해 궁금한 점을 질문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체적으로 검찰 수사가 지나치다, 라고 생각들을 한다"며 본인과 주변의 생각을 전했다. 현재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를 섭외해 변명할 기회를 주는 것 같아 시청 내내 불편한 생각이 들었다.
1TV [2023 새날마중]	15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큰 기대를 품고 KBS 1TV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2023 새날마중」을 시청했다. 자정에 보신각에서 열리는 제야의 종소리를 듣기 위해서였는데, 정작 중요한 장면에서 화면이 전환되며 타종 장면은 보여주지 않아 아쉬웠다. 내년에는 타종 장면과 제야의 종소리까지 생생하게 전달해주기 바란다.
2TV [태풍의 신부]	14	매일 저녁 시청한다. 최근 강바다(오승아 분)가 은서연(박하나 분)의 어깨에 있는 별점을 확인하면서 은서연이 강바람임을 알게 되는 내용이 그려졌다. 정체가 탄로 난 은서연이 어떻게 강바다에게 맞설지 궁금했는데, 이날 결방이 되어 답답했다. 추후에는 극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1TV [전국노래자랑]	14	각 지역에서 예심을 통과한 출연자들이 노래실력과 재치를 대결하는 대국민 참여형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이날 방송된 부산광역시 북구 편을 잘 시청했다. 다만 김신영 씨가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하는 말이 또렷하게 전달되지 않고, 구수한 입담도 부족해 재미가 떨어진다. 해당 방송 특유의 위트와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연륜 있는 진행자로 교체해주기 바란다.
1TV [KBS 뉴스 9]	12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전달해주는 9시 뉴스를 매일 저녁 시청한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고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태원 참사 관련 뉴스가 매일 보도되니 트라우마가 생길 지경이다. 유족들의 입장에서 보도가 이뤄지고, 정부의 책임만 묻는 것도 지나치다. 경제가 어려운 데 이태원 참사 관련 보도에 밀리는 점도 안타깝다.

2월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2TV [뮤직뱅크]	19	「뮤직뱅크」의 사전 투표에 '뮤빗 투표'가 추가됐다. 그런데 1152회 뮤빗 케이팝 팬투표 후보에 부석순(세븐틴)의 '파이팅 해야지'와 임창정의 '멍청이'가 빠졌다. 현재 세븐틴의 팬들이 전화로도 문의하고, 시청자 게시판에도 글을 게재하고 있지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답답하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 조속히 수정해주기 바란다.
1TV [6시 내고향]	19	이날 리포터가 제주 애월에 있는 유난히 맛있는 한라봉 농가를 찾는 장면이 방송됐다. 그 장면을 시청하며 본인도 구매하고 싶어 상담실을 통해 연락처를 문의했으나, 공개된 연락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방송에 출연한 업체라면 당연히 연락처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하기에 당황스러웠다. 시청자의 편의를 위해 가급적이면 연락처를 공개하는 업체만 소개해주기 바란다.
1TV [사사건건]	14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해 해당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북 송금 의혹을 다루며 민주당 의원만 출연하는 것은 편파적이다. 시청자들이 균형 있는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여당 측 의원도 섭외했어야 한다.
1TV [우리말 겨루기]	14	재미있는 퀴즈 대결을 통해 우리말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올바른 우리말 표현을 익힐 수 있어 매주 시청 중인데, 이날은 결방이 되어 너무 아쉬웠다. 고정 시청자들을 위해 최대한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2TV [불후의 명곡]	12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작사가 故 박건호 편'으로 꾸며졌고, 가수 홍진영 씨가 무대에 올라 박건호 작사가의 가사를 노래했다. 홍진영 씨는 석사 논문 표절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한 바 있고, 이후 "표절이 아닌 인용"이라는 부적절한 대응으로 대중의 비난을 받았다. 여전히 홍진영 씨를 향한 부정적 여론이 남아있으므로 방송 복귀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사사건건]	1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이날 김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출연해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데 김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민주당이 거머리에 물린 상황' 등 노골적인 표현을 사용해 듣기 불편했다. 또한 자주 연성을 높이는 점이 상대와 시청자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 같아 보기 안 좋았다.
2TV [불후의 명곡]	9	이날은 '작사가 故 박건호' 특집으로 꾸며져 총 10팀이 박건호 작사가의 음악으로 무대를 꾸몄다. 그런데 지난 2020년 석사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지며 활동을 중단한 바 있는 가수 홍진영 씨가 출연해 보기 불편했다. 논문 표절도 잘못이지만, 더욱 문제가 된 것은 홍진영 씨의 대응 태도였다. 홍진영 씨의 방송 복귀가 달갑지 않은 시청자들이 많으니 섭외하지 않길 바란다.
1TV [특별생방송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절망 에서 희망으로]	9	KBS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돕기 모금 생방송을 진행했고, 본인도 모금에 동참하고자 방송을 시청했다. 그런데 일단 ARS 번호가 너무 작게 기재돼 고령의 시청자들은 자막을 읽기가 어려웠고, 기부금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어디로 전달되는지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점도 아쉬웠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모금 현황 및 누적 금액을 알려주었더라면 더 많은 기부금이 모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1TV [아침마당]	7	이번 '목요특강'의 주제는 '뇌를 지켜라'였다. 1교시에는 알츠하이머병이, 2교시에는 파킨슨병이, 3교시에는 뇌동맥류가, 4교시에는 두통이 다뤄졌는데 모든 특강이 유익해 시청자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으로 시청자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힘써주기 바란다.
1TV [아침마당]	7	두통에 시달리는 시청자로, 두통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1교시에 장민욱 신경과 전문의가 출연해 '뇌에도 필요한 건강검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는데,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정보들을 상세히 다뤄주어 유익했다. 또한 2교시의 김유진 정형외과 교수의 어깨 통증에 대한 강연도 좋았다. 늘 유익한 방송을 제작해주는 제작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사사건건]	87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진행된 환영 행사를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그런데 진행자가 일본 의장대 사열 장면을 보며 “일장기를 향해서 윤 대통령이 경례하는 모습을 보셨다.”고 해설했다. 그러나 당시 태극기와 일장기가 동시에 걸려있었다. 가장 공정해야 할 공영방송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팩트체크 없이 편파적인 해설을 한 점이 유감스럽다.
1TV [KBS 뉴스 9]	45	‘뉴스를 만나다’에 박진 외교부장관이 출연해 이재석 앵커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그런데 앵커가 진행 내내 감정을 드러내고 의견을 내세웠으며 박진 외교부장관의 발언을 끊기도 했다. 코너 말미에 박진 외교부장관의 “감사합니다.”라는 인사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공정하지 않은 모습과 진행자답지 못한 태도가 보기 불편했다.
2TV [뮤직뱅크]	44	본인이 응원하는 가수의 무대를 보기 위해 매주 금요일마다 해당 방송을 시청한다. 지난 2월 27일에 가수 황민현 씨가 1집 미니앨범을 발매했고, 3월 3일에 해당 방송에 출연했다. 그런데 1155회 뮤빗 K-POP 팬 투표 후보에서 황민현 씨가 누락됐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 조속히 후보 등록을 해주기 바란다.
1TV [내 눈에 콩깍지]	38	무슨 일이 있어도 할 말은 하는 당찬 싱글맘 이영이(배누리 분)와, 사연 많은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이다. 온갖 고난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매번 다시 일어서는 이영이를 응원하며 매회 재미있게 시청 중이었는데, 이날 특별 편성 방송으로 인해 결방이 되어 아쉬웠다. 극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1TV [우리말 겨루기]	27	매주 부모님과 함께 해당 프로그램을 꼭 시청하는 시청자이다. 이날도 방송을 무척 기다렸는데 결방이 되어 속상했다. 고정 시청자들을 위해 될 수 있으면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2TV [비밀의 여자]	25	주애라(이채영 분)와 남유진(한기웅 분)이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남유진의 장인 최재성(정현태 분)에게 뒤집어씌웠다. 최근 바깥 활동이 어려워 드라마 시청하는 낙으로 지내고 있는데, 끔찍한 내용이 연속으로 그려져 보기 불편하다. 국민 정서를 고려해 지나치게 잔인한 내용을 조금 수정해주었으면 한다.
2TV [비밀의 여자]	21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2TV 일일드라마를 시청한다. 그런데 이번 일일드라마는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폭력적이다. 첫 회부터 친구에게 피임약을 먹이는 장면이 방영돼 보기 불편했는데, 이후 강제로 잠자리를 갖는 장면, 스스로 자신의 발에 뜨거운 물을 붓는 장면 등이 계속해서 그려지고 있다. 저녁시간대 드라마임을 감안해 수위를 조절해주기 바란다.
1TV [KBS 뉴스 9]	15	'뉴스를 만나다'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출연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는 '성상납 의혹'으로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상황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내부총질과 분열을 일으켰던 인물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은 인물을 섭외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2TV [비밀의 여자]	15	황금시간대 편성된 드라마로 자녀와 함께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주애라(이채영 분)가 친구에게 약을 먹인 뒤, 친구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불편하다. 이날은 정겨울(신고은 분)이 주애라가 먹인 약 때문에 몽롱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전개를 자제해주기 바란다.
1TV [일요진단 라이브]	1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시작됐다. 이날 전문가 패널들과 해당 사안 및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해 집중 분석했다. 그런데 여당 쪽 패널이 두 명 출연했고, 야당 쪽 패널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마저 당내 비주류로 분류되며 반명(反明)으로 나뉘는 인물이다. 패널 모두가 이재명 대표에 비판적인 입장이라 출연자 섭외가 긍정하지 않았다.

4월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2TV [비밀의 여자]	54	이날 주애라(이채영 분)가 정현태(채재성 분)를 살해했다. 아직 극이 초반 단계인데, 이채영이 벌써 두 명을 살해한다는 설정이 너무 지나치다. 주애라로 인해 시력을 잃고 아이도 잃었던 정겨울(신고은 분)이 아버지까지 잃게 됐다. 약자에게 연이어 불행이 불어 닥치는 모습이 너무 보기 불편하다.
2TV [비밀의 여자]	40	주애라(이채영 분)가 남유진(한기웅 분)조차 속인 채 정겨울(신고은 분)의 아기를 납치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 요즘 같이 힘든 시기에 가진 것 없는 정겨울이 친구의 악행으로 시력도 잃고, 아기까지 빼앗기는 설정이 보기 불편하다. 약자가 끝없이 고통 받는 상황을 지켜보는 게 답답하고 스트레스 쌓인다
2TV [비밀의 여자]	36	주애라(이채영 분)가 정겨울(신고은 분)의 아버지에게 살인 누명을 씌운 것도 모자라, 정겨울의 아기를 납치했다. 아무리 악역이라지만 아기를 유괴한다는 설정은 너무 지나치고, 힘없는 정겨울의 가족을 극한으로 내모는 것도 보기 불편하다. 어느 정도는 웃음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드라마를 제작해주기 바란다.
2TV [비밀의 여자]	31	시각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이다. 드라마의 내용도 지나치게 자극적이지만, 그보다 더 화가 나는 것은 시각장애인을 비하하는 장면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점이다. 주애라(이채영 분)가 앞이 보이지 않는 정겨울(신고은 분) 눈앞에 물건을 들이밀며 보이는지 보이지 않는지 확인하는 장면은 명백히 시각장애인을 비하하는 행동이다. 조금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기 바란다.
1TV [열린음악회]	21	매주 일요일 오후 방송되는「열린음악회」를 좋아한다. 다양한 음악들로 매 회 신나는 무대를 선사해주어 위안을 받는다. 그런데 이날은 결방이 되어 많이 아쉬웠다. 될 수 있으면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2TV [비밀의 여자]	16	황금시간대 편성으로 가족들이 모여서 시청한다. 그런데 주인공이 남편과 내연녀로 인해 시력을 잃고, 아버지와 자식도 잃고, 이젠 전신 마비에 빠지게 됐다. 시간이 흐를수록 악역들이 점점 더 악랄하고 잔인해져서 무서울 정도다. 한 사람의 인생이 너무 불행해지는 모습이 보기 불편하다.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4	하루도 빠짐없이 시청하는 방송이다. 전문가 패널들이 출연해 마치 족집게 과외를 하듯 중요한 정보를 쏙쏙 전달해주는 방송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밖에 없다. 이날 제 시간에 방송되지 않아 결방인 줄 알고 당황했다. 앞으로는 편성 시간을 잘 지켜주기 바란다.
1TV [노래가 좋아]	13	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일요일 오전에 온 가족이 함께 시청한다. 이날 마라톤 중계로 결방이 되어 가족들이 무척 서운해 했다. 해당 방송을 통해 즐거움을 얻는 시청자들이 많으니 앞으로는 결방하지 않길 바란다.
1TV [KBS 뉴스 9]	12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을 위해 뛰는 건 영광이라며 김민재 선수를 겨냥한 듯한 글을 썼다고 보도했다. 손흥민 선수는 A매치 후 항상 팬들에게 감사인사를 해왔는데, 이를 겨냥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서로가 SNS 계정 팔로우를 끊은 흔적까지 포착됐다는 내용도, 김민재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차단해서 팔로우가 끊긴 것이기 때문에 정정이 필요해 보인다.
1TV [전국노래자랑]	12	‘경북 구미시 편’이 방송되었는데, 진행자 김신영 씨가 여전히 김스를 착용한 모습이었다. 신나고 즐거워야 할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김스를 하고 있으니 분위기가 살지 않는다. 프로그램의 분위기와 더 잘 어울리는 진행자로 교체해주시기 바란다.

5월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KBS 뉴스광장]	41	경북대 인근에 이슬람 사원을 짓는데 주민 반대로 갈등을 겪고 있어, 경북대 학생과 교수들이 이슬람 혐오를 멈추자며 교내에서 평화 행진을 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슬람 사원을 짓는 것에 대한 반대를 혐오라고 표현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당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주민들의 입장은 전혀 담기지 않은 편파적인 보도다.
1TV [6시 내고향]	26	저녁마다 「6시 내고향」을 찾는 시청자이다. 그런데 이날 해당 방송이 결방되어 많이 아쉬웠다. 고정 시청자들을 위해 최대한 결방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1TV [동행]	12	어려운 이웃들의 이야기를 함께 고민하고 희망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이다. 매주 시청하는데 이날은 결방이 되어 안타까웠다. 소외된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는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인 만큼 결방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2TV [비밀의 여자]	12	방송 말미에 서하늘(남소이, 김가현 분)이 사라지는 장면이 그려졌다. 주애라(이채영 분)가 서하늘의 존재를 알고 납치한 것인데, 갓난아기 때 납치해서 다른 가정에 입양된 서하늘을 다시 납치한다는 설정이 너무 잔인하다. 두 번의 살인과 두 번의 납치, 주애라의 악행이 너무 지나쳐 도저히 공감할 수 없다.
1TV [역사저널 그날]	8	경기도에서 해당 방송을 꾸준히 시청하고 있다. 최근 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을 다루고 있다. 두 대통령이 경제를 성장시키고 물가를 안정시켰기 때문에 아직도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시청자들이 있다. 그 시절을 겪지 않은 출연자들이 역대 대통령을 비판·평가하고, “전두환”이라고 이름만 언급하는 것은 듣기 불편하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아침마당]	8	이날도 돌발퀴즈가 준비되어 있었다. 방송 중간에 언제 문제가 나갈지 모르며, 티벳으로만 참여할 수 있다. 해당 방송은 주로 고령층 시청자들이 즐겨 보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어플 사용에 능숙하지 않다. 남녀노소 모두 돌발퀴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화와 문자 등 참여 방안을 확대해주시기 바란다.
2TV [비밀의 여자]	8	주애라(이채영 분)가 남유진(한기웅 분)과 오세린(최윤영 분)의 딸을 죽은 사람으로 조작했다. 자꾸 터무니없는 방향으로 전개가 흘러가니 재미가 반감된다. 불륜, 살인, 협박, 유괴 등 부적절한 소재가 끊임없이 사용되는 점도 보기 불편하다. 상식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1TV [전국노래자랑]	7	진행자가 바뀐 후 본인을 포함해 지인들도 해당 방송을 시청하는 일이 줄었다. 진행자 김신영 씨가 프로그램의 재미를 최대한으로 살리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예전의 분위기를 그리워하는 시청자들을 위해 송해 선생님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연륜 있는 진행자로 교체해주시기 바란다.
1TV [KBS 뉴스특보]	7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타 방송사에선 특보로 다뤄졌는데, 공영방송인 KBS에서는 뉴스특보 편성이 따로 없어 의아했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인 만큼 특보를 편성했어야 한다.
1TV [사사건건]	7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김성희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이 출연해 윤 대통령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야기를 나눴다. 장성철 소장의 경우는 여당속의 야당처럼 보수 측 인사가 아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송이 되려면 양측을 각각 대변할 수 있는 출연자를 섭외해야하는데, 이날은 출연자 섭외가 공정하게 이뤄진 것 같지 않아 아쉽다.

| 6월 |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가요대축제]	262	K팝 가수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진행하는 「가요대축제」를 올해는 일본에서 개최한다는 기사를 접했다. 공영방송의 연말시상식을 왜 일본에서 개최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일본 오염수 방류로 국민감정이 좋지 않은 시기라 더욱 당황스럽다. 일본 개최를 철회해주기 바란다.
2TV [어쩌다 마주친 그대]	90	해당 드라마가 전개될수록 유튜브 자뽀TV의 '우정리노트1', '우정리노트2'와 유사한 설정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우정리'라는 지명과 과거로 돌아가는 시간여행 콘셉트, 캐릭터의 성격과 흔치 않은 대사까지 유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1TV [금이야 옥이야]	29	저녁마다 KBS 1TV 일일연속극을 시청하는 시청자이다. 이날 결방이 되어 너무 속상했다. 극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2TV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23	매주 화요일마다 기다렸다가 시청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도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 기다렸는데, 방송이 되지 않아 서운했다. 화요일 저녁이 시청하기에 좋았는데 편성이 변경됐다니 걱정스럽고, 향후에는 결방되지 않길 바란다.
1TV [노래가 좋아]	21	일요일마다 온 가족이 다 함께 시청할 정도로 좋아했던 프로그램이다.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프로그램인데 종영이 되어 당황스럽다. 좋은 프로그램들이 하나 둘 사라지는 것 같아 안타깝고, 빠른 시일 안에 시즌2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KBS 뉴스 7]	21	아나운서가 '부산 엑스포'를 '북한 엑스포'로 오독하는 일이 발생했다. 정부에서 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할 아나운서가 이러한 실수를 한 점이 굉장히 실망스럽다.
2TV [비밀의 여자]	19	주애라(이채영 분)가 전신마비 상태에서 깨어난 정겨울(신고은 분)을 납치했다. 정겨울이 전신마비 상태에 빠지게 된 것도 주애라 때문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조금도 배울 점 없이, 지나치게 잔인하고 자극적인 전개에 실망스럽다.
2TV [비밀의 여자]	19	이날 YJ그룹에 오세린(신고은 분)이 들어와 서태양(이선호 분)의 뺨을 때리는 모습이 그려졌다. 극중 대기업으로 묘사되는 YJ그룹에 외부인 오세린이 마음대로 드나드는 설정이 현실성이 떨어진다. 또한 극에 진전이 있어야 하는데, 주인공의 복수가 계속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어 답답하다.
2TV [뮤직뱅크]	18	지난주에 컴백한 가수 강다니엘에 '뮤빗 투표' 후보에서 빠졌다. 현재 강다니엘의 팬들이 전화로 많이 문의하고 있는데,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답답하다.
1TV [더 라이브]	16	'전 대표 참견 시점'이라는 코너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출연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성매매로, 특히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는 돈 봉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중이다. 공영방송에 피의자 신분이 출연하는 모습이 보기 불편했다. 패널 선정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 7월 |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전국노래자랑]	89	일요일마다 빠짐없이 시청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이날은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결방됐다. 지난주도 결방이 되었기 때문에, 이날 결방이 더욱 서운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1TV [우리말 겨루기]	41	해당 프로그램을 꼭 시청하는 시청자이다.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유익하고 재미있는 방송인데 이날 결방이 되어 서운했다. 「우리말 겨루기」를 시청하기 위해 월요일을 기다리는 시청자들이 많으니 가급적이면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1TV [금이야 옥이야]	41	저녁마다 KBS 1TV 일일연속극을 시청하는 시청자이다. 이날 결방이 되어 너무 속상했다. 극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1TV [전국노래자랑]	35	매주 일요일마다 기다렸다가 시청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도 시청하기 위해 오전 내내 기다렸는데 결방이 되어 서운했다. 인기 프로그램인 만큼 최대한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2TV [1박 2일]	32	김종민 씨와 문세윤 씨 등 멤버들을 좋아해서 방송을 늘 챙겨본다. 이날 비 피해로 인해 일부 예능 프로그램이 결방됐는데, 그 중 하나가 「1박 2일」이라 속상했다. 다음 주부터는 결방 없이 방송해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가요무대]	30	매주 기다렸다 시청하는 프로그램이다. 55분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날 결방이 되어 서운했다. 수해로 피해가 극심하니 음악 방송을 결방시키는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다음 주부터는 정상 편성을 해주기 바란다.
1TV [금이야 옥이야]	22	주인공이 자식을 키우며 성장해가는 과정을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이날「특별기획 수신료와 공영방송의 가치」편성으로 결방이 되어 서운했다. 극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결방되지 않게 해주기 바란다.
1TV [동물극장 단짝]	22	평소 동물을 좋아해서 반려동물과 사람 사이의 우정과 사랑을 그린 해당 방송을 꼭 시청한다. 이날 뉴스특보 편성으로 일부 프로그램들의 편성이 뒤로 밀리며 해당 프로그램은 결방됐다. 동물을 사랑하는 고정 시청자들을 위해 가급적이면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1TV [우리말 겨루기]	17	해당 방송을 통해 우리말을 공부하는 시청자이다. 매주 빠짐없이 챙겨보는 중인데, 이날 결방이 됐다. 본인뿐 아니라 온 가족이 모두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다. 고정 시청자들이 많으니 가급적이면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1TV [특별기획 수신료와 공영방송의 가치]	16	이날 전 지역에 상당히 많은 비가 쏟아졌다. 비 피해가 우려돼 KBS를 시청했는데,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에서 「특별기획 수신료와 공영방송의 가치」를 편성해 당황스러웠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곳이 많은데 이런 특별기획 방송을 편성한 점이 아쉽다.

| 8월 |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금이야 옥이야]	28	KBS 1TV 일일연속극을 좋아한다. 그런데 「금이야 옥이야」는 결방이 잦아서 극의 흐름이 자주 끊기고, 내용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1TV [광복절 기획 역사저널 그날]	13	광복절을 맞아 '전두환, 히로히토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방송이 진행됐다. 그런데 진행자와 출연자 모두 '천황'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시청 내내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일왕을 높여 부르는 반면, 본인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을 아무 호칭 없이 "전두환"으로 언급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는데 지나친 것 같다.
1TV [전국노래자랑]	9	수십 년간 해당 방송을 시청해온 오랜 시청자이다. 그런데 김신영 씨가 프로그램의 재미를 살리지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발음이 명확하지 않아 청취에 불편한 부분도 있다. 보다 「전국노래자랑」의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진행자로 교체해주기 바란다.
1TV [KBS 뉴스특보]	8	이날 전라북도 무주군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런데 앵커도 "전남 무주군"이라고 발언했고, 하단의 자막에도 '전남 무주군'으로 표기됐다. KBS 뉴스에서 지역을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잼버리 대회로 인해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뉴스를 많이 시청하고 있으니, 부끄럽지 않도록 실수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해주기 바란다.
2TV [진짜가 나타났다]	8	이제까지 해당 드라마를 열심히 시청해왔는데 터무니없는 전개에 황당하다. 오연두(백진희 분)와 공태경(안재현 분)이 혼인신고를 한 마당에, 하늘이의 친부 김준하(정의제 분)가 은금실(강부자 분)의 핏줄이었다는 설정이 너무 지나치고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오랜 시청자로서 실망스럽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역사저널 그날]	7	'전두환, 김일성의 구호물품을 받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그런데 출연진이 '~씨'도 붙이지 않고, "전두환"으로 언급하는 점이 굉장히 듣기 불편했다. 또한 전두환 정권의 잘못된 부분은 비판하는 것이 맞지만, 집권 중 잘한 부분까지 희화화하며 출연자들이 웃음의 소재로 삼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
1TV [금이야 옥이야]	7	금강산(서준영 분)과 옥미래(윤다영 분)를 응원하며 재미있게 시청 중이었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금잔디(김시은 분)의 친모가 갑자기 살아서 돌아왔고, 곧 금강산과 재회하는 전개가 이어질 것 같다. 뜬금없는 전개와 지금까지 없던 인물의 갑작스러운 등장이 황당하고 공감이 되지 않는다.
1TV [이슈 픽 쌤과 함께]	7	김누리 중앙대 독어독문학과 교수가 출연해 '한국 교육은 왜 무너졌는가?'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그런데 교육에 대한 본인만의 주관으로 우리나라 교육을 비판하는 점이 납득하기 어려웠다. 시험 없는 나라, 경쟁하지 않는 교육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강연이었다.
1TV [KBS 뉴스]	6	관리 부실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관련 보도가 지나치게 많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뉴스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스스로 국격을 깎는 격이다. 오는 11월에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 투표가 있는데, 이러한 보도들이 부산 엑스포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 또한 잼버리 논란을 현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도 지나치다.
1R [최경영의 최강시사]	6	아침 일찍 방송하는 시사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편파적인 태도를 취할 때가 많아 편안하게 청취할 수가 없다. 현 정부를 비판하기 급급하니 듣다 보면 힘이 빠진다. 청취자들이 들으면서 힘이 날 수 있는 방송, 조금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송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156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다. 현재 2023년인데 2022년으로 표기되어 상담실에 문의했고, 원래 2022년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되었기에 공식 명칭이 바뀌지 않아 2022년으로 표기되었다는 답변을 받았다. 본인처럼 자막이 잘못 표기되었다고 생각할 시청자들이 많을 것 같다. 2022년으로 표기된 이유를 방송 중 설명해주거나, 자막으로 안내해주면 좋을 것 같다.
2TV [효심이네 각자도생]	16	눈이 빠지게 주말드라마를 기다리는 시청자이다. 이날 축구 중계로 인해 결방이 되어 너무 속상했다. 공영방송으로서 뉴스, 주요 드라마 등은 편성에 변경이 없었으면 한다.
1TV [인간극장]	12	유방암이 발병한 아내를 위해 귀촌한 황기수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매주 즐겨보고 있지만, 이날은 아픈 아내를 위해 귀촌한 사연이 감동적이라 더욱 애뜻하게 시청했다. 현재는 닭을 키우고 있는데, 좋은 환경에서 인간적으로 닭을 키우는 모습을 보고 계란을 구매하고 싶어졌다. 남은 회차도 잘 시청하겠다.
2TV [우아한 제국]	10	주말부터 일일드라마를 기다리는 시청자이다. 젊은 사람들은 다양하게 즐길 거리가 있지만, 고령층 시청자들은 집에서 드라마 보는 재미로 산다. 그런데 이날 축구 중계로 일일드라마가 결방되어 너무 실망스러웠다. 가급적이면 결방 없이 방송해주기 바란다.
2TV [우아한 제국]	8	해당 드라마를 꾸준히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내용이 지나치게 흥미 위주로 야망과 복수, 살인, 누명 씌우기로 일관되니 보기 불편하다. 하루 걸러 흉악 범죄가 일어나면서 세상이 살기 어려워지고 있고, 그에 따른 모범범죄도 많이 발생한다. 드라마가 시청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신중히 제작해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8	한동안 해외에 있어 해당 방송을 시청하지 못하다가, 이날 오랜만에 방송을 시청하게 되었다. 그래서 김승휘 아나운서가 하차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고 굉장히 아쉬웠다. 김승휘 아나운서가 부드럽게 진행을 잘 했는데 하차해서 안타깝다. 추후에 다시 해당 방송의 진행을 맡아주었으면 좋겠다.
1TV [걸어서 세계속으로]	8	부모님과 함께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도 가족들과 재미있게 시청 중이었는데, 갑자기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관련 특보가 편성되며 방송이 잠시 중단되었다가 이어졌다. 뉴스 시간에 전해도 될 소식을, 수많은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중단하고까지 내보낸 점이 납득이 되지 않았다.
1TV [금이야 옥이야]	8	주인공이 자식을 키우며 성장해가는 모습을 감동적으로 시청해왔다. 내용 및 출연진이 좋아 매일 저녁 재미있게 봤는데, 벌써 종영이 되어 아쉽다. 연장이 되었으면 했던 터라 서운하다. 그동안 고생한 제작진과 출연진에게 감사하다.
1TV [6시 내고향]	8	이날 방송은 '영양고추 H.O.T 페스티벌'이 열리는 서울광장에서 진행되었는데, 본인이 워낙 축제를 좋아하고 또 고향이 영양이기도 해서 너무 재미있게 시청했다. 방송 중간에 고추 농장을 직접 보여주니 믿음이 가서 구매를 결정했다. 이날 방송 굉장히 유익했고, 항상 좋은 정보를 전해주어 감사하다.
2TV [우아한 제국]	8	KBS 2TV의 일일드라마와 주말드라마를 좋아하는 시청자이다. 지난 주 주말드라마도 결방되었는데, 이날 「우아한 제국」마저 결방이 되어 너무 속상했다. 될 수 있으면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 10월 |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추석 특선 야생의 대평원 세렝게티3]	46	세렝게티에 서식하는 동물들을 담아낸 다큐멘터리로, 유익하고 볼거리가 풍부해 자녀와 함께 시청하려고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시안게임 때문인지 편성이 변경되어 상당히 아쉬웠다. 약속도 취소하고 해당 방송을 기다리는 시청자들도 있다. 가급적이면 편성을 변경하지 않길 바란다.
1TV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28	이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진행됐다. KBS에서 실시간으로 개표 상황을 중계할거라고 예상했는데, 중계방송이 편성되지 않아 현황을 알 수 없어 답답했다. 굉장히 중요한 선거였음에도 개표 상황이 중계되지 않은 점이 납득하기 어렵다.
1TV [가요무대]	25	홀러간 노래를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에게는 매주 월요일 밤의 즐거움이다. 그런데 이날 결방이 되어 아쉬웠다. 중장년층 및 노년층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 최대한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2TV [여기는 항저우]	20	이날 한국 육상 높이뛰기 간판인 우상혁 선수가 금메달에 도전했다. 우상혁 선수를 응원하며 시청 중이었는데, 갑자기 축구 중계로 넘어가 당황스러웠다. 높이뛰기는 결승이었고 축구는 준결승이었음에도, 높이뛰기 결승전을 끝까지 편성하지 않은 점이 이해하기 어렵다. 타 방송사에서도 모두 축구만 중계했는데 전파 낭비라는 생각이 든다.
2TV [효심이네 각자도생]	17	주말드라마를 챙겨보는 시청자이다. 그런데 아시안 게임이 시작된 후로 결방이 잦아 속상하다. 주말드라마는 일일연속극과 달리 한 주에 두 번만 방송되니 결방이 되면 너무 아쉽다. 드라마를 기다리는 시청자들을 위해 될 수 있으면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2TV [효심이네 각자도생]	17	KBS 주말드라마를 즐겨 보는 시청자이다. 이날 야구 중계로 인해 편성이 지연됐는데, 드라마 시작 전 광고까지 너무 많이 편성되어 평소보다 20분이나 늦게 방송이 시작됐다. 편성은 시청자와의 약속이므로 가급적이면 시간을 지켜주기 바란다.
1TV [역사저널 그날]	11	이날 헌정 사상 최초로 단임제를 선택한 배경을 다루며,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전두환”이라고 이름만 언급한 부분이 듣기 불편했다. 또한 그 시대를 겪어보지 않은 일부 젊은 출연자들이 현재의 관점에서 그 시대에 대해 이야기하는 점도 공감되지 않는다.
1TV [KBS 뉴스]	11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됐다. 그래서인지 며칠째 해당 사건이 주요 뉴스로 보도되고 있다. 경제와 안보 등 다른 주요 뉴스가 많은데, 이태원 참사로 인해 묻히는 것 같아 답답하다. 물론 희생자들과 유족들을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추모를 강요하는 분위기도 불편하다.
2TV [불후의 명곡]	10	젊고 실력 있는 가수들이 가요계 전설의 노래를 각자 자신에게 맞는 곡으로 재탄생시켜 펼치는 대결이 너무 흥미롭다. 본인이 해당 프로그램을 몹시 좋아하는데, 이날 결방이 되어 서운했다. 다음 주부터는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2TV [1박 2일]	9	멤버들이 전국을 여행하며 겪는 다양한 사건들을 재미있게 보고 있다. 특히 김종민 씨를 좋아해서 빠짐없이 시청 중인데, 이날은 결방이 되어 실망했다. 고정 시청자들을 위해 가급적이면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 11월 |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2TV [더 라이브]	145	해당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위해 일도 빨리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정도였다. 그런데 너무 갑작스럽게 폐지되어 당황스럽다. 고정 시청자가 많으니 방송을 재개해주기 바란다.
2TV [더 라이브]	110	일을 마치고 돌아와 해당 방송을 시청하는 것이 큰 즐거움이던 시청자이다. 이날도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 기다렸는데 갑자기 편성에서 제외되어 당황스럽다. 수신료를 내고 있는 시청자로서, 사전 설명 없는 편성제외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1TV [KBS 뉴스 9]	36	이소정 앵커가 진행을 잘해서 좋아했는데, 이날 갑자기 앵커가 교체되어 당황했다. 사전에 시청자들에게 하차 소식을 알렸더라면 이렇게 놀라진 않았을 텐데, 아무 공지를 받지 못했기에 불편한 마음이 든다. 갑자기 많은 프로그램에 변화가 생겨 안타깝다.
1R [주진우 라이브]	33	해당 방송을 꾸준히 청취해왔는데, 이날 갑자기 다른 프로그램이 방송돼 놀랐다. 청취자들에게 충분한 사전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이 종영되고 진행자가 하차한 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애청자로서 많이 아쉽고 속상하다.
1TV [KBS 뉴스 9]	30	이소정 앵커가 단아한 모습으로 진행을 잘해주어 그동안 9시 뉴스를 잘 시청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진행자가 교체되어 시청자 입장에서 당황스럽고 아쉽다. 이소정 앵커가 발음이나 전달력 등 모든 면에서 진행을 잘 해왔기에, 다시 진행을 맡아주었으면 한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2TV [효심이네 각자도생]	29	새벽에 일을 나가는 시청자이다. 주말드라마를 시청한 후 취침했다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날 야구 중계로 편성이 뒤로 밀리며 해당 방송도 늦어졌다. 시청자와의 약속인 편성 시간을 지켜주기 바란다.
1TV [KBS 뉴스 9]	14	이날 9시 뉴스를 시청했다. 퀄리티와 공정성 등 많은 부분에서 좋은 모습으로 바뀌고 있음을 느꼈다. 또 예전부터 박장범 기사를 좋아했는데, 이번에 새롭게 진행을 맡아 기대가 된다. 시청자들이 신뢰하고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는 공정한 뉴스를 만들어주기 바란다.
2TV [우아한 제국]	13	30년 동안 KBS만 꼭 시청해왔다. 일일드라마를 좋아하는데, 야구 중계로 이날 결방이 됐다. 결방으로 극의 흐름이 끊겨 아쉽고, 앞으로는 결방하지 않길 바란다.
2TV [우아한 제국]	12	KBS 2TV 일일드라마를 꾸준히 시청 중이다. 그런데 「우아한 제국」이 유독 결방이 잦다. 한때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문에 한동안 결방이 되었는데, 이날은 프로야구 중계로 또 결방이 됐다. 고정 시청자들이 있으니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1TV [6시 내고향]	11	이날 사과 특집이 방송됐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사과를 먹을 철인데, 방송에서 사과를 다뤄주어 좋았다. 제공하는 정보들도 마음에 들고 유익했다. 감사하다.

| 12월 |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2TV [홍김동전]	70	해당 프로그램이 낮은 시청률 때문에 폐지된다는 기사를 접했다. 요즘 사람들은 TV보다도 OTT로 방송을 시청하는 경우가 많다. 「홍김동전」은 OTT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폐지된다니 안타깝다. 프로그램 폐지를 반대한다.
2TV [홍김동전]	61	관찰 예능이 대세인 요즘, 「홍김동전」처럼 아날로그 감성의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어서 좋았다. 다양한 주제로 방송을 제작해주어 웃으며 시청했는데, 시청률이 낮다는 이유로 폐지하는 것이 안타깝다. 해당 프로그램의 폐지를 결사반대한다.
2TV [고려 거란 전쟁]	37	현재 해당 드라마를 시청하는 것만이 즐거움인 시청자이다. 이날도 방송을 기다렸는데 결방이 되어 굉장히 아쉬웠다. 국란을 극복하는 내용이 큰 힘이 된다. 앞으로는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1TV [KBS 뉴스]	20	배우 이선균 씨가 사망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언론도 있다. 마약 투약 혐의 관련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사적 통화 내용을 보도한 것은 지나치다. 앞으로는 이런 자극적인 보도는 자제해주기 바란다.
1TV [KBS 뉴스 5]	16	이날 5시 뉴스를 시청하는데, 김지윤 아나운서가 감기에 걸렸는지 평소와 달리 잠긴 목소리로 진행했다. 뉴스를 시청하는 내내 기침을 하진 않을까 불안했다. 수많은 시청자가 보는 뉴스이다. KBS에 대타로 진행을 맡을 아나운서가 많을 텐데 왜 진행자를 교체하지 않은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아침마당]	13	본인의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모두 김재원 아나운서의 팬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김재원 아나운서가 보이지 않아 본인이 대표로 상담실에 문의했다. 속히 휴가에서 돌아와 다시 진행을 맡아주길 바란다.
1TV [KBS 뉴스 9]	11	'2023 부산 엑스포' 유치가 실패했는데, 이날 톱뉴스로 다루지 않아 의아했다. 국민들에게 유치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기대를 품게 하고 유치하지 못했으니 이에 대한 비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메인 뉴스로 다루지 않은 점이 편파적이다.
1TV [아침마당]	8	이날 방송을 시청했는데 김재원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지 않아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걱정했다. 방송에서 보지 못하니 많이 아쉽다. 속히 휴가에서 돌아와 다시 진행을 맡아주기 바란다.
1TV [생로병사의 비밀]	7	매주 부모님과 함께 시청하는 방송인데, 이날 결방이 되어 깜짝 놀랐다. 고정 시청자들을 위해 가급적이면 결방을 자제해주시기 바란다.
1TV [아침마당]	7	평소 「아침마당」을 즐겨 시청한다. 이날 가수 박상철 씨가 출연했는데, 박상철 씨는 과거 불륜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방송에는 시청자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출연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문제를 일으켰던 출연자는 가급적이면 섭외를 자제해주시기 바란다.

3

시청자상담 일일보고서

1

주요의견 선정 기준

△ 시청자의 권익에 관한 의견

- 방송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 신체상의 피해를 당했다는 의견
- 방송으로 인해 개인의 법익(명예훼손, 성명, 초상, 음성 침해, 모욕죄)에 침해를 받은 내용

△ 방송제작의 공영성에 대한 의견

- 방송내용의 공정성, 정확성, 진실성에 대한 타당한 이견 의견
- 출연자, 제작진, 공사 직원의 사회적 물의(음주운행, 폭행, 시민불편)에 대한 항의 의견
- 방송수신에 대한 다수의 합당한 불편 내용
- 방송과 제작진, 공사 직원에 대한 시청자의 합당한 호평과 칭찬

△ 사회적 의제를 제시한 내용

- 사회적 현안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영성이 높은 의견과 제안
- 타 방송, 신문 등에 방송, 보도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의견

	의견분류	세부의견
1	편성	편성 요청(신규), 재방송 요청, 지역편성 요청, 방송시간 변경, 프로그램 폐지반대, 변경고지관련(결방), 방송분량, 기타
2	제작요청	라디오,TV(소재추천), 캠페인, 해외드라마, 방송분량, 후속
3	드라마	극본, 소재, 제목, OST, 소품
4	출연자·진행자	발언, 태도, 진행, 의상, 섭외평가, 섭외요청, 호평, 연기
5	공정성	편파성, 객관성논란, 논거부족, 중립성
6	사실성	불명확, 내용오류, 왜곡, 자막오류
7	시청자권익	명예훼손, 초상권, 음성, 저작권, 개인정보 유출, 업체피해
8	프로그램 호평	호평
9	어린이, 청소년보호, 노약자	시청등급, 보호책임
10	표현(소재)	선정성, 폭력성, 모방위험, 상업성, 비윤리, 비하, 선곡혐오, 과장, 위생, 품위, 위법 요소, 저급, (비)시의성, 적합, 안전(건강), 위화감, 업체선정, 자료화면, 자막(속도, 선명도), 차별, 자연(환경)보호, 중복, 다양성
11	간접광고	광고, 협찬
12	언어	우리말(한글, 표준어), 외래어, 외국어, 바른말(어법)
13	심의	사전, 사후심의
14	제작자 윤리와 주민피해	책임, 투명성, 도덕성, 직원품위, 주민피해
15	장애인·차별	장애인 배려(인권), 차별금지
16	외주제작	외주제작피해, 외주제작사 관련분쟁
17	재난방송	재난(재해)방송
18	일기예보	정확성(지역구분), 지역균형보도, 진행, 의상, 내용제언
19	방송품질	음향, 영상 품질, (생방송)무대, 방송세트
20	난시청	TV, 라디오, DMB
21	시청자참여	방청, 전화참여, 인터넷참여, SNS 참여(문자), 선물, 상품, 모금 ARS, 공개방청, 예심
22	홈페이지	다시보기듣기(불편), 방송정보, 게시판, 실시간, 에이블(장애인), 이용문의(로그인 등)
23	수신료	수신료안내, 환불요구
24	KBS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팟캐스트(아이폰), my k
25	시청자서비스	상담실, 견학, 공헌, 기부, 직원(불)친절
26	프로그램 구매	프로그램 구입, 프로그램 상품개발, 콘텐츠관련
27	방송경영(정책)	디지털전환, 수신료관련, 경영사업
28	선거방송	공정성, 선거중립, 여론조사
29	보도제언	보도요청, 심층보도요청, 후속보도요청, 뉴스적합도, 뉴스편성, 뉴스속보제언, 보도 제언

△ 검증과 확인 단계 / 정확성, 사실성, 객관성

- KBS 프로그램 홈페이지 방송정보 및 공지사항
- 방송 다시보기
- 제작진과 사실 확인 관계
- 언론보도 관련 내용 담당처를 통한 객관적 사실 확인
- 업체 주소, 연락처
- 출연자 정보 기재
- 표준어 및 바른 우리말 사용

△ 판단 단계

- 방송의 자유와 제작자의 책임
- 정확, 공정, 진실
- 국민의 보편성, 사회통합, 민주적 여론 형성
- 방송의 공익성, 공영성
- 방송강령,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 제작진 답변 단계

- 제작진의 성실한 답
- 민원처리가 완료된 내용
- 제작진이 해당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답변을 게시한 경우

KBS 시청자의견 일일보고서 [1.11]

■ 담당: 시청자서비스부 (○○○, ○○○○) [작성: (주)케이티아이에스]

I. 상담실적

- 상담기간: 2023. 1. 10.(화) 06:00 ~ 23:00
- 상담건수¹⁾: 916건

II. 주요의견 내용

○ 방송 호평(5명)

- 프로그램명 : 「인간극장」 ‘여섯 평, 작은 집에서 삽니다’
- 방송일시 : 2023. 1. 10.(화) 1TV (07:50-08:25)

여섯 평의 작은 집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문건호·손정현 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작은 집에 사는 기쁨을 전파하고 건축학교를 운영하면서 마을 사람들을 돕는 모습을 보며, ‘집이란 무엇일까?’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 특히 본인도 집 짓는 것에 관심이 많아 이번 주 방송이 도움이 됐다. 집이 가장 중요한 자산 증식의 수단인 요즘, 마음에 와 닿는 방송이었다.

○ 출연자 제언(6명)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일시 : 2023. 1. 9.(월) 1TV (16:00-17:00)

김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출연했다.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군의 대응이 부신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김행 위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현안 질의를 하자는 물음에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 국회”라고 답변한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는 국민들의 우려 및 지적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오직 당리당락만 따지는 태도가 실망스러웠다.

III. 청원현황

- 신규청원 - ‘불후의 명곡’ 외 3건.
 - ‘불후의 명곡’ 관련(동의수 74) : 연예인의 잘못이 아님을 알려주시고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하는 시청자 청원이 한 사람을 매장 시키는 분위기가 마음 아픕니다.
- 이슈청원 및 특이사항
 - ‘불후의 명곡’ 관련(동의수 416) : 김희재 가수는 피해자입니다. 부디 공정한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 KBS홈페이지->시청자권익센터->시청자청원(<http://petitions.kbs.co.kr>)

1) 프로그램 별 인터넷 의견 건수는 집계에서 제외

IV. 일일 상담내용

1. 상담실적 : 총 916건

○ 형태별 분류

전화	인터넷	우편·FAX	방문	ARS ²⁾	계
382	32	-	-	502	916

○ 채널별 분류

1TV	2TV	라디오	DMB	인터넷	非채널	계
474	326	15	-	-	101	916

○ 내용별 분류

의견제시	단순문의	기타	계
129	787	-	916

○ 분야별 분류

방송	기술	경영	기타	계
767	3	66	80	916

시청자 의견	문 의
【보 도】 ○「사사건건」 - 출연자 제언 【시사교양】 ○「우리말 겨루기」 - 출연자 섭외 제언 ○「인간극장」 - 방송 호평 【연예.오락】 ○「가요무대」 - 출연자 섭외 제언 ○「1박 2일」 - 방송 제언 ○「이별도 리콜이 되나요?」 - 진행자 호평 【라디오】 ○「세월따라 노래따라」 - 방송 호평	【방 송】 ○「6시 내고향」 - ‘한라봉’ 연락처 문의 78건 ○「2TV 생생정보」 - ‘목은지 닭볶음탕’ 연락처 문의 45건 ○「열린음악회」 - ‘방청’ 문의 17건 ○「가요무대」 - ‘방청’ 문의 16건 ○「사사건건」 - ‘출연자 불만’ 9건 【기 술】 ○「난시청」문의 2건 ○「수신기술」문의 1건 【경 영】 ○「홈페이지」문의 32건 ○「프로그램 구입」문의 19건 ○「전화교환」문의 9건 ○「수신료」문의 3건 ○「주차」문의 1건 외 2건 【기 타】 ○ 한전 문의사항 포함 80건

2) ARS 항목 상세내용: 제보, 홈페이지문의, 프로그램 구매문의, 출연자 및 출연업체 전화번호 안내

2. 프로그램별 의견

의견	세부내용
[보 도]	
출연자 제언	<p>o「사사건건」‘여의도 사사건건’(6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1. 9.(월) 1TV (16:00-17:00) - 김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출연했다.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군의 대응이 부신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김행 위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현안 질의를 하자는 물음에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 국회”라고 답변한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는 국민들의 우려 및 지적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오직 당리당락만 따지는 태도가 실망스러웠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시사.교양]	
출연자 섭외 제언	<p>o「우리말 겨루기」(2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1. 9.(월) 1TV (19:40-20:30) - 올바른 언어 습관을 갖게 해주어 즐겨 시청한다. 이날 「우리말 겨루기」에 5번째 도전하는 출연자가 있었다. 5번의 도전 중 2번이나 우승을 차지했다고 한다. 이날도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3번째 우승을 차지했는데, 다른 출연자들에게 공정하지 않게 여겨졌다. 공정한 겨루기를 위해선 우승자는 우승자끼리 겨룰 수 있는 왕중왕전에 섭외되어야 한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의견	세부내용
방송 호평	<p>○「인간극장」‘여섯 평, 작은 집에서 삽니다’(5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1. 10.(화) 1TV (07:50-08:25) - 여섯 평의 작은 집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문건호·손정현 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작은 집에 사는 기쁨을 전파하고 건축 학교를 운영하면서 마을 사람들을 돕는 모습을 보며, ‘집이란 무엇일까?’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 특히 본인도 집 짓는 것에 관심이 많아 이번 주 방송이 도움이 됐다. 집이 가장 중요한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된 요즘, 마음에 와 닿는 방송이었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연예.오락]	
출연자 섭외 제언	<p>○「가요무대」‘변안가요’(3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1. 9.(월) 1TV (22:00-22:55) - 지구촌 곳곳에서 현지 언어로 불리던 노래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한 ‘변안가요’를 모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 무대에 조영남 씨가 올랐다. 조영남 씨는 무수한 구설수로 대중에게 이미지가 좋지 않다. 일본 우익 성향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독도 대처 일본이 한 수 위”라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논란이 많은 인물은 가급적이면 섭외하지 않길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의견	세부내용
방송 제언	<p>○「1박 2일」(2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TV (일) (18:20-20:00) - 해당 방송의 홈페이지와 방송이 시작될 때 무지개처럼 보이는 육지개 로고가 표현된다. 남색과 보라색이 합쳐진 육지개는 동성애와 성소수자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다.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국민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로고가 사용된 점이 좋지 않다. 여섯 명의 멤버를 표현한 것일지 모르겠으나, 보기 불편한 시청자들을 위해 수정해주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p>※ 참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12. 27.(화) 일일보고 동일 의견 등재. - <부서답변> 6색 무지개 깃발은 1970년대부터 미국에서 사용되었다고 하나, 「1박 2일」의 로고도 시즌1부터 사용되어온 유서 깊은 로고임. 6지개 색깔 구성이 아닌 멤버 고유색으로 구성되어있음. 시즌 별 멤버 수에 따라 5가지 색상이 되기도 하고 7가지 색상이 되기도 했음. [예능1]
진행자 호평	<p>○「이별도 리콜이 되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1. 9.(월) 2TV (20:30-21:50) - 이별이 후회되는 이들을 위해 재회 자리를 마련해주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진솔하면서도 현실적인 사랑을 다루고 있어 재미있게 시청 중이다. 특히 핑클 시절부터 좋아했던 성유리 씨의 진행이 돋보인다. 사연 하나하나에 진심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칭찬하고 싶다. 앞으로도 성유리 씨가 해당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응원하며 지켜보겠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의견	세부내용
[라디오]	
방송 호평	<p>○「세월따라 노래따라」(2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1. 10.(화) 한민족1 (04:00-05:00) - 해당 방송의 애청자로, 시대적 감성을 좋은 음악과 함께 전해주는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이른 시간 대 편성으로 청취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본방송은 물론 재방송까지 챙겨 듣고 있다. 원석현 아나운서의 차분한 진행도 새벽 시간과 잘 어우러진다. 따뜻하고 다정다감한 방송으로 오래도록 청취자들과 함께하길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기타상담]	
수신료 및 난시청	<p>⊙ 수신료 및 난시청에 대한 상담건수: 5 건</p>

4

상담내용 분석

| 1. 편성 |

○ 1TV 「2023 새날마중」

-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큰 기대를 품고 KBS 1TV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2023 새날마중」을 시청했다. 자정에 보신각에서 열리는 제야의 종소리를 듣기 위해서였는데, 정작 중요한 장면에서 화면이 전환되며 타종 장면은 보여주지 않아 아쉬웠다. 내년에는 타종 장면과 제야의 종소리까지 생생하게 전달해주기 바란다. <1월 3일 보고서>

○ 1TV 「신년 기획 가요무대」 '새해 소원'

- 새해를 맞이해 신년 기획 특집이 방송됐다. 신년 기획 방송만큼 확대 편성이 되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평소처럼 55분간 편성이 되어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해당 방송은 원래 60분 편성이었는데, 2021년경 55분으로 축소됐다. 중장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신년 기획만이라도 확대 편성 해주었다면 좋았을 것 같은 아쉬움이 남는다. <1월 4일 보고서>

○ 1TV 「2023 설날장사 씨름대회」

- '2023 설날장사 씨름대회'가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KBS에서 중계해준 덕분에 박진감 넘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었고, 씨름이라는 종목을 재발견 할 수 있었다. 설날을 맞아 공영방송 KBS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스포츠인 씨름 대회를 편성해주어 감사하다. <1월 25일 보고서>

○ 1TV 「걸어서 세계속으로」 '일본 아오모리와 홋카이도'

- 일본 북부에 위치한 아오모리와 홋카이도를 다뤘다. 설경을 바라보며 즐기는 온천부터 감성의 기차 여행, 겨울 축제 등이 소개됐다. 코로나19 규제가 완화되며 해외여행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인데, 일본을 여행지로 홍보하는 것처럼 여겨져 보기 불편했다. 한국과 일본의 끈끈한 관계와 국민정서를 고려했을 때, 주말 저녁 황금시간대 적절하지 않은 편성이다. <2월 28일 보고서>

○ 1TV 「중계방송 제104주년 3.1절 기념식」

- 104주년을 맞이한 3.1절 기념식이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렸다. KBS 1TV 중계를 통해 기념식을 시청했고, 개식 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순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경건한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한 선열들의 3.1 운동 정신을 되새길 수 있도록 기념식을 편성해주어 감사하다. <3월 2일 보고서>

○ 1TV 「노래가 좋아」

- 일반인들의 인생사 듣는 재미에 빠져 오랜 기간 재미있게 시청해왔다. 그런데 지난 2022년, 화요일 저녁에 방송되었던 해당 프로그램이 일요일 오전으로 편성 변경됐다. 일요일 오전에 교회에 가는 등 고정적인 일정이 있는 시청자들이 의외로 많다. 보다 많은 시청자들이 볼 수 있도록 요일이나 시간을 조금 변경해주었으면 한다. <3월 7일 보고서>

○ 1TV 「아침마당」'목요특강'

- 매일 오전「아침마당」을 열심히 시청하는 시청자이다. 이날도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송이 중단되며 '북한 ICBM 장거리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전했다. KBS 1TV에는 매 시간마다 뉴스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있는데, 굳이 정규방송을 중단하면서까지 뉴스특보를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3월 17일 보고서>

○ 1TV 일일연속극「KBS 뉴스 12」

- 강원도 양양의 시청자이다. 12시에 뉴스를 시청하려고 했는데, 국무회의 모두발언이 중계되고 있었다. 홈페이지 편성표 상으로는 12시에 뉴스가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웠다. 편성이 변경되면 편성표도 즉각 수정해주기 바란다. <3월 22일 보고서>

○ 1TV 「히든 어스 한반도 30억 년-공영방송 50주년 대기획」

- 이날 「히든 어스 한반도 30억 년」의 재방송 편성으로 인해 정규 프로그램 하나가 결방됐다. 좋은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새로운 내용도 아닌 재방송 때문에 정규 방송을 결방시킨 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저녁 황금시간 대에 재방송 편성은 지나친 것 같다. <3월 29일 보고서>

○ 1TV 「중계방송 제104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 이날 오전에 '제104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거행됐다. KBS 중계를 통해 시청 중이었는데, 강릉 산불 관련 뉴스특보가 방송되며 중계가 중단됐다. 1년에 한 번 거행되는 행사인데, 기념식을 끝까지 보여준 후 뉴스특보를 편성하는 편이 나았을 것 같다. 편성에 아쉬움이 남는다. <4월 12일 보고서>

○ 1TV 「중계방송 4.16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식」

- 세월호 참사 9주기인 이날 '세월호 참사 9주기 기억식'이 열렸고, KBS에서 중계했다. 2014년에 발생한 참사로 벌써 9주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추모 행사를 중계하는 것은 지나친 것 같다. <4월 17일 보고서>

○ 1TV 「노래가 좋아」

- 과거 「노래가 좋아」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는 시청자로, 해당 방송에 굉장히 애정이 많다. 최근 프로그램 폐지설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어 속상하다. 노래를 좋아하는 시청자들이 많고, 더욱이 해당 방송은 가족끼리 함께 시청하기에도 좋은 프로그램이다.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길 바란다. <4월 24일 보고서>

○ 1TV 「예술의 전당」

- 박사들이 모여 예술 작품을 둘러싼 창의적인 감상법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유익한 내용이 많음에도 너무 늦은 시간에 편성돼 아쉬울 따름이다. 시청자들에게 교양뿐 아니라, 위로와 낭만까지 선사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다 많은 시청자들이 접할 수 있는 시간대로 편성을 변경해주기 바란다. <4월 24일 보고서>

○ 1TV 「KBS 뉴스특보」

-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타 방송사에선 특보로 다뤄졌는데, 공영방송인 KBS에서는 뉴스특보 편성이 따로 없어 의아했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인 만큼 특보를 편성했어야 한다. <5월 3일 보고서>

○ 1TV 「가요무대」

- KBS만 시청할 정도로 KBS를 사랑하는 시청자이다. 특히「가요무대」를 좋아하며, 매주 이번에는 어떤 주제로 무대를 꾸밀지 기대를 많이 한다. 그러나 기다린 시간에 비해 방송이 짧아 늘 아쉽다. 옛날 노래를 들으며 추억을 회상하는 시청자들을 위해 편성을 1시간으로 확대해주기 바란다. <5월 17일 보고서>

○ 1TV 「노래가 좋아」

- 일요일 오전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즐겁게 볼 수 있는 노래 대결 프로그램이다. 해당 방송을 좋아하는 시청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폐지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좋은 프로그램들이 하나 둘 사라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6월 12일 보고서>

○ 1TV 「생로병사의 비밀」

- 부모님이 건강에 관심이 많아 빠짐없이 시청한다. 그런데 이날 결방이 되어 너무 속상했다. 시청자들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인 만큼 가급적이면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6월 16일 보고서>

○ 1TV 「중계방송 6.25전쟁 제73주년 행사」

- 6.25 참전유공자의 공헌을 기리는 행사를 장충체육관에서 개최했다. KBS 중계를 통해 시청했는데, 참전용사들이 떠올라 눈물이 많이 났다. 참 가슴 아픈 일이며, 참전유공자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할 수 있도록 이 행사를 중계·편성해주어 감사하다. <6월 26일 보고서>

○ 1TV 「TV쇼 진품명품」

- 고미술 감정 프로그램으로, 매주 일요일마다 기다렸다가 시청한다. 그런데 이날은 6.25전쟁 73주년 행사 중계방송으로 인해 결방이 되어 속상하다. 가급적이면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6월 26일 보고서>

○ 1TV 「특별기획 수신료와 공영방송의 가치」

- 이날 전 지역에 상당히 많은 비가 쏟아졌다. 비 피해가 우려돼 KBS를 시청했는데,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에서 「특별기획 수신료와 공영방송의 가치」를 편성해 당황스러웠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곳이 많은데 이런 특별기획 방송을 편성한 점이 아쉽다. <7월 13일 보고서>

○ 1TV 「KBS 뉴스특보」

-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비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데, 그에 비해 뉴스특보 편성이 적다. 특보 사이사이에 드라마 등 정규 프로그램이 편성되고 있는데, KBS는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만큼 온종일 특보를 편성해 비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월 17일 보고서>

○ 1TV 「우리말 겨루기」

- 해당 프로그램을 꼭 시청하는 시청자이다.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유익하고 재미있는 방송인데 이날 결방이 되어 서운했다. 「우리말 겨루기」를 시청하기 위해 월요일을 기다리는 시청자들이 많으니 가급적이면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7월 26일 보고서>

○ 1TV 「특별생방송 2023 재난극복 우리 함께」

- 집중호우로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KBS에서 도움의 손길을 보낼 수 있는 특별생방송을 편성했는데, 방송을 시청하며 적은 금액이나마 기부에 동참했다. 친구들에게도 기부 독려 전화를 돌려 해당 방송을 시청하게 했다. 공영방송답게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칭찬하고 싶다. <7월 31일 보고서>

○ 1TV 「동물극장 단짝」

- 평소 동물을 좋아해서 반려동물과 사람 사이의 우정과 사랑을 그린 해당 방송을 꼭 시청한다. 이날 뉴스특보 편성으로 일부 프로그램들의 편성이 뒤로 밀리며 해당 프로그램은 결방됐다. 동물을 사랑하는 고정 시청자들을 위해 가급적이면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7월 31일 보고서>

○ 1TV 「시사기획 창」

- 끝까지 파헤쳐 진실을 찾는 좋은 프로그램인데, 편성이 너무 늦다. 본인 같은 고령층 시청자들은 늦은 시간에 편성된 프로그램들을 시청하기 어렵다. 「시사기획 창」만이 아니라, 유익한 시사 프로그램이나 역사물은 주로 늦은 시간에 편성되는 경향이 있다. 본방송의 편성 변경이 어렵다면, 재방송이라도 낮 시간에 편성해주기 바란다. <8월 9일 보고서>

○ 1TV 대하드라마「불멸의 이순신」

- 광복절인데 그에 걸맞은 프로그램 편성이 저조해 아쉽다. 임진왜란 때 큰 공을 세운 명장 이순신의 일대기를 그린 해당 드라마의 재방송을 편성해주면 좋을 것 같다. <8월 16일 보고서>

○ 1TV 「KBS네트워크특선 별별다방[광주충국]」

- 이 시간에는 주로 고령층 시청자들이 시청한다. 젊은층 시청자들은 일하고 있을 시간이다. 그런데 해당 방송은 젊은 사람들을 겨냥해 제작된 것 같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시간 별 시청자 유형을 고려해 편성해주기 바란다. <9월 8일 보고서>

○ 1TV 「2023 추석장사 씨름대회-백두장사-」

- 추석이 다가오니 우리나라 고유의 스포츠인 씨름 경기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이날 KBS에서 '2023 추석장사 씨름대회'를 편성해주어 너무 재미있게 시청했다. 이날 편성 감사하고, 다가오는 추석에도 씨름대회를 편성해 명절 분위기를 내주기 바란다. <9월 19일 보고서>

○ 1TV 「중계방송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 국군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편성해주어 감사하다. 덕분에 보고 싶었던 행진 장면, 태권도 시범 등을 잘 시청했다. 한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느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뜻깊은 날 의미 있는 방송을 편성해주어 감사하다. <9월 27일 보고서>

○ 1TV 「추석 특선 야생의 대평원 세령게티3」

- 세령게티에 서식하는 동물들을 담아낸 다큐멘터리로, 유익하고 볼거리가 풍부해 자녀와 함께 시청하려고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시안게임 때문인지 편성이 변경되어 상당히 아쉬웠다. 약속도 취소하고 해당 방송을 기다리는 시청자들도 있다. 가급적이면 편성을 변경하지 않길 바란다. <10월 4일 보고서>

○ 1TV 「덕구」'추석 특선영화'

- KBS에서 추석을 맞아 영화 「덕구」를 편성해주었다. 너무 좋은 영화라 가족이 함께 시청했다. 할아버지의 사랑과 두 남매의 순수함이 감동적이었다. 추석연휴에 어울리는 좋은 영화를 편성해주어 감사하다. <10월 4일 보고서>

○ 1TV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 이날 야구 B조 대한민국과 홍콩의 예선 경기가 진행되는 도중, 중계를 잠시 멈추고 9시 뉴스를 편성했다. KBS는 채널이 두 개임에도 불구하고, 팬층이 두터운 야구를 1TV에 편성해 경기 도중 중계를 중단한 점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앞으로는 시청자들의 불편리를 위해 경기를 중단하지 않길 바란다. <10월 4일 보고서>

○ 1TV 「동네 한 바퀴」

- 동네의 숨은 매력을 재발견하며 시청자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주는 도시 기행 프로그램이다. 매주 토요일마다 재미있게 시청하는데, 이날은 결방이 되어 아쉬웠다. 고정 시청자들을 위해 결방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10월 10일 보고서>

○ 1TV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 이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진행됐다. KBS에서 실시간으로 개표 상황을 중계할거라고 예상했는데, 중계방송이 편성되지 않아 현황을 알 수 없어 답답했다. 굉장히 중요한 선거였음에도 개표 상황이 중계되지 않은 점이 납득하기 어렵다. <10월 13일 보고서>

○ 1TV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개막식」

- 이날 오후 전남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전국체육대회 개막식이 열렸다. 현장 상황이 궁금했는데 KBS에서 중계해주어 재미있게 시청했다. 방송을 통해 본 목포종합경기장이 너무 좋았고, 남현종·엄지인 아나운서의 진행도 칭찬하고 싶다. 여러모로 훌륭했던 개막식을 중계해주어 감사하다. <10월 16일 보고서>

○ 1TV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 지난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전라남도에서 '제104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리고 있다. 주말에 가족들과 다양한 경기를 시청하고자 했으나, KBS에서는 일부 경기만 중계해 무척 아쉬웠다. 개막식과 일부 경기만이 아닌, 전 종목을 중계해주기 바란다. <10월 17일 보고서>

○ 1TV 「2023 제2차 정책토론회」

- 이날 KBS 1TV에서 2023년 제2차 정당정책 토론회를 생중계했다. 각 당의 정책 방안을 알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 국민들이 각 당의 정책을 파악할 수 있도록, KBS에서 이런 토론회를 꾸준히 개최하거나 편성해주었으면 한다. <11월 3일 보고서>

○ 1TV 「역사저널 그날」

- KBS를 좋아하는 시청자이다. 일요일에 KBS 2TV에서 「고려 거란 전쟁」이 방송되고, 이어 최근에 부활한 「개그 콘서트」가 방송된다. 그 두 프로그램을 시청하다보면 「역사저널 그날」을 놓치게 된다. KBS는 다른 방송국과 달리 채널을 두 개 가지고 있으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겹치지 않게 편성을 조금 조절해주면 좋을 것 같다. <11월 21일 보고서>

○ 1TV 「동물극장 단짝」

- 반려견 모임에 나갔다가 「동물극장 단짝」이 폐지될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해당 방송은 자극적이지도 않고, 성숙한 반려문화에 좋은 영향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변화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별로 없기에, 「동물극장 단짝」만큼은 폐지되는 일 없이 계속 방송되었으면 한다. <11월 28일 보고서>

○ 1TV 「동물의 왕국」

- 본인은 「동물의 왕국」을 무척 좋아하는 시청자이다. 아이들도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대구에서는 평일에 다른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시청할 수가 없다. 대구 지역의 시청자들도 수신료를 내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없어 안타깝다. 대구 방송에도 평일에 해당 방송을 편성해주기 바란다. <11월 30일 보고서>

○ 1TV 「ID 영상」

- 9시 뉴스가 시작되기 전에 방송되는 'ID 영상'을 매일 시청한다. 그런데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버려 아쉽다. 이날도 너무 빨리 지나가서 냉정하게 끊어지는 느낌이었다. 영상을 조금 더 길게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 <12월 13일 보고서>

○ 1TV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 해당 방송을 좋아하는데 편성 시간이 늦다. 방송을 기다리다보면 몸도 피곤하고, 잠이 드는 경우도 있다. 편성 시간을 조금 앞당겨주기 바란다. <12월 21일 보고서>

○ 1TV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 시청하고 싶은 프로그램 중 하나다. 그런데 일요일 오전에는 교회나 성당에 가는 사람들이 많다. 편성 시간을 변경해주었으면 한다. <12월 29일 보고서>

○ 2TV 「주말드라마 삼남매가 용감하게 스페셜」

- K-장녀와 K-장남이 만나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은 주말극이다.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 매주 빠짐없이 시청해왔다. 그런데 이날 정규방송 대신 스페셜 방송이 편성돼 굉장히 서운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로 스페셜 방송을 편성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다음 전개를 기다리는 시청자들을 위해 스페셜 방송으로 대체하지 않길 바란다. <1월 2일 보고서>

○ 2TV 대하드라마「징비록」

- 2015년에 '광복 70주년 특별기획 대하드라마'라는 타이틀을 달고 방영했던 정통사극으로,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한 류성룡의 이야기를 다뤘다. 시대고증과 역사성에 충실해 교훈이 됐고, 가슴에 커다란 울림을 남겼다. 최근 대하사극 제작이 저조해 아쉬운데, 우리의 역사를 되새길 수 있는 해당 드라마의 재방송을 편성해주기 바란다. <1월 4일 보고서>

○ 2TV 「대하드라마」

- 고려를 건국한 왕건의 이야기를 다룬 「태조 왕건」, 이성계의 조선 개국에서 세종조까지의 개국사를 담은 「용의 눈물」등을 감명 깊이 시청했다. 지난해 방영됐던 「태종 이방원」이후 우리의 역사를 되새길 수 있는 대하사극이 제작되지 않아 허전하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대하드라

마를 제작해주기 바란다. <2월 13일 보고서>

○ 2TV 「좋은 남자 좋은 여자」

- 1995년에 방영되었던 KBS 2TV 일일드라마로, 신세대의 결혼관을 조명하고 행복한 가정의 조건을 그렸다. 방영 당시 인기가 많았고 본인도 재미있게 시청했다. 최근에 방송되는 일일드라마들은 막장 요소가 많아 피로감이 쌓인다. 탄탄한 스토리와 명품 배우들의 열연이 빛났던 해당 드라마를 추억하는 시청자들이 많으니 재방송을 편성해주기 바란다. <2월 23일 보고서>

○ 2TV 주말드라마「국제에미상 수상기념 다시 보는<연모>」

- KBS 2TV 수목드라마를 항상 재미있게 시청해왔다. 그런데 현재 신작 방영 대신 2021년에 방영되었던 「연모」를 재방송하고 있다. 해당 드라마는 에미상을 수상했고 글로벌 팬덤도 보유하고 있는 인기작이지만, 황금 시간대에 2년 전 중영작을 재방송하는 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속히 작품성을 갖춘 신작을 편성해주기 바란다. <2월 24일 보고서>

○ 2TV 「아이 러브 스포츠」

- 스포츠와 여행 프로그램을 좋아한다. 다만 편성 시간이 너무 짧다. 길게 방송해주었으면 좋겠다. <3월 9일 보고서>

○ 2TV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

- 중요한 스포츠 경기는 꼭 KBS 중계로 시청하는 시청자이다. 3월 8일부터 22일까지 일본, 대만, 미국에서 '2023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이 개최된다. KBS에서 전 경기를 중계해주어, 야구를 좋아하는 아버지와 함께 시청할 생각에 무척 기대가 된다. 좋은 중계로 우리나라를 응원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해주어 감사하다. <3월 10일 보고서>

○ 2TV 「9층 시사국」'학교폭력과 검사아빠'

- '학교폭력과 검사아빠'라는 부제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직에서 낙마한 사건을 다뤘다. 내용이 굉장히 유익했는데 편성 시간이 늦어 시청에 어려움이 있었다. 유익한 방송을 제작해놓고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이 시청하기 어려운 시간에 편성한 점이 아쉽다. 편성 시간을 조금 앞당겨주기 바란다. <3월 13일 보고서>

○ 2TV 「트롯 전국체전」

- 케이블 채널을 통해 해당 방송의 재방송을 시청했다. 재미있게 시청했던 터라 반가웠다. KBS에서도 고령층 시청자들의 취향을 저격했던 해당 방송의 재방송을 편성해주기 바란다. <3월 15일 보고서>

○ 2TV 「스튜디오 K」

- 매주 화요일에 방송되는 「스튜디오 K」의 애청자이다. 그런데 편성이 너무 늦어 시청하기 어렵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방송되면 시청률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보기 힘든 시간에 편성된 점을 개선해주기 바란다. <3월 23일 보고서>

○ 2TV 「2023 뮤직뱅크 인 파리」

-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한 「뮤직뱅크」를 너무 재미있게 잘 시청했다. 본인처럼 다시 한 번 보고 싶은 시청자들을 위해 빠른 시일 안에 재방송을 편성해주기 바란다. <5월 11일 보고서>

○ **2TV 일일드라마「금이야 옥이야」**

- 1TV에서 방영되는 「금이야 옥이야」의 본방송을 놓친 경우, 다음날 오전 2TV를 통해 방영되는 재방송을 시청한다. 지난 29일 본방송이 방영되었음에도, 이날 재방송이 편성되지 않아 속상했다. 본방송 시청이 어려워 재방송으로 드라마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을 위해, 재방송이 결방되지 않게 해주기 바란다. <5월 31일 보고서>

○ **2TV 「FIFA U-20 월드컵 아르헨티나 2023」‘16강전 대한민국 : 에콰도르’**

- KBS 중계를 통해 우리나라와 에콰도르의 대회 16강전을 시청했다. 해설이 좋았고, 우리나라가 8강행에 성공해서 즐거웠다. 선수들이 남은 경기도 건강한 모습으로 잘 이끌어가길 바라며, ‘2023 FIFA U-20 월드컵’을 중계 및 편성해주어 감사하다. <6월 5일 보고서>

○ **2TV 「마이 리틀 히어로」**

- 이날은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기념하기 위한 현충일이다. 그런데 2TV에서 현충일과 관련된 방송이 아닌, 임영웅 씨 단독 예능 프로그램의 재방송이 방영됐다. 오전 10시면 묵념사이렌이 울리는 시간인데, 예능 프로그램 편성에 아쉬움이 남는다. <6월 7일 보고서>

○ **2TV 「제2회 청룡시리즈어워즈」**

- KBS 2TV에서 ‘청룡시리즈어워즈’를 편성했다. 현재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 해병대 일병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다. 그로 인해 각종 행사들도 다 취소되고 있는데, 연예인들의 시상식을 편성하고 가수들이 출연해 춤추고 노래하는 장면은 시청하기 매우 불편했다. <7월 21일 보고서>

○ **2TV 「2023 FIFA 여자 월드컵」‘H조 조별리그 대한민국 : 콜롬비아’**

- 2023 FIFA 여자월드컵 H조 경기를 KBS 중계를 통해 시청했다. 우리나라가 졌지만, 경기를 볼 수 있어 좋았다. 여자 월드컵은 남자 월드컵과 달리 화제성이 떨어져서인지 중계방송 편성이 별로 없어 아쉽다. 이날 경기를 편성해주어 감사하다. <7월 26일 보고서>

○ **2TV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K-POP 슈퍼라이브」**

-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는 세계적인 행사였다. 행사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잼버리 K-POP 슈퍼라이브 콘서트’가 개최되었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심이 가고 꼭 시청하고 싶었다. 다행히 KBS 2TV에서 생중계해준 덕분에 너무 재미있게 잘 시청했다. 감사하다. <8월 14일 보고서>

○ **2TV 「아주 사적인 여행」**

- 역사 지식 탐방기로, 내용이 무척 좋았다. 젊은 사람들은 6.25 참상을 잘 모를 텐데, 해당 방송에서 살아있는 역사 이야기를 찾아 현장을 방문하고 당시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어 감동적이었다. 시청 내내 마음이 뭉클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볼 수 있게 재방송을 편성해주기 바란다. <10월 12일 보고서>

○ **2TV 「홍김동전」**

- 해당 프로그램이 낮은 시청률 때문에 폐지된다는 기사를 접했다. 요즘 사람들은 TV보다도 OTT로 방송을 시청하는 경우가 많다. 「홍김동전」은 OTT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데 폐지된다니 안타깝다. 프로

그럼 폐지를 반대한다. <12월 26일 보고서>

○ 1R 「주진우 라이브」

- 해당 방송을 꾸준히 청취해왔는데, 이날 갑자기 다른 프로그램이 방송돼 놀랐다. 청취자들에게 충분한 사전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진행자가 하차한 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애청자로서 많이 아쉽고 속상하다. <11월 15일 보고서>

○ 1R 「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 KBS 1라디오를 애청하는 청취자이다. 해당 방송은 각계각층의 훌륭한 분들을 초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콘셉트인데, 30분은 너무 짧다. 패널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도 못한 채 방송이 끝나고 다음 날로 이어지니까 흐름이 끊기고 청취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대담 프로그램은 1시간 정도로 길게 편성해주었으면 한다. <12월 4일 보고서>

○ 2R 「김태훈의 프리웨이」

- 해당 방송의 청취자이다. 진행자가 보기 드물게 진행을 잘하고, 많은 정보를 전달해주어 유익한 방송이다. 청취율도 좋은데 이번 주를 끝으로 종료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폐지되지 않길 바란다. <12월 26일 보고서>

○ 1FM 「세상의 모든 음악」

- KBS 클래식FM을 좋아하고, 그중에서도 「세상의 모든 음악」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해당 방송을 즐기는 청취자들이 많은데, 재방송이 너무 늦게 편성되어 다 듣고 나면 새벽 3시가 된다. 단 한 시간만이라도 재방송 편성을 앞당겨주었으면 한다. <3월 23일 보고서>

○ 1FM 「국악의 향기」

- 우리음악과 잔잔한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새벽 시간대 방송이다. 아무래도 이른 시간에 편성되어있어 방송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고정적으로 재방송을 편성해주기 바란다. <5월 26일 보고서>

| 2. 제작 요청 |

○ 1TV 「생방송 심야토론」

- 밤 시간대 편성된 정통 토론 프로그램으로 토요일마다 즐겨 시청했다.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우리 사회 쟁점과 해법에 대한 영감을 얻을 수 있어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종영이 되어 안타깝다. 현재 비슷한 취지의 심야 토론 프로그램이 많지 않은데, 가까운 시일 안에 다시 제작해주었으면 한다. <1월 9일 보고서>

○ 1TV 「생방송 사람을 찾습니다」

- 1983년에 시작된 '이산가족 찾기'의 맥을 이었던 KBS의 대표 가족 찾기 프로그램이다. 저마다의 사연으로 헤어진 가족들, 그리고 뿌리를 찾아온 해외입양인 등이 해당 방송을 통해 가족을 찾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데 종영되어 안타깝다. 전국의 실종된 가족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이 다시 부활했으면 한다. <1월 10일 보고서>

○ 1TV 「사람과 사람들」

- 소득 수준의 향상과 고령화 등으로 개인의 가치관이 다양해졌고 새로운 방식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그런 개인들의 삶을 조명한 방송으로, 방영 당시 관심 있게 시청했었다. 이런 콘텐츠의 프로그램이 흔하지 않아 종영된 점이 아쉽다. 후속 방송을 제작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실용적인 정보와 트렌드를 제시해주기 바란다. <1월 16일 보고서>

○ 1TV 「안녕 우리말 2022」

- 우리 생활 곳곳에 숨어있는 잘못된 언어표현을 바로잡아 우리말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틀리는 생활언어에서부터 관습적으로 잘못 쓰고 있는 공공언어까지 두루 다뤄주어 매우 유익했다. 12부작으로 짧게 끝나 아쉽다. 「안녕 우리말 2023」도 제작해주기 바란다. <1월 20일 보고서>

○ 1TV 「야생여정」

- 자연 다큐멘터리의 종가라 불리는 KBS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자연환경과 야생 기록의 컬렉션으로, 매 회 감동을 받으며 시청했다. 한반도를 넘어 지구의 다양성과 아름다움을 담았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방송이었다. 아름답고 유익한 다큐멘터리가 종영되어 안타깝다. 후속 방송을 제작해 멸종위기의 동물 등을 다루며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바란다. <1월 26일 보고서>

○ 1TV 「소비자리포트」

- 소비자 제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믿을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최근 제보할 일이 생겨 해당 방송을 찾았는데, 이미 종영이 됐다는 사실을 알고 안타까웠다. 시청자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됐던 유익한 프로그램이 종영되어 아쉽다. 빠른 시일 내 후속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1월 27일 보고서>

○ 1TV 「천상의 컬렉션」

- 우리 문화재의 아름다움과 가치, 그에 얽힌 역사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내용이 무척 유익했고, 연예인 호스트들의 생생한 프레젠테이션도 재미있었다. 여러모로 의미 있는 프로그램인데 종영이 되어 안타깝다. 후속 방송을 제작해주면 감사할 것 같다. <1월 30일 보고서>

○ 1TV 「질문하는 기자들 Q」

-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으로, 기사에 대한 비평을 넘어 미디어가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고민해보는 점이 유익해 열심히 시청했다. 해당 프로그램의 종영 이후 한국 저널리즘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고발하는 방송이 없어 안타깝다. 후속 방송을 제작해, 공영방송으로서 언론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1월 31일 보고서>

○ 1TV 「추적 60분」

- 36년간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의 이슈를 추적해온 「추적 60분」이 종영 되어 안타깝다. 우리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들춰내고 각종 비리와 맞서 싸웠던 좋은 방송이 사라져 우려된다. 또한 시청자들이 믿고 제보할 수 있는 방송이 없는 점도 아쉽다. 2023년을 맞아 후속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2월 2일 보고서>

○ 1TV 「콘서트 7080」

- 재미있게 보던 프로그램이다.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고 있는데, 해당 방송을 다시 제작해주었으면 좋겠다. 배철수 씨가 진행하기 어렵다면, 다른 진행자를 섭외해서라도 후속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추억의 가수들을 TV에서 다시 보고 싶다. <3월 9일 보고서>

○ 1TV 「역사저널 그날」

- 해당 방송을 사랑하는 시청자이다. 이제까지는 우리 역사의 커다란 물줄기가 바뀐 결정적인 사건이 주로 다뤄졌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성장시킨 기업인 특집이 다뤄져도 유익할 것 같다. 특히 현대, 삼성, 롯데 창업주 일가를 다뤄주면 흥미진진할 것 같다. <3월 10일 보고서>

○ 1TV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 해당 방송에 몇 번의 제보를 했던 경험이 있는 시청자다. 다름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전국 대표번호 통화를 무료통화로 오인하기 쉬운데, 예를 들어 1588로 시작되는 번호는 발신자에게 통화요금이 발생한다. 해당 방송에서도 이에 대해 다룬 적이 있는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이런 문제를 제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사라져 안타깝다. <3월 14일 보고서>

○ 1TV 「그 사람이 보고싶다」

- 찾고 싶은 가족이 있는 시청자다. KBS에 「그 사람이 보고싶다」라는 가족 찾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현재 종영이 된 상태라 어디에서 어떻게 가족을 찾아야할지 모르겠다. 찾을 방법이 없어 답답한 시청자들을 위해 후속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3월 30일 보고서>

○ 1TV 「도전, 골든벨」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종영된 후 2년 넘게 방송 재개가 되지 않고 있어 아쉽다. 「도전, 골든벨」을 기다리는 시청자들이 많으니 후속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4월 5일 보고서>

○ 1TV 「노래가 좋아」

- 오랫동안 「노래가 좋아」를 시청해왔다. 일요일 오전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즐겁게 볼 수 있는 가족 노래 대결 프로그램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종영된다니 무척 서운하다. 해당 방송의 팬층이 두꺼운 것으로 알고 있다. 빠른 시일 내로 시즌2로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란다. <6월 5일 보고서>

○ 1TV 「이것이 인생이다」

- 역경을 헤치며 곳곳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연이 소개돼 많은 시청자들의 귀감이 되었다. 덕분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는데 종영이 되어 너무 아쉽다. 다른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후속 프로그램이 제작되기를 바란다. <6월 13일 보고서>

○ 1TV 「예썰의 전당」

- 해당 프로그램을 즐겁게 시청하고 있던 애청자이다. 1년에 걸쳐 시청자들의 인문학과 예술에 대한 견문을 넓혀준 프로그램인데 종영이 되어 아쉽다. 책으로만 접할 수 있던 이야기들을 박사들을 통해 들으니 생동감과 깊은 울림을 느낄 수 있었다. 꼭 시즌2로 다시 만날 수 있길 기대한다. <6월 21일 보고서>

○ 1TV 「UHD 역사스페셜」

- 역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다.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시청자들에게 역사에 대해 자세히 알려야하는데, 그런 역할을 해왔던 「역사스페셜」같은 유익한 프로그램이 종영되어 안타깝다. 다시 방송이 제작되었으면 좋겠다. <6월 28일 보고서>

○ 1TV 「KBS 바둑왕전」

- 일요일마다 「KBS 바둑왕전」을 시청했던 기억이 있다. 좋아하는 기사들의 모습과 수준 높은 대국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송이었는데 종영되어 안타깝다. 어르신들이 좋아했던 방송이니 후속 방송을 제작해주었으면 좋겠다. <6월 29일 보고서>

○ 1TV 「자연의 철학자들」

- 거동이 불편해서 외출이나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시청자이다. 그래서 자연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를 좋아하고, 그중에서도 「자연의 철학자들」을 매주 빠짐없이 시청해왔다. 해당 방송을 통해 힐링을 느꼈던 시청자들이 많은데 종영되어 안타깝다. 꼭 후속 방송이 제작되길 바란다. <7월 14일 보고서>

○ 1TV 「러브 인 아시아」

- 다문화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프로그램으로, 감명 깊게 시청했던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예전엔 재미있고 감동적인 프로그램들이 참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감동을 선사하는 프로그램들이 줄어든 것 같다. 「러브 인 아시아」의 후속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7월 19일 보고서>

○ 2TV 「TV, 책을 보다」

- KBS의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약 20년 정도를 함께한 27세 청년 시청자이다. 「TV, 책을 보다」라는 프로그램을 다시보기로 시청 중인데, 내용이 유익하고 인상적이라서 큰 감명을 받았다. 해당 프로그램이 다시 제작된다면 비록 시청률이 높지 않을 순 있다. 그러나 책의 의미와 가치를 되찾는 해당 프로그램의 후속 방송이 제작되길 간절히 바란다. <9월 26일 보고서>

○ 2TV 「역사추적」

- 역사 속 알려지지 않은 진실을 추적하고 알려주는 프로그램이었다. 기록이나 유물을 파헤쳐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을 새롭게 알려주는 점이 유익했다. 현재 「역사저널 그날」이라는 역사 프로그램이 있지만, 진행자와 출연자들의 대화 위주로 진행되어 해당 방송과는 콘셉트가 다르다. 해당 방송의 후속 프로그램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10월 19일 보고서>

○ 2TV 「미제사건 전담반 끝까지 간다」

- 해당 프로그램이 시즌2로 제작되었으면 한다. 그럼 과거 「사건반장」이나 「경찰청 사람들」같은 프로그램들처럼 범인 검거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용감한 형사들」처럼 시즌제로 제작되어도 좋을 것 같다. <11월 7일 보고서>

○ 2TV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 2」

- 실제 부부들의 사연을 재구성해서 드라마로 보여주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부부간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는데 폐지되어 안타깝다. 다만 드라마적인 요소가 많아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다소 아쉬웠다. 그 점을 보완해, 조금 더 현실감 느껴지는 후속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1월 2일 보고서>

○ 2TV 「주접이 풍년」

- 요즘은 스타들의 다양한 팬 문화층이 형성되어 있다. 해당 방송은 덕질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주접단'을 섭외해, 그들과 함께 덕질을 탐구하는 독특한 콘셉트의 토크쇼였다. 신선하고 흥미로워 굉장히 재미있게 시청했는데 23부작으로 짧게 막을 내려 아쉽다. 가까운 시일 내 시즌2로 돌아오길 바란다. <1월 6일 보고서>

○ 2TV 「씨름의 희열」

- 화려한 기술과 스피드를 앞세운 태백, 금강 급 씨름 선수들의 경량급 천하장사 대회 도전기를 다룬 예능 프로그램이다. 쉽게 보기 힘든 씨름의 기술을 보는 재미가 쏠쏠했다. 최근 씨름이 대중들의 눈에서 벗어나 소외되고 있는데, 후속 방송을 제작해 박진감 넘치는 재미를 선사하는 한편 씨름이라는 종목을 재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 <1월 10일 보고서>

○ 2TV 「VJ특공대」

- 시청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와 시의성 있는 소식을 전달해주어 무척이나 좋아했던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해당 프로그램이 종영 되어 아쉽다. 아직도「VJ특공대」를 기억하는 시청자들이 많으니 추후에 다시 제작해주기 바란다. <2월 1일 보고서>

○ 2TV 「세컨 하우스」

- 현재 우리나라에 빈집이 151만여 채라고 한다. 해당 방송은 연예인들이 시골에 방치된 빈집을 직접 리모델링해서 살아보는 콘셉트로, 빈집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면에서 공익적이고 유익했다. 뜻깊은 의미가 있는 방송인만큼 향후 시즌2, 시즌3으로 꾸준히 제작해주었으면 한다. <2월 2일 보고서>

○ 2TV 「청춘불패 2」

- 걸 그룹 멤버 8명이 대부도에서 펼치는 리얼 버라이어티쇼 프로그램으로, 방영 당시 재미있게 시청했다. 매주 주말에 농장을 가꾼다는 설정이었다. 최근 걸 그룹들의 세대교체도 많이 이뤄졌는데, 새롭고 신선한 멤버들을 섭외해서 '청춘불패 시즌3'을 제작하면 재미있을 것 같다. <2월 17일 보고서>

○ 2TV 「체험! 삶의 현장」

- 각계각층의 명사들과 스타들이 땀 흘려 일한 후 노동의 대가를 받고, 삶의 가치를 일깨워주었던 프로그램이다. 치열한 노동의 현장에서 사람 사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방영 당시 유익하게 시청했다. 최근 감동과 재미를 동시에 선사하는 예능 프로그램의 제작이 저조한 것 같아 아쉽다. 후속 프로그램을 제작해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전해주기 바란다. <2월 21일 보고서>

○ 2TV 「TV는 사랑을 싣고」

- 연예인들의 추억 속 인물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으로 매회 감동적으로 시청했다. 그들이 재회하는 모습을 보며 세월이 흐를수록 소중해지는 인연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다. 따뜻한 프로그램이 종영되어 아쉽다. 조만간 새로운 시즌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란다. <3월 8일 보고서>

○ 2TV 「스펀지」

- 환경문제와 가공식품 등 먹거리 관련하여 다양한 실험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해당 프로그램을 다시

제작해주기 바란다. <3월 9일 보고서>

○ 2TV 「2009 전설의 고향」

- 어린 시절에 「전설의 고향」을 무척 좋아했다. 특히 꼬리 아홉 개 달린 구미호 이야기를 재미있게 시청했는데, 최근에는 납량특집 제작이 저조해 아쉽다. 슬슬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는데, 올해 여름에는 KBS에서 그때의 감성을 다시 느낄 수 있도록 후속 방송을 제작해주면 좋겠다. <3월 13일 보고서>

○ 2TV 「디즈니 만화동산」

- 일요일 아침에 방영했던 프로그램으로, 보고 또 봐도 재미있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보여주었다. 본인 또래 시청자들의 기억 속에는 추억의 애니메이션으로 남아있다. 성우들의 더빙 또한 재미의 한 요소였다. 해당 프로그램을 다시 방영해주기 바란다. <3월 27일 보고서>

○ 2TV 「1 대 100」

- 「1 대 100」, 「스타 골든벨」등 퀴즈를 푸는 형식의 예능 프로그램 제작이 저조해 안타깝다. 타 방송사가 아닌 공영방송의 퀴즈 예능 프로그램을 신뢰하는 시청자로서, 비슷한 포맷의 후속 방송을 제작해주었으면 한다. <3월 31일 보고서>

○ 2TV 「해피투게더 4」

- 「해피투게더」, 「안녕하세요」등 KBS 2TV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들이 종영한 후 새로운 시즌으로 돌아오지 않아 아쉽다. 해당 프로그램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시청자들을 위해 다시 제작해주기 바란다. <4월 3일 보고서>

○ 2TV 「이별도 리콜이 되나요?」

- 월요일 저녁에 방송됐던 예능 프로그램으로 매회 재미있게 시청했다. 이번 주에 방송이 되지 않아 편성이 변경된 줄 알았는데, 종영되었다는 소식에 많이 아쉬웠다. 후속 방송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란다. <4월 12일 보고서>

○ 2TV 「속보이는 TV인사이드」

-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었는데 2018년에 갑자기 종영이 되어 안타까운 시청자이다. 해당 방송의 종영 후 비슷한 콘셉트의 프로그램이 없어 아쉽다. 후속 방송을 제작해주었으면 한다. <4월 26일 보고서>

○ 2R 「김혜영과 함께」

- 따뜻하고 정감 있는 진행자 김혜영 씨의 목소리가 좋아서 해당 방송을 즐겨 청취해왔다. 나쁜 오후 시간대에 흥겨운 음악과 즐거운 이야기를 들려주어 좋았는데, 지난 5월 종영되어 아쉽다. 추후에 김혜영 씨가 진행하는 후속 방송이 제작되길 바란다. <6월 16일 보고서>

○ 3R 「연속낭독」

- 시각장애인 청취자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스스로 책 읽기가 어려운 환자들에게 작품을 낭독해주어서 본인에게는 정말 감사한 프로그램 중 하나였다. 시각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방송인데 종영되어 아쉽다. 추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책 낭독 프로그램을 다시 제작해주기 바란다. <2월 15일 보고서>

| 3. 드라마 |

○ 1TV 일일연속극「내 눈에 콩깍지」

- 이영이(배누리 분)가 김해미(최윤라 분)의 계략으로 퇴사 위기에 처했다. 김해미가 이영이의 기획안을 타사에 넘겼고, 이로 인해 이영이가 표절 누명을 쓰게 된 것이다. 이전에도 김해미는 이영이에게 커피를 쏟는 등 지속적인 갑질과 악행을 저질러왔다. 현실과는 무관한 가상의 스토리라고 해도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등 자극적인 내용은 자제해주기 바란다. <1월 19일 보고서>

○ 1TV 일일연속극「금이야 옥이야」

- 금강산(서준영 분)과 옥미래(윤다영 분)를 응원하며 재미있게 시청 중이었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금잔디(김시은 분)의 친모가 갑자기 살아서 돌아왔고, 곧 금강산과 재회하는 전개가 이어질 것 같다. 뜬금 없는 전개와 지금까지 없던 인물의 갑작스러운 등장인 황당하고 공감이 되지 않는다. <8월 24일 보고서>
- 옥미래(윤다영 분)가 이선주(반소영 분)의 방해로 금강산(서준영 분)과 이별을 결심했다. 일일연속극은 가족들이 둘러앉아 함께 웃으며 시청해야하는데, 금강산의 뜻뜻미지근한 태도에 답답함이 치밀어 결국 채널을 돌렸다. 세상살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드라마만이라도 웃으며 시청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전개해주기 바란다. <9월 6일 보고서>
- 금강산(서준영 분)이 옥미래(윤다영 분)에게 이선주(반소영 분)와 재결합한다고 말했다. 죽은 줄 알았던 전처 이선주가 갑자기 등장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재결합한다고 하니 시청자 입장에서 난처할 정도다. 이선주의 뻔뻔한 행동도 너무 부도덕해서 화가 난다. 이전 막장 드라마들과 비슷한 전개를 보여주는데, 상식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전개해주기 바란다. <9월 14일 보고서>

○ 1TV 일일연속극「우당탕탕 패밀리」

- 최근에 등장인물들 간의 갈등의 수위가 높고, 전개도 너무 답답하게 진행되어 시청을 중단했다. 예를 들면 신하영(이효나 분)이 유은성(남상지 분)을 지나치게 괴롭히는 점이 보기 불편하다. 하루빨리 유은성과 형제자매간의 비밀이 밝혀지며 속 시원하게 전개되었으면 한다. <11월 30일 보고서>

○ 2TV 일일드라마「태풍의 신부」

- 복수를 위해 원수의 며느리가 된 한 여자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로 매회 빠짐없이 시청 중이다. 다만 강바다(오승아 분) 역할이 너무 악해 현실성이 떨어진다. 또한 강바다 역을 맡은 배우 오승아 씨가 타 드라마에 출연했을 때와 연기 스타일이 똑같아서 몰입을 저해한다. 강바다 역할의 비중을 줄이고, 조금 더 현실성 있는 전개를 보여주기 바란다. <1월 5일 보고서>
- 강백산(손창민 분)에 의해 지하실에 감금된 서윤희(지수원 분)의 병세가 악화되는 모습이 그려졌다. 박용자(김영옥 분)가 강백산에게 서윤희의 병이 악화되었음을 알렸지만, 강백산은 “일시적인 과호흡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공갈, 협박, 살인 등 등장인물들의 끝없는 악행으로 인해 공감하기 어렵고 시청하기 불편하다. <2월 1일 보고서>
- 종영까지 단 1회만을 남겨두고 있다. 그런데 이날 강백산(손창민 분)이 회장직에 회임되어서까지도 잘

못을 뉘우치지 않고 의원들을 만나 돈 박스를 건네는 모습이 그려져 답답했다. 최종회에서는 경찰에 체포된 강백산이 그동안의 악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그려졌으면 좋겠다. <3월 10일 보고서>

○ 2TV 월화드라마「두뇌공조」

- 자녀와 함께 해당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등장인물들이 '개망했다', '존멋', '존버' 등의 단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해 당황스러웠다. 특히 '존멋', '존버' 등은 비속어이자 은어이다. 공영방송에서 청소년들의 교육에 부적절한 비속어를 버젓이 사용하는 점이 보기 불편하다. <1월 5일 보고서>

○ 2TV 주말드라마「삼남매가 용감하게」

- 이상준(임주환 분)과 장지우(정우진 분)의 친자 관계 불일치 서류를 빼돌리는 장영식(민성욱)의 모습이 그려졌다.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친자 논란 설정이 식상하고 지루하게 느껴진다. 그뿐 아니라 아들을 납치하는 이장미(안지혜 분), 혼외자, 겁사돈 등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내용이 너무 많이 그려진다. 공감 가능한 드라마를 만들어주기 바란다. <1월 25일 보고서>

○ 2TV 일일드라마「비밀의 여자」

- 새로운 일일드라마 첫 회가 방송됐다. 이번에는 잔혹한 복수극이 아니길 바랐는데, 또다시 복수극이 그려져 식상했다. 본인은 딸을 키우는 시청자인데, 주애라(이채영 분)가 YJ그룹 후계자 남유진(한기웅 분)의 아내인 정겨울(신고은 분)의 임신을 막기 위해 피임약을 먹이는 장면은 너무 불편했다. 현실도 힘겨운데 드라마라도 따뜻한 내용을 그려주기 바란다. <3월 16일 보고서>

-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2TV 일일드라마를 시청한다. 그런데 이번 일일드라마는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폭력적이다. 첫 회부터 친구에게 피임약을 먹이는 장면이 방영돼 보기 불편했는데, 이후 강제로 잠자리를 갖는 장면, 스스로 자신의 발에 뜨거운 물을 붓는 장면 등이 계속해서 그려지고 있다. 저녁시간대 드라마임을 감안해 수위를 조절해주기 바란다. <3월 20일 보고서>

- 주애라(이채영 분)와 남유진(한기웅 분)이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남유진의 장인 최재성(정현태 분)에게 뒤집어씌웠다. 최근 바깥 활동이 어려워 드라마 시청하는 낙으로 지내고 있는데, 끔찍한 내용이 연속으로 그려져 보기 불편하다. 국민 정서를 고려해 지나치게 잔인한 내용을 조금 수정해주었으면 한다. <3월 31일 보고서>

- 주애라(이채영 분)가 정겨울(신고은 분)의 아버지에게 살인 누명을 씌운 것도 모자라, 정겨울의 아기를 납치했다. 아무리 악역이라지만 아기를 유괴한다는 설정은 너무 지나치고, 힘없는 정겨울의 가족을 극한으로 내모는 것도 보기 불편하다. 어느 정도는 웃음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드라마를 제작해주기 바란다. <4월 5일 보고서>

- 주애라(이채영 분)가 파주에 있는 공장으로 답사를 간 오세린(최윤영 분)을 구덩이에 묻으려고 했다. 이후 오세린은 서태양(이선호 분)에 의해 구조되었다. 가족들이 함께 시청하는 저녁 시간대 드라마에서 사람을 산 채로 땅에 묻으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너무 끔찍했다. 지나치게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장면은 자제해주기 바란다. <5월 8일 보고서>

- 방송 말미에 서하늘(남소이, 김가현 분)이 사라지는 장면이 그려졌다. 주애라(이채영 분)가 서하늘의 존

재를 알고 납치한 것인데, 갇난아기 때 납치해서 다른 가정에 입양된 서하늘을 다시 납치한다는 설정이 너무 잔인하다. 두 번의 살인과 두 번의 납치, 주애라의 악행이 너무 지나쳐 도저히 공감할 수 없다 <5월 31일 보고서>

- 서태양(이선호 분)이 천신만고 끝에 주애라(이채영 분)의 범행 자백이 담긴 USB를 들고 경찰서로 향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이덕배(배도환 분)가 서태양의 대화를 우연히 듣고 USB 바꿔치기를 시도했다. 이렇듯 모든 일이 우연히 발생하며, 전개 또한 지지부진해서 답답하다. 속도감 있게 전개되었으면 좋겠다. <6월 12일 보고서>

- 극의 내용 중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극 초반에 오세린(최윤영 분)과 정겨울(신고은 분)의 영혼이 바뀌었는데, 영혼이 바뀐 채로 정겨울의 몸이 사망했다. 즉 정겨울의 영혼이 오세린의 몸으로 살고 있는데, 이제 다시 원래의 몸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설정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지나치게 잔인하고, 전개도 느리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작품이다. <8월 3일 보고서>

○ 2TV 주말드라마「진짜가 나타났다」

- 미혼모와 비혼남의 계약 로맨스를 다뤘는데, 시청 내내 우려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비혼주의 설정은 보기 불편했다. 또 주인공 공태경(안재현 분)이 할머니에게 "은금실(강부자 분) 씨"라고 부르는 장면도 예의에 어긋나 보기 안 좋았다. <3월 28일 보고서>

- 가족들과 함께 주말드라마를 시청한다. 이날 여주인공 오연두(백진희 분)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 공태경(안재현 분)과 계약 동거를 시작했다. 손주들과 시청하던 중 주인공들이 태연자약하게 거짓말하는 모습에 당황스럽고 불편했다. 주말 저녁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는 드라마를 만들어주기 바란다. <4월 25일 보고서>

- 드라마를 잘 시청하고 있었는데, 장세진(차주영 분)이 오연두(백진희 분)와 공태경(안재현 분) 사이에 끼어들며 전개가 무서운 쪽으로 흘러가 당황스럽다. 장세진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서 재미가 떨어지고, 은금실(강부자 분)이 주변 사람들을 너무 괴롭히는 점도 공감이 안 된다. 악역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전개는 보기 불편하다. <5월 16일 보고서>

- 90세 고령의 시청자이다. 공찬식(선우재덕 분)이 오연두(백진희 분)가 가진 아이가 공태경(안재현 분)의 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럼에도 공태경과 오연두가 헤어지지 않고 자신들을 받아 달라고 하는 내용이 공감이 되지 않았다. 주인공들이 가족 모두를 속이는 부도덕함이 보기 불편하다. <7월 11일 보고서>

- 이제까지 해당 드라마를 열심히 시청해왔는데 터무니없는 전개에 황당하다. 오연두(백진희 분)와 공태경(안재현 분)이 혼인신고를 한 마당에, 하늘이의 친부 김준하(정의제 분)가 은금실(강부자 분)의 핏줄이었다는 설정이 너무 지나치고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오랜 시청자로서 실망스럽다. <8월 21일 보고서>

- 공태경(안재현 분)이 오연두(백진희 분)와 하늘이를 지키기 위해 공찬식(선우재덕 분)에게 파양해달라고

말했다. 파양이라는 말이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닌데, 아무리 드라마이지만 너무 쉽게 파양 운운하는 모습이 보기 안 좋았다. 극 막바지에 김준하(정의제 분)와 은금실(강부자 분)의 관계가 꼬이는 설정이 너무 답답하고 진부하다. <8월 29일 보고서>

○ 2TV 월화드라마「어쩌다 마주친 그대」

- 해당 드라마가 전개될수록 유튜브 자뽀TV의 '우정리노트1', '우정리노트2'와 유사한 설정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우정리'라는 지명과 과거로 돌아가는 시간여행 콘셉트, 캐릭터의 성격과 흔치 않은 대사까지 유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6월 8일 보고서>

○ 2TV 일일드라마「우아한 제국」

- KBS 2TV의 새로운 일일드라마가 시작됐는데, 두 남녀의 처절한 복수의 여정을 다뤘다고 한다. 매번 소재가 복수이고, 일일드라마의 출연자들도 겹칠 때가 많다. 몇 해 전 2TV에서 방송됐던 「우아한 모녀」가 떠오르며 비슷하게 느껴진다. 해당 드라마는 조금 다르게 전개되길 바란다. <8월 9일 보고서>
- 장기윤(김진우 분)이 우아한 제국의 회장 자리를 아내 신주경(한지완 분)에게 빼앗기자, 재클린 테일러(손성윤 분)와 바람을 피우는 장면이 그려졌다. 우선 불륜 소재가 또 다뤄지는 점이 보기 불편했고, 장기윤과 재클린의 노출 장면도 지나치게 선정적이었다. 가족들이 함께 시청하는 시간인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불륜 장면을 묘사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8월 25일 보고서>
- 해당 드라마를 꾸준히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내용이 지나치게 흥미 위주로 야망과 복수, 살인, 누명 씌우기로 일관되니 보기 불편하다. 하루걸러 흉악 범죄가 일어나면서 세상이 살기 어려워지고 있고, 그에 따른 모방범죄도 많이 발생한다. 드라마가 시청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신중히 제작해주시길 바란다. <9월 4일 보고서>

○ 2TV 주말드라마「효심이네 각자도생」

- KBS 2TV 드라마를 애청한다. 그런데 이번 주말드라마는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아 시청 내내 답답함을 느낀다. 주인공 이효심(유이 분)이 가족을 위해 본인의 삶을 희생하는 모습이 구시대적이며 공감되지 않는다. 시청자들의 수준과 눈높이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 조금 더 현실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드라마를 만들어주시길 바란다. <11월 14일 보고서>
- 이루비(이가연 분)가 연애를 못하게 하는 부모에게 대드는 장면이 그려졌다. 이후 이루비는 연애를 못하게 하면 시험 칠 때 답안지를 한 줄씩 밀려 쓰겠다고 부모를 협박했고, 그 말에 양희주(임지은 분)는 울면서 미안하다고 빌었다. 자식이 부모에게 대들고, 부모가 울면서 비는 장면은 매우 보기 불편하다. 청소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 <12월 12일 보고서>
- 극중 고등학생인 이루비(이가연 분)가 식사 도중 부모에게 대드는 장면이 방송됐는데, 저녁 시간대 가족 드라마에서 보기에는 너무 불편한 장면이었다. 어린 시청자들도 방송을 보고 있을 텐데, 등장인물의 이런 행동에 영향을 받을까 우려된다. 방송의 파급력을 고려해서 극본을 써주길 바란다. <12월 19일 보고서>

| 4. 출연자·진행자 |

○ 1TV 「6시 내고향」

- 지난해 9월경 출산휴가에 들어갔던 가애란 아나운서가 이날 방송으로 복귀했다. 늘 웃는 얼굴로 친근하고 따뜻한 진행을 선보였던 가애란 아나운서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는데, 다시 돌아온 모습을 보니 반가웠다. 앞으로 시청자들과 교감하고 소통하며 각 지방의 다양한 문화와 소식을 전달해주기 바란다. <1월 4일 보고서>

○ 1TV 「신년 기획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 거동이 불편해 여행이 자유롭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19년째 리무진 여행을 선물하고 있는 이윤규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난생 처음 타본 리무진에서 한껏 들뜬 모습의 어르신들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리무진으로 어르신들에게 특별한 하루를 선물하는 이윤규 씨의 사연이 너무나 감동적이다. 각박한 요즘 위안이 되는 사연을 소개해주어 감사하다. <1월 9일 보고서>

○ 1TV 「신년 기획 일요진단 라이브 2편」

- 이날은 노동문제를 다뤘다. 근로시간·임금체계·노사관계 등과 관련해 개혁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떻게 바뀌어나가야 하는지 노사 양측과 전문가들이 토론했다. 이런 문제라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를 대변할 출연자도 필요한데, 민주노총을 옹호하는 패널들이 주를 이뤄 답답했다. 시청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송이 되기 위해선,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패널이 필요해 보인다. <1월 9일 보고서>

○ 1TV 「이슈 픽 쌤과 함께」 「2023 지정학의 시대 2부작 1편」

- 김준형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가 출연해 '해양세력 vs 대륙세력 한반도는 어디로?'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강연 중 일각에선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럴 경우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국민들 중 한국의 핵무장을 주장하는 사람도 많다. 패널 중에서도 반대 의견을 지닌 사람을 섭외해 찬반 의견을 모두 들어볼 수 있도록 해주었더라면 더 유익했을 것 같다. <1월 10일 보고서>

○ 1TV 「일꾼의 탄생」

- 집 시공 관련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인테리어, 리모델링 등 집을 수리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든다. 그런데 해당 방송을 시청하다보면 민원 해결에 금액의 한도가 없는 점이 아쉽다. 수신료로 제작되는 방송에서 특정인에게 무한정으로 집을 고쳐주는 점이 불편하게 느껴진다. 또한 형편이 어렵지 않아 보이는 출연자도 도움을 받는 점을 수정해주기 바란다. <1월 13일 보고서>

○ 1TV 「역사저널 그날」 「산 자들의 정치, 조선왕릉 ③ 명성황후의 시신을 수습하라」

- 이날은 조선의 국모인 명성황후 죽음 이후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과, 대한 제국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는 명성황후 시해사건을 다루는 진행자와 출연자들의 태도가 지나치게 밝고 명랑해 시청 내내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교양 프로그램이고 비극적인 역사를 다루는 만큼 진지한 태도로 임해주었으면 한다. <1월 17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9」'이재명 첫 인터뷰 "'변호사비 의혹' 낫도깨비...기소하면 미친 것"

-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스튜디오에 출연했고, 앵커가 검찰 출석과 관련해 궁금한 점을 질문했다. 이재명 대표는 "대체적으로 검찰 수사가 지나치다, 라고 생각들을 한다"며 본인과 주변의 생각을 전했다. 현재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를 섭외해 변명할 기회를 주는 것 같아 시청 내내 불편한 생각이 들었다. <1월 20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9」

- KBS의 메인 뉴스인 9시 뉴스를 신뢰하는 시청자이다. 특히 이소정 앵커의 차분하면서도 명확한 진행을 칭찬하고 싶다. 덕분에 늘 편안한 마음으로 뉴스를 시청하며 하루를 마무리 수 있다. 계속해서 좋은 진행으로 언론인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기 바란다. <2월 3일 보고서>

○ 1TV 「열린음악회」

- 최근 난방비 폭탄에 전국이 들끓고 있다. 그런데 이날 방송을 시청하다 보니 진행자 이현주 아나운서와 출연자 VIVIZ(비비지)가 여름철에 어울릴법한 의상을 착용해 보기 안 좋았다. 가스요금을 감당할 수 없어 연탄을 때는 취약층이 늘고 있다고 한다. 공영방송 출연자들은 현재의 날씨와 기온에 어울리는 옷차림을 갖춰주었으면 한다. <2월 7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 국내외 주요 소식을 알기 위해 오전에 방송되는 「KBS 뉴스」를 챙겨본다. 이날 이슬기 아나운서가 한쪽으로 길게 늘어뜨린 생머리를 하고 진행을 맡았는데, 깔끔하고 단정한 느낌이 부족해 아쉬웠다. 보도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청자들은 진행자의 단정한 모습에서도 신뢰감을 얻는다. 조금 더 깔끔한 헤어스타일을 해주기 바란다. <2월 8일 보고서>

○ 1TV 「전국노래자랑」

- 시청자가 참여할 수 있는 음악 경연 프로그램으로, 오랜 기간 매주 일요일마다 시청해왔다. 이날은 '전남 고흥군' 편이 방송됐고 각양각색의 출연자들이 눈길을 끌었다. 그런데 진행자 김신영 씨가 프로그램의 재미를 최대한으로 살리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웠다. 송해 선생님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연륜 있는 진행자로 교체해주기 바란다. <2월 14일 보고서>

○ 1TV 「사사건건」'여의도 사사건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이날 김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출연해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데 김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민주당이 거머리에 물린 상황' 등 노골적인 표현을 사용해 듣기 불편했다. 또한 자주 언성을 높이는 점이 상대와 시청자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 같아 보기 안 좋았다. <2월 20일 보고서>

○ 1TV 「가요무대」'역사는 흐른다'

- 이날 방송은 '역사는 흐른다'라는 주제로 과거 역사적 인물이나 시대적 배경을 묘사한 노래를 들려주었다. 평소와 다른 콘셉트가 흥미로웠고, 무엇보다 이날 조명섭 씨와 김연자 씨 등 출연자 구성이 좋아 재미있게 시청했다. 특히 김연자 씨가 두곡이나 불러 즐거웠다. 가끔 신인 위주로 섭외될 때가 있는데, 이날처럼 인지도 있는 가수 위주로 섭외해주기 바란다. <2월 22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9」[뉴스를 만나다] 건폭? 회계장부? 강대강 해법 없나'

-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뉴스를 만나다'에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출연해 앵커와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데 말미에 앵커가 김문수 위원장에게 대통령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최근에는 언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를 물었다. 그런데 묻는 과정에서 패널에 대한 배려가 느껴지지 않았고, 마치 취조하는 것 같아 보기 좋지 않았다. <2월 28일 보고서>

○ 1TV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의 현장과 다양한 이슈들을 시청자에게 깊이 있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 윤수영 아나운서가 꽤 오랜 기간 진행을 맡고 있는데, 프로그램 콘셉트에 잘 맞는 예리한 진행을 칭찬하고 싶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똑 부러지는 진행으로 시청자들이 알고 싶고, 알아야 할 세계의 소식들을 전해주기 바란다. <3월 6일 보고서>

○ 1TV 「일요진단 라이브」'커지는 사법 리스크 논란 이재명 리더십 시험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시작됐다. 이날 전문가 패널들과 해당 사안 및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해 집중 분석했다. 그런데 여당 쪽 패널이 두 명 출연했고, 야당 쪽 패널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마저 당내 비주류로 분류되며 반명(反明)으로 나뉘는 인물이다. 패널 모두가 이재명 대표에 비판적인 입장이라 출연자 섭외가 공정하지 않았다. <3월 6일 보고서>

○ 1TV 「이슈 픽 쌤과 함께」'아세안의 재발견 인도차이나의 별, 베트남'

- 곽성일 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가 쌤으로 출연해 베트남을 주제로 강연했다. 베트남의 저력을 새롭게 발견한 점은 유익했지만, 강연 내내 곽성일 박사가 경제적 잠재력을 비롯한 베트남의 모든 부분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충분한 논리적 근거를 들며 설명하는 것이 아닌, 개인적인 평가가 많이 반영되어 강연이 과장되게 느껴졌다. <3월 7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9」'뉴스를 만나다'

- '뉴스를 만나다'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출연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는 '성상납 의혹'으로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상황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내부총질과 분열을 일으켰던 인물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은 인물을 섭외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3월 14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12」'최국화의 생활뉴스'

- 이날 장애인 앵커 최국화 씨가 '생활뉴스' 코너 말미에 하차 소식을 전하며 울먹였다. 그 모습에 본인도 마음이 아팠다. 그동안 좋은 진행 보여줬는데 더 이상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서운하다. 덕분에 고맙고, 추후 다른 프로그램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란다. <3월 16일 보고서>

○ 1TV 「사사건건」'한일 정상회담 후폭풍..국민혜택?'

- 일제강점기를 겪은 87세 시청자이다. 이날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일본의 사과에 대해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사과를 하긴 했다."는 발언을 했다. 식민지를 겪은 사람으로서 김정재 의원의 발언이 굉장히 듣기 불편했다. 많은 시청자들이 일본의 제대로 된 사과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출연자 섭외를 더욱 신중하게 해주었으면 한다. <3월 23일 보고서>

○ 1TV 「사사건건」'이 대표 기소 내홍...민주, 돌파구?'

- 이날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전원책 변호사가 출연해 해당 사건으로 이야기 나눴는데, 전원책 변호사는 정치성향이 두드러진 인물로 편파적인 발언을 지속해 보기 불편했다. 또한 '개딸' 관련 언급 중 나이 많은 사람에게 '개아주머니'라고 표현한 것도 듣기 불편했다. 보다 공정한 패널을 섭외해 주기 바란다. <3월 24일 보고서>

○ 1TV 「사사건건」

- 범기영 앵커의 진행을 좋아해서 해당 방송을 챙겨본다. 이날 범기영 앵커가 진행을 맡지 않아, 혹시 하차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됐다. 늘 조리 있는 언변,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보여주어 감사하고, 속히 휴가를 마치고 돌아와 다시 진행을 맡아주기 바란다. <4월 3일 보고서>

○ 1TV 「동행」'골목 끝 집 세나네'

-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해당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이날 아빠, 엄마, 딸로 구성된 한 가족이 출연했는데, 집도 있고 사정이 딱히 어려워 보이지 않았다. 부부가 각각 50세, 35세였는데 열심히 일하면 충분히 일어설 수 있는 조건이다. 이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이웃에게 방송 출연의 기회가 주어졌으면 한다. <4월 4일 보고서>

○ 1TV 「아침마당」'명불허전'

- '명불허전'에 KBS 아나운서들이 출연했다. 모두들 넘치는 끼와 출중한 외모, 재미있는 언변을 갖추고 있어 한 시간동안 잘 시청했다. 이날 즐거운 시간을 선사해준 출연진과 제작진에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자주 「아침마당」에 출연해서 재능을 보여주기 바란다. <4월 4일 보고서>

○ 1TV 「이웃집 찰스」

- 한국 사회에 정착하려는 이방인들의 적응 스토리를 담은 방송으로, 한국 땅에서 취업·결혼·육아 등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민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비혼 출산 불법 논란을 일으켰던 사유리 씨가 출연하는 것은 방송 취지와 어울리지 않는다.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등 일본과의 겹끄러운 관계로 인해 사유리 씨의 출연을 반기지 않는 시청자들도 많다. <4월 13일 보고서>

○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살짝만 바뀌도 운동 효과 2배! 맞춤 실내 운동법'

- 부작용 없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운동을 다뤘다. 그런데 이날 출연한 장미송이 트레이너가 굉장히 타이트한 옷차림으로 출연해 남편과 함께 시청하던 중 민망함을 느꼈다. 평범한 차림으로도 얼마든지 운동을 가르쳐줄 수 있는데, 굳이 시청자들이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과한 옷차림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4월 14일 보고서>

○ 1TV 「인간극장」'천생연분 육십의 신혼일기'

- 나이 육십에 결혼 소식을 전한 배우 최석구 씨의 신혼을 소개했다. 시청자들은 보통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기대하고 「인간극장」을 시청한다. 그런데 다양한 방송에서 이미 많이 본 연예인이 출연해 안락한 일상을 사는 모습을 굳이 보여줄 필요가 있을까 싶다. <4월 19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12」'허우령의 생활뉴스'

- 대전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시청자이다. 12시 뉴스에 시각장애인 앵커가 진행하는 코너가 있다는 소식

을 접했다. 본인이 시각장애가 있다 보니 관심이 간다. 앞으로 열심히 챙겨보겠다. <4월 21일 보고서>

○ 1TV 「사사건건」'윤정부 1년 "부정 평가 60%"...의미?'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김성희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이 출연해 윤 대통령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야기를 나눴다. 장성철 소장의 경우는 여당속의 야당처럼 보수 측 인사가 아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송이 되려면 양측을 각각 대변할 수 있는 출연자를 섭외해야하는데, 이날은 출연자 섭외가 공정하게 이뤄진 것 같지 않아 아쉽다. <5월 8일 보고서>

○ 1TV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 어르신들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 시청자들이 그 속에 녹아있는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토크쇼이다. 그런데 동일한 인물이 반복적으로 출연하다보니 들려줄 이야기가 한정적이라 아쉽고, 지루한 면도 있다. 조금 더 다양한 출연자들을 섭외해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기 바란다. <5월 22일 보고서>

○ 1TV 「더 라이브」'G7 마치고 귀국, 尹 대통령의 영업성과는?'

-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히로시마 순방에 대해 '빠앙(0점)'으로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리더로 많은 일정을 소화하고 돌아온 대통령에게 0점이라는 평가를 한 것은 지나치다. 이후 진행자 최옥씨가 장난스럽게 웃음을 터트린 점도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었다. <5월 24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7」'윤 대통령, 프랑스서 부산엑스포 유치전..베트남 국민 방문도'

- 아나운서가 '부산 엑스포'를 '북한 엑스포'로 오독하는 일이 발생했다. 정부에서 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할 아나운서가 이러한 실수를 한 점이 굉장히 실망스럽다. <6월 21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12」'[친절한 뉴스K] '발암 가능 물질'이라고?!...'제로 설탕' 아스파탐 뒤흔들'

- 똑똑한 감미료로 각광받던 아스파탐이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될 거란 소식을 전했다. 그런데 해당 소식을 전한 오승목 기자가 차분하게 설명을 잘 해주어 칭찬하고 싶다. 그뿐 아니라 기자가 해당 사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시청자들에게 전달한다는 게 느껴졌다. 여러모로 유익한 보도였다. <7월 6일 보고서>

○ 1TV 「사사건건」'실업급여 개선 논란...쟁점?'

- 김준일 시사평론가가 출연해 실업급여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사실 실업급여를 받으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층이 많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에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인데, 김준일 시사평론가가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보기 불편했다. 최저임금은 26일 기준이고 실업급여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실업급여보다 많다는 발언도 납득하기 어렵다. <7월 20일 보고서>

○ 2TV 「불후의 명곡」

- 오는 설 연휴에 진행되는 특집방송에 장윤정 씨가 전설로 출연하고, 장윤정 씨의 팬으로 알려진 김희재 씨가 스페셜 MC를 맡을 예정이라는 기사를 접했다. 김희재 씨는 군 복무 도중 방송 활동 및 매니지먼트 계약 등으로 군 복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밖에도 콘서트 논란과 반려견 파양 논란 등도 있다. 김희재 씨의 MC 섭외를 숙고해주기 바란다. <1월 9일 보고서>

○ 2TV 「이별도 리콜이 되나요?」

- 이별이 후회되는 이들을 위해 재회 자리를 마련해주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진솔하면서도 현실적인 사랑을 다루고 있어 재미있게 시청 중이다. 특히 핑클 시절부터 좋아했던 성유리 씨의 진행이 돋보인다. 사연 하나하나에 진심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칭찬하고 싶다. 앞으로도 성유리 씨가 해당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응원하며 지켜보겠다. <1월 11일 보고서>

○ 2TV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 장례식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공유하는 모습이 방송됐다. 안문숙 씨가 언젠가 맞이할 삶의 끝을 대비해 '가상 장례식'을 치러보라며 제안했는데, 그 의견에 공감이었다. 이번에 새로 합류한 안문숙 씨와 안소영 씨가 이전 출연자들에 비해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그 어느 때보다 멤버들의 조합이 좋아서, 이 멤버 그대로 오랫동안 방송되었으면 한다. <1월 12일 보고서>

○ 2TV 「배틀트립 2」 '한겨울의 썸머! 버킷리스트 격파 여행'

- 자녀와 함께 해당 방송을 시청하는 학부모 시청자이다. 이날 걸 그룹 마마무의 솔라 씨와 문별 씨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와 아부다비를 여행하는 모습이 방송됐는데, 문별 씨가 토마호크 스테이크를 먹던 중 "JMT"라고 발언했다. 'JMT'는 매우 맛있음을 뜻하는 비속어 '존맛탱'을 영어 약자로 표현한 신조어다. 출연자들은 공영방송의 파급력을 고려해 비속어 사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1월 18일 보고서>

○ 2TV 「해 볼만한 아침 M&W」

- 생활 정보부터 고품격 지식 정보까지 전달해주어 방송을 시청하며 평일 오전을 알차게 보내고 있다. 박재민 씨의 유쾌한 진행 덕분에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박재민 씨가 이날부터 31일까지 자리를 비워, 김진웅 아나운서가 대체 진행을 맡게 되었다. 매일 보던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 서운한 마음이 든다. 속히 복귀해서 다시 진행을 맡아주었으면 한다. <1월 27일 보고서>

○ 2TV 「옥탑방의 문제아들」

- 이날 홍성우 비뇨의학과 전문의와 탈모 전문 한상보 의사가 출연했다. 모든 남자들의 관심사인 비뇨의학과 탈모에 대한 속설과 진실을 낱알이 파헤쳐주어 흥미진진하게 시청했다. 특히 탈모 방지 꿀팁이나 모발 이식에 대한 핵심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유익했다. 방송에 출연해 귀한 정보를 제공해주어 감사하다. <2월 3일 보고서>

○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 해당 방송에서 MC를 맡고 있는 김희철 씨가 라이브 방송 중 내뱉은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상황이다. 김희철 씨는 지난 9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일본 불매 운동에 대해 반감을 드러내며 수위 높은 욕설을 했다. 현재 그의 발언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시청자들이 많으니 하차를 고려해주기 바란다. <2월 13일 보고서>

○ 2TV 「신상 출시 편스토랑」

- 지난 방송에 이어 박수홍 씨가 20여 년 간 인연을 맺고 후원해온 보육원을 찾는 모습이 그려졌다. 박수홍 씨가 꼭두새벽부터 준비한 50인분의 음식을 가지고 보육원을 찾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다. 보육원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것 같다. 방송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박수홍 씨 부부를 칭찬하고 싶다. <2월 20일 보고서>

○ 2TV 「불후의 명곡」'작사가 故 박건호 편'

- 이날은 '작사가 故 박건호' 특집으로 꾸며져 총 10팀이 박건호 작사가의 음악으로 무대를 꾸몄다. 그런데 지난 2020년 석사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지며 활동을 중단한 바 있는 가수 홍진영 씨가 출연해 보기 불편했다. 논문 표절도 잘못이지만, 더욱 문제가 된 것은 홍진영 씨의 대응 태도였다. 홍진영 씨의 방송 복귀가 달갑지 않은 시청자들이 많으니 섭외하지 않길 바란다. <2월 20일 보고서>

○ 2TV 「2023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 이날 김구라 씨가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 경기에 앞서 프리뷰쇼 진행을 맡았다. 예능 프로그램도 아닌 'WBC'의 진행을 야구 전문가가 아닌 김구라 씨가 맡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야구팬들의 눈높이에 맞는 진행자를 섭외해주기 바란다. <3월 13일 보고서>

○ 2TV 「과학수사대 스모킹 건」

- 75세 시청자로 우연히 해당 방송의 첫 회를 시청하게 되었다. 본인이 나이가 많고 억울한 일을 당해 답답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날 출연자들의 말에 힘이 있어 직접 상담을 받아보고 싶을 정도로 신뢰가 갔다. <3월 31일 보고서>

○ 2TV 「개는 훌륭하다」

- 강형욱 훈련사의 거칠고 강압적인 훈련방식이 보기 불편할 때가 많다. 해당 방송에 출연하는 개들이 대부분 공격성이 강한 문제견이긴 하나, 보호자가 보는 앞에서 목줄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동이 좋아 보이진 않는다. 같은 훈련을 시키더라도 부드러운 교육방식을 택하는 훈련사도 많다. 지나친 훈육은 자제해 주기 바란다. <4월 7일 보고서>

○ 2TV 「살림하는 남자들」

- 결혼생활 10년째인 가수 현진영 씨 부부가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이 방송됐다. 시험관 시술을 16번이나 했음에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말에 본인의 지나온 세월이 떠올랐다. 본인도 일찍 결혼했지만 난임으로 힘든 시간을 겪었기에 부부의 사연에 공감이 되고 가슴 아팠다. 좋은 소식 있기를 응원하겠다. <4월 11일 보고서>

○ 2TV 「해 볼만한 아침 M&W」'찬밥신세 돼버린 쌀'

- KBS를 너무 좋아하는 시청자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고 있어, 이날 박정호 명지대 교수가 출연해 쌀을 둘러싼 논란의 맥을 짚어주었다. 그런데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보지 않은 듯 이론적인 이야기만 해서 답답했다. 정확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선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섭외해 그 사람의 경험을 조명해야 한다. <4월 17일 보고서>

○ 2TV 「더 시즌즈- 박재범의 드라이브」

- 첫 회부터 시청해왔다. 뮤직 토크쇼인데, 진행자 박재범 씨의 자유분방한 진행스타일이 해당 방송과 잘 어울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해당 방송이 시즌제로 진행되다보니, 추후 박재범 씨의 뒤를 이어 다른 진행자가 진행을 맡게 된다는 기사를 접했다. 그동안 박재범 씨가 좋은 모습을 보였던 만큼, 하차하더라도 게스트로 자주 출연해주었으면 한다. <4월 18일 보고서>

○ 2TV 「더 시즌즈- 최정훈의 밤의 공원」

- 밴드 '잔나비'의 최정훈 씨가 박재범 씨의 뒤를 이어 「더 시즌즈」진행을 맡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평소

‘잔나비’의 팬이었던 터라 반갑고 즐거운 소식이었다. 노래도 잘하고, TV에 많이 출연하지 않아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매력을 줄 것 같다. 진행자 섭외를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다. 방송 기대하겠다. <5월 12일 보고서>

○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성지인’

- 결혼정보회사 대표 성지인 씨가 출연한 것을 봤다. 초반부터 직원들에게 외모 지적을 심하게 해서 보기 불편했다. 이후 남성의 경우 키가 167cm 이하거나 탈모가 심하면 고객으로 가입할 수 없다는 등 까다로운 외모 조건을 내세웠다. 본인은 회사 홍보 차 출연했는지는 몰라도,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자체가 보기 안 좋았다. <7월 4일 보고서>

○ 2TV 「신상출시 편스토랑」

-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입맛이 없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남선생이라고 불리는 배우 류수영 씨가 해당 방송에서 소개해주는 조리법을 따라하며 입맛을 되찾았다. 이날 소개한 기본초장, 그리고 얼마 전 소개했던 바삭 불고기 등을 정말 맛있게 먹었다. 매번 시청자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조리법을 알려주어 감사하다. <9월 4일 보고서>

○ 2TV 「1박 2일」

- 이날 게임의 우승을 차지한 문세윤 씨가 왕으로 승격했다. 그런데 왕으로 승격한 뒤 보여준 행동들이 소위 말하는 학교폭력과 무엇이 다를까 싶었다. 딴디의 머리를 때리거나, 발로 어깨를 두드리는 등 아이와 함께 시청하기 불편했다. 아이들이 봤을 때 권력을 쥔 사람은 무슨 행동이든 해도 된다고 여길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주의해서 제작해주기 바란다. <9월 12일 보고서>

○ 2TV 「2TV 생생정보」 ‘우와한 식당’

- 음식을 좋아해서 해당 프로그램을 자주 본다. 그런데 제작진에게 촬영 전 주방을 점검해보라고 제언하고 싶다. 가령 이날 소개된 동태전골 식당도 주방을 보여주는데 청결하지 않았다. 타 방송사라면 제언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청결하지 않은 주방에선 깨끗한 음식이 나올 수 없다. KBS는 공영방송이므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써주기 바란다. <11월 10일 보고서>

○ 2TV 「1박 2일」

- KBS의 여러 프로그램 중 「1박 2일」을 가장 좋아한다. 특히 김종민 씨를 좋아하는데, 방송인처럼 보이지 않고 이웃처럼 친근감이 들고 순수해 보인다. 평정심을 잃지 않고 시청자들에게 항상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점이 좋다. 시청자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편안하고 좋은 프로그램이다. <12월 21일 보고서>

○ 1R 「홍사훈의 경제쇼」

- 홍사훈 기사를 좋아해서 해당 방송을 열심히 청취한다. 발언 한 마디 한 마디가 꾸밈없고 진솔해 신뢰가 가며, 경제 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주어 항상 고맙게 듣고 있다. 계속해서 청취자들이 궁금해 하는 각 분야의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기 바란다. <3월 2일 보고서>

○ 1R 「최영일의 시사본부」

- 최영일 평론가가 건강상의 이유로 자리를 비워, 장윤선 기자가 진행을 맡고 있다. 그런데 장윤선 기자는 지난 11일에 「주진우 라이브」에 야당 패널로 출연했다. 다른 프로그램에서 야당 측 패널로 출연한

사람이 공영방송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는 건 공정하지 않다. 임시 진행이라 해도 공정한 진행자를 섭외해주기 바란다. <4월 13일 보고서>

○ 1R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 이날 2부에 임주혜 변호사가 출연해 빌려준 돈 받는 법에 대해 설명했다. 실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 공감하며 청취했다. 관련 소송 시 챙겨야 할 사항들에 대한 내용 등 유익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어 감사하다. <4월 25일 보고서>

○ 1R 「KBS 열린토론」

- 정준희 저널리즘 전문가가 진행하고 각계각층의 패널들이 출연해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정준희 씨가 너무 오랜 기간 진행을 맡고 있는 것 같다. 이제는 진행자를 교체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다. <5월 19일 보고서>

○ 1R 「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위암과 공존하는 삶, 정혜윤'

- 2020년에 위암 4기 판정을 받은 후, 위암과 공존하는 삶을 선택한 정혜윤 씨가 출연했다. 절망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암과 공존하며 햇수로 3년째 투병 중이라고 하는데,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너무 인상적이고 감명 깊었다. 이날 들려준 이야기들을 향후 책으로 발간해도 좋을 것 같다. <5월 22일 보고서>

○ 1R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슬기로운 법률생활'

- '슬기로운 법률생활' 코너에 장윤미 변호사가 출연해 '불법 대출과 추심, 어떻게 대처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데 다소 흥분한 어조로 발언을 이어가 방송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특히 내용 중 "백이십서른 명"이라는 표현은 몇 명을 뜻하는 것인지 몰라 당황스러웠다. 조금 더 침착하고 차분한 태도를 취해주었으면 한다. <6월 27일 보고서>

○ 1R 「오늘 아침 1라디오」'파일럿'

- 이른 아침부터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전해주어 감사히 잘 듣고 있다. 이날 최경 다이어트 과학자가 출연해 다이어트를 하는데도 살이 찌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 다이어트를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인상적이었다. 유튜브 채널도 운영한다고 하던데 참고하겠다. <7월 4일 보고서>

○ 1R 「KBS 열린토론」'정신질환 관리체계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은?'

- 세 명의 전문가가 출연해 '사법입원제' 관련 쟁점들을 살펴봤다. 그런데 세 명 모두 '사법입원제'를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제목처럼 열린 토론이 되기 위해서는 반대 입장, 이를테면 '사법입원제'의 대상이 되는 환자의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 이날은 출연자 섭외가 다소 아쉬웠다. <8월 18일 보고서>

○ 1R 「홍사훈의 경제쇼」

- 경제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어 자주 듣는 방송이다. 그런데 최근 청취하다보면 경제신문에서 자주 다뤘던 내용들이 방송된다. 또 새로운 패널들이 출연하는데 내용의 정확도가 다소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 이전 패널들은 팩트 위주로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기에 더욱 아쉽게 느껴진다. 패널 섭외를 조금 더 신중하게 해주기 바란다. <10월 16일 보고서>

○ 1R 「뉴스브런치」‘문화로운 세계’

- 이날 손희정 문화비평가가 “환자들이 퇴원할 때 담당 간호사가 마중을 나가면서”라는 발언을 했다. 이 때는 ‘마중’이 아니라 ‘배웅’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출연자가 기본적인 단어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게 이해되지 않고, 진행자가 제대로 잡아주지 않는 부분도 실망스러웠다. <11월 24일 보고서>

○ 2R 「주현미의 러브레터」

- 매일 오전 해당 방송을 빠짐없이 청취하는 애청자이다. DJ 경험이 풍부한 주현미 씨 특유의 진행이 좋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성도 매력적이다. 중장년층 맞춤 프로그램답게 7080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옛 가수들의 노래를 많이 들려주는 점도 마음에 든다. 계속해서 따뜻하고 인간적인 진행을 기대하겠다. <2월 9일 보고서>

○ 2R 「송진우의 용감한 라디오」

- 진행자 송진우 씨가 방송 중 개인적인 이야기, 특히 가정사를 너무 많이 언급하는 것 같다. 송진우 씨의 배우자가 일본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일본 관련 사연을 많이 소개하고 일본에 대해서도 좋은 쪽으로만 언급한다. 이런 점은 진행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8월 18일 보고서>

○ 2R 「김태훈의 프리웨이」

- 현직 교사이다. 이날 ‘댓글로 본 세상’에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발표한 학생생활규장 길라잡이를 다뤘다. 이후 진행자가 “그럼 지금까지는 학생들이 자도 내버려뒀단 애기인가요?”라고 발언했다.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며, 아이들의 인권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교사들이 많다. 교사들이 많이 듣는 방송인데 경솔한 발언인 것 같다. <11월 1일 보고서>

○ 2R 「박명수의 라디오쇼」

- 박명수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애청하고 있다. 박명수 씨가 진행을 재미있게 잘 하는 것 같다. 계속 청취할 수 있도록 장수 프로그램이 되길 바란다. <12월 7일 보고서>

○ 3R 「건강 365」‘약이 되는 약 이야기’

- 각 분야의 전문의가 출연해 유익한 의학 정보를 제공해주어 늘 도움 받고 있다. 이날 소비자콘텐츠연구소 이주영 소장이 출연해 치약에 대해 다뤘고, 이후 궁금한 부분이 있어 홈페이지의 방송정보를 확인하니 소비자콘텐츠연구소 연락처가 공개되어 있지 않았다. 청취자들의 편의를 위해 가급적이면 연락처를 공개하는 출연자 위주로 섭외해주었으면 한다. <2월 16일 보고서>

○ 3R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 이지연 아나운서를 굉장히 좋아해서 해당 방송을 열심히 청취 중이다. 시니어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많이 제공해주어 유익하다. 특히 이지연 아나운서가 청취자들의 사연에 공감하며 상담을 잘 해주는 점이 너무 보기 좋다. 시니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좋은 방송을 만들어주어 감사하다. <10월 19일 보고서>

○ 1FM 「가정음악」

- 본인은 눈 수술 후 글 한 줄 읽을 수 없어 전적으로 KBS 라디오로 위안을 얻었던 고령의 청취자이다. 김미숙 씨가 목소리가 좋고 진행이 매끄러워 듣는 재미가 있었다. 해당 방송에 패널로 출연하던 유정우 씨가 임시 진행을 맡고 있는데, 그분의 진행도 좋지만 김미숙 씨를 따라가지 못한다. 김미숙 씨가 하차해 허전한 마음이 들고, 추후 다시 진행을 맡아주었으면 한다. <3월 15일 보고서>

○ 1FM 「KBS 음악실」

- KBS 1FM을 즐겨 듣는 청취자이다. 음악을 좋아해서 스테레오로 듣는데, 유독 해당 방송의 진행자가 곡이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친다. 마이크 앞에서 치다보니 음악을 감상하던 중 놀랄 때가 많다. 실황음악에 녹음된 박수도 아니고, 굳이 진행자가 마이크 앞에서 박수를 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주의해주기 바란다. <3월 30일 보고서>

○ 2FM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는 등, 해당 방송에 참여하고 소통하며 즐겁게 청취하고 있다. 청취자가 방송에 참여했을 때 따뜻하고 정겹게 대해주는 진행자 이금희 씨만의 매력이 방송의 묘미다. 소소하지만 따뜻한 사연을 많이 들려주는 점도 마음에 든다. 늘 변치 않고 좋은 방송을 제작해주는 이금희 씨와 제작진에게 감사하다. <1월 10일 보고서>

○ 2FM 「이현우의 음악앨범」

- 연예인이 음주 운전과 마약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방송사로부터 출연정지 처분을 받는다. 그런데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도 있고, 대마초를 흡입해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 적도 있는 이현우 씨가 해당 방송의 진행자로 적합한지 의문이 든다.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는 점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 <4월 14일 보고서>

○ 한민족1 「세월따라 노래따라」

- KBS 라디오의 애청자이다. 특히 원석현 아나운서의 노련한 진행 덕분에 해당 방송을 좋아한다. 새벽 시간대에 잘 어울리는 차분하고 진실 된 진행이 너무 듣기 좋다. 앞으로도 좋은 진행으로 오래도록 청취자들과 함께하길 바란다. <10월 27일 보고서>

| 5. 공정성 |

○ 1TV 「더 라이브」

- 하루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딱딱한 시사 정보를 재미있게 풀어주어 즐겨 시청한다.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화면 하단과 스튜디오에 설치된 전광판을 통해 시청자들의 실시간 댓글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또한 흥미롭다. 다만 전반적으로 야당에 호의적이고 여당을 비판하는 내용이 많아 안타깝다. 조금 더 공정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1월 3일 보고서>

○ 1TV 「신년 기획 시사기획 창 2부」 '알고리즘 인류 2부 - 민주주의가 위험하다'

- '민주주의가 위험하다'라는 부제로 진행된 이날 방송에선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남편이 자택에서 습격당한 사건을 예로 들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은 정치인들이 극단주의 세력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활용하는 정황을 다뤘다. 공화당에 비판적인 내용이라 편파적으로 여겨졌다. <1월 12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9」'벌써 100일, "그날의 진실, 찾겠습니다"..서울광장에 분향소 설치'

-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00일이 됐다. 이날 유족과 시민들이 추모대회를 열고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해당 참사가 정부의 책임이라고 비판하는 유족들의 입장이 크게 공감되지 않는다. 뉴스는 공정해야하는데, 슬픔에 집중되어 감성적으로 흐르지 않았으면 한다. <2월 6일 보고서>

○ 1TV 「사사건건」

-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진행된 환영 행사를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그런데 진행자가 일본 의장대 사열 장면을 보며 "일장기를 향해서 윤 대통령이 경례하는 모습을 보셨다."고 해설했다. 그러나 당시 태극기와 일장기가 동시에 걸려있었다. 가장 공정해야할 공영방송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팩트체크 없이 편파적인 해설을 한 점이 유감스럽다. <3월 20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9」'뉴스를 만나다'

- '뉴스를 만나다'에 박진 외교부장이 출연해 이재석 앵커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그런데 앵커가 진행 내내 감정을 드러내고 의견을 내세웠으며 박진 외교부장관의 발언을 끊기도 했다. 코너 말미에 박진 외교부장관의 "감사합니다."라는 인사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공정하지 않은 모습과 진행자답지 못한 태도가 보기 불편했다. <3월 20일 보고서>

○ 1TV 「아침마당」'도전! 꿈의 무대'

- '도전! 꿈의 무대'의 진행 및 투표 방식의 형평성에 다소 의문이 든다. 사연 소개부터 투표가 시작되는데, 어떤 출연자는 본인 소개 후 바로 노래를 시작하는 반면, 또 다른 출연자는 진행자의 소개부터 본인 인터뷰 및 가족의 인터뷰까지 진행되어 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길다. 이날 한태웅 씨의 경우 노래 시작도 전에 이미 15,798표를 받았다. 조금 더 형평성에 맞게 진행해주기 바란다. <3월 30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9」'尹, 양곡법에 "포폴리즘법" 첫 거부권 행사...민주, 재의결 추진'

-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은 모두 보여주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은 끝까지 보여주지 않은 점이 편파적이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초점을 맞췄는데, 민주당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부분도 다뤄야한다. <4월 6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7」'[여론조사] 윤 대통령 국정운영 "잘한다" 39.1%"못한다" 55.5%'

-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KBS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보다 부정 평가가 높았는데, 그동안 정부와 여당에 대한 언론의 비판적인 보도가 많았던 점이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 또한 지난 정부에 비해 여론조사가 굉장히 세부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이 점도 공정하지 않다. <5월 11일 보고서>

○ 1TV 「KBS 뉴스광장」'이슬람 '혐오 대신 존중'...경북대서 평화 행진'

- 경북대 인근에 이슬람 사원을 짓는데 주민 반대로 갈등을 겪고 있어, 경북대 학생과 교수들이 이슬람 혐오를 멈추자며 교내에서 평화 행진을 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슬람 사원을 짓는 것에 대한 반대를 혐오라고 표현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당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주민들의 입장은 전혀 담기지 않은 편파적인 보도다. <5월 22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9」'경찰 "건설노조 집회, 강력 처벌" 천명...'자의적 해석' 논란도'

- 지난 18일 앵커가 민노총 집회와 관련된 리포트를 다루며 사실과 다른 멘트를 했다가, 다른 옷을 입은 채 멘트를 수정해서 재녹화한 영상을 홈페이지 다시보기에 올렸다. 수신료를 내는 시청자로서 보수와 진보를 떠나 공영방송의 앵커가 아무런 사과 없이 영상만 수정한 점이 실망스럽다. <5월 25일 보고서>

○ 1TV 「특집 KBS 뉴스 9」'고공 농성 노조간부 '경찰봉' 사용 체포...'과잉 진압' 논란'

- 고공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간부가 경찰이 내려친 경찰봉에 맞아 머리를 다쳤다고 보도했다. 경찰이 진압하는 모습 위주로 방송됐는데, 타 언론사의 보도를 보면 노조원이 의자를 던지거나 칼을 휘두르는 모습도 방송됐다. 경찰이 매뉴얼대로 진압한 것을 과잉 진압 논란으로 보도한 것은 편파적이다. <6월 5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9」'뉴스를 만나다'

- '뉴스를 만나다'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이주노동자들이 위험하고 힘든 산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며, 그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바꿔야한다는 내용이었다. 실제 노동현장에선 일자리가 부족하며, 이주노동자들이 더 많은 일을 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일자리가 부족한데, 이주노동자들의 입장만 다뤄져 보기 불편했다. <8월 8일 보고서>

○ 1TV 「사사건건」'단독인터뷰 '수사 외압' 의혹 진실은?'

-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과의 단독인터뷰가 진행됐다. 그런데 인터뷰 과정에서 진행자가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와 같은 유도성 질문을 했다. 공영방송의 진행자는 공정성을 유지해야하는데, 본인이 원하는 답변을 요구하는 식의 진행을 해서 보기 불편했다. <8월 14일 보고서>

○ 1TV 「시사기획 창」'하마스의 전쟁, 이스라엘의 전쟁'

- '하마스의 전쟁, 이스라엘의 전쟁' 편을 시청했다. 그런데 진행자가 교묘하게 이스라엘 편을 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 멘트에서도 하마스에 의해 살해된 이스라엘 사람들만 언급하는데, 이스라엘에 의해 살해된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 공정하게 진행해주기 바란다. <11월 9일 보고서>

○ 1TV 「2023-2024 프로배구V-리그 여자부」'현대건설:흥국생명'

- 현대건설과 흥국생명의 경기를 시청했다. 본인도 김연경 선수의 팬이고, 훌륭한 선수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날 카메라가 김연경 선수 위주로 보여주고, 진행자들도 김연경 선수를 지나치게 언급해 보기 불편했다. 또한 흥국생명 위주의 해설도 공정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11월 14일 보고서>

○ 1TV 「KBS 뉴스광장」'80대 운전자 차에 보행자 3명 참변...고령운전자 사고는 급증'

- 고령운전자가 전체운전자의 12%이며, 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접했다. 다른 세대 운전자의 사고율과 비교한 것도 아니고, 오직 고령운전자가 낸 사고에만 집중한 보도였다. 사고는 운전자만의 잘못이 아니고 상대방의 과실에 의해,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다. 나이에만 집중해 조건부면허제 도입 등을 언급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11월 24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9」

- '2023 부산 엑스포' 유치가 실패했는데, 이날 톱뉴스로 다루지 않아 의아했다. 국민들에게 유치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기대를 품게 하고 유치하지 못했으니 이에 대한 비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

나 메인뉴스로 다루지 않은 점이 편파적이다. <12월 1일 보고서>

○ 1TV 「뮤직뱅크」

- 「뮤직뱅크」의 사전 투표에 '뮤빗 투표'가 추가됐다. 그런데 1152회 뮤빗 케이팝 팬투표 후보에 부석순(세븐틴)의 '파이팅 해야지'와 임창정의 '멍청이'가 빠졌다. 현재 세븐틴의 팬들이 전화로도 문의하고, 시청자 게시판에도 글을 게재하고 있지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답답하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 조속히 수정해주기 바란다. <2월 15일 보고서>

○ 2TV 「해 볼만한 아침 M&W」 '이슈토크W'

- 영화 「서울의 봄」이 흥행하고 있는데, 이날 패널이 출연해 세계 각국에서 일어났던 봄의 열풍에 대해 설명했다. 그런데 마지막 멘트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느낌을 받았다. 현 정부를 비난한 것은 아니지만, 내년 총선을 언급하며 암암리에 본인의 정치성향을 드러내어 시청자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게 했다. <12월 14일 보고서>

○ 2TV 「불후의 명곡」

- 해당 방송을 꾸준히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판정단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를테면 젊은 가수 여러 명이 그룹으로 출연할 때 우승 확률이 높다. 팬카페에 들어가면 어느 가수가 언제 출연하니 판정단을 신청하라고 독려하는 글이 게재된다. 노래를 얼마나 잘하느냐보다는, 어느 가수가 얼마나 열성팬을 보유하느냐로 승패가 갈리는 것 같다. 이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한다. <12월 15일 보고서>

○ 1R 「주진우 라이브」

- 해당 방송을 매일 청취하는 애청자이다. 청취자들이 꼭 알아야 할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다뤄주어 도움이 되지만, 진행자가 편파적인 입장을 취해 듣기 불편할 때가 많다. 섭외되는 패널들 또한 한 쪽에 치우친 경우가 많다. 앞으로는 청취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조금 더 공정한 방송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1월 4일 보고서>

○ 1R 「최영일의 시사본부」

- 점심시간에 시사이슈들을 이해하기 쉽게 분석해주어 직장인들이 청취하기에 좋다. 그런데 진행자가 한 쪽으로 치우친 느낌이 든다. 또한 출연하는 패널들도 한 쪽으로 치우쳐있어 균형 잡힌 의견을 듣기 어렵다. 조금 더 공정한 방송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1월 30일 보고서>

○ 1R 「최경영의 최강시사」

-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이다. 이슈의 중심에 있는 인물에 대한 인터뷰부터, 그날의 시사 이슈를 골고루 다뤄주어 즐겨 청취한다. 그런데 진행자가 정치색을 자주 드러내 듣기 불편할 때가 많다. 앞으로는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해주기 바란다. <2월 17일 보고서>

○ 1R 「KBS 열린토론」

- 정준희 저널리즘 전문가가 진행하고 각계각층의 패널들이 출연해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는 프로그램이다.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을 생각하게 해주는 점이 마음에 든다. 그런데 정준희 씨가 정치색을 드러내며 공정하게 진행하지 않아 듣기 불편할 때가 있다. 청취자들이 해당 방송을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진행해주기 바란다. <2월 20일 보고서>

○ 1R 「뉴스브런치」

-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하는 일을 막기 위해 정치권이 협력할 수 있을지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두 출연자 모두 지나치게 노동자 입장에서 발언했고, 진행자마저도 중립을 지키지 않고 출연자의 의견에 동조해 객관적이지 못했다. 사고는 경영자와 노동자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한다. 언론에서 기득권층만 나쁘게 몰아가선 안 된다. <7월 6일 보고서>

○ 1R 「정관용의 시사본부」

- 전문가들이 출연해 한주간의 시사과 정보를 다각도로 분석해준다. 주말에 청취하는데, 출연자들이 전반적으로 야당 입장에서 발언하기 때문에 다소 편파적이었다. 공정한 방송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7월 11일 보고서>

○ 1R 「김성완의 시사夜」

- 그날의 중요한 이슈를 정리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해당 방송의 진행자 김성완 씨는 타 방송사에 야당 측 패널로 출연한다. 진행자는 공정해야하는데, 「김성완의 시사夜」의 진행을 맡은 동시에 타 방송사에 야당 패널로 출연하는 것은 보기 안 좋다. 야당 패널로 출연을 하지 않거나, 해당 방송의 진행자에서 하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8월 10일 보고서>

○ 1R 「홍사훈의 경제쇼」

- 경제 각 분야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다뤄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진행자가 경제와 상관이 없는 정치적인 발언을 할 때가 많다. 본인은 경제 소식을 얻기 위해 해당 방송을 청취하는데, 진행자가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자주 하니 편안하게 청취하기 어렵다. 청취자들의 이러한 의견이 반영되길 바란다. <8월 16일 보고서>

| 6. 사실성 |

○ 1TV 「신년 기획 전국노래자랑」

- 시청자가 참여할 수 있는 음악 경연 프로그램으로, 매주 일요일마다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이날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편'이 방송됐는데, 하단 자막에 2004회로 회차가 잘못 표기됐다. 크리스마스에 방송되었던 '2022 연말결선 편'이 2004회였다. 확인 후 수정해주기 바란다. <1월 3일 보고서>

○ 1TV 「스크롤 자막」

- 이날 12시 뉴스가 방송되던 시각, 하단의 스크롤 자막으로 전국 대기 질 상황을 알려주었다. 그런데 '경기 남부'가 '경기 남부'로 잘못 기재돼 보기 안 좋았다. 앞으로는 자막 표기에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기 바란다. <2월 7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9」'속초의료원 '연봉 4억대'...응급의료까지 '흔들'

- 지방의 공공 의료 공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한 지역의료원은 4억 원 넘는 연봉까지 제시하며 의사 찾기에 나섰다 보도했다. 이어 3억 원대의 연봉을 제시한 경남 산청군 보건의료원에 대해 보도하던 중, 기자가 '경남 산청군'을 '경북 산청군'으로 잘못 말했다.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니 이러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기 바란다. <2월 16일 보고서>

○ 1TV 「KBS 뉴스」‘이 시각 증시’

- 이날 오전 9시 15분경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달러당 ‘1,313.20’원이었다. 그런데 ‘이 시각 증시’ 코너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을 ‘1,213.20’으로 보도했다. 환율이 내려간 줄 알고 깜짝 놀라 확인해보니 오류임을 알게 됐다. 주의해주기 바란다. <4월 4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9」‘尹 거부권 행사 ‘양곡법’, 재투표서 부결...간호법 상정 보류’

- 해당 보도 중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인터뷰 장면에서 ‘일사불란’이라고 자막이 잘못 기재됐다. ‘일사불란’이 올바른 맞춤법이니, 앞으로는 이러한 자막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기 바란다. <4월 17일 보고서>

○ 1TV 「KBS 뉴스광장」

- 정부가 우크라이나 카호우카 댐 파괴로 피해를 본 이재민 등을 돕고자 10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제공한다고 한다. 그런데 자막에는 100만 달러가 아닌 100억 달러로 표기됐다. 앞으로는 자막 표기에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기 바란다. <7월 3일 보고서>

○ 1TV 「1TV 스크롤 자막 오류」

- 이날 「KBS 뉴스 7」이 방송되던 시간에 하단의 스크롤 자막 뉴스에 ‘프랑스 시위 닷새째, 3천여 명 체포...숨진 소년 할머니, 시위 중단 촉구’라고 표기됐다. ‘촉구’가 아니라 ‘촉구’로 표기되어야 한다. 앞으로는 자막 표기에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기 바란다. <7월 5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12」‘북, 장거리 추정 탄도미사일 발사...“제원 분석 중”’

- 이날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한·미 정보당국이 세부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하단의 자막에 ‘제원’이 ‘재원’으로 표기됐다. 제원과 재원은 완전히 다른 단어이다. 자막에 실수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해주기 바란다. <7월 13일 보고서>

○ 1TV 「KBS 뉴스특보」‘집중호우’

- 이날 「KBS 뉴스특보」방송 중 오른쪽 상단에 호우경보 발령 지역을 표기해주었다. 그런데 7월 1일자로 대구시로 편입된 군위군이 ‘경북 군위’로 표기됐다. 자막에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기 바란다. <7월 19일 보고서>

○ 1TV 「KBS 뉴스특보」

- 이날 전라북도 무주군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런데 앵커도 “전남 무주군”이라고 발언했고, 하단의 자막에도 ‘전남 무주군’으로 표기됐다. KBS 뉴스에서 지역을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잼버리 대회로 인해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뉴스를 많이 시청하고 있으니, 부끄럽지 않도록 실수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해주기 바란다. <8월 11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9」“북한, 한미일 정상회의 등 겨냥 ICBM 도발 준비”

- 평양시 외곽 산음동에 있는 미사일 연구단지에 대해 보도 중, 크기를 설명할 때 12,000km²로 표기된 자료 화면을 보여줬다. 12,000km²라고 하면 남한의 길이보다 긴 셈으로, 만 2천 제곱미터를 잘못 표기한 듯하다. 단위기호에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기 바란다. <8월 21일 보고서>

○ 1TV 「1TV 스크롤 자막 오류」

- 이날 자막 뉴스에 '가야 고분군'이 '가야 고군분'으로 잘못 표기됐다. 자막에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기 바란다. <9월 19일 보고서>

○ 1TV 「1TV 스크롤 자막 오류」

- 이날 자막뉴스에 '전남 무안'이 '전북 무안'으로 잘못 표기됐다. 앞으로는 실수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해 주기 바란다. <12월 8일 보고서>

○ 1TV 「KBS 뉴스광장」

- 오프닝 화면에 'polytics'라는 글자가 나오는데, 철자가 잘못 됐다. '정치'를 뜻하는 것 같은데, 정치의 스펠링은 'politics'이다. 혹여 다른 프로그램들도 철자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 바란다. <12월 15일 보고서>

○ 2TV 「불후의 명곡」

- 이날 크로스오버 그룹 에스페로와 가수 김호중 씨가 최종 우승의 연예를 안는 모습을 감동적으로 시청했다. 평소 에스페로를 좋아해 방송을 챙겨봤는데, 무대 도중 멤버 남형근 씨의 이름이 임형근으로 잘못 표기됐다. 에스페로의 팬으로서 속상한 마음이 들었다. 앞으로는 자막 표기를 더욱 신중히 해 주기 바란다. <2월 13일 보고서>

○ 2TV 「옥탑방의 문제아들」

- '트로트 뇌섹남'이라 불리는 이찬원 씨가 출연해 재미있게 시청했다. 방송 중 이찬원 씨가 명절에 가족들에게 용돈 드린 이야기와, 6촌 형제의 자녀인 7촌 조카 결혼에 화환이랑 축전을 보낸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자막에 '재중'이 '제중'으로 표기돼 보기 불편했다. 공영방송에서 맞춤법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기 바란다. <2월 21일 보고서>

○ 2TV 「KBS 뉴스 6」 '경제합시다'

- 이날 '경제합시다' 코너에서 라면 수출액을 다뤘다. 그런데 수출액이 1조 달러로 보도됐다. 1조 달러는 납득이 되지 않는 금액이다. 1조 원일 것 같으니 확인 바란다. <11월 23일 보고서>

○ 1R 「정오 종합뉴스」

- 8일 대전시 둔산동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어린이가 이날 새벽 숨졌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런데 방송에서 사고지를 탄방동으로 잘못 보도했다. 이러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기 바란다. <4월 10일 보고서>

○ 2R 「주현미의 러브레터」

- 주현미 씨의 방송을 애청하는 청취자이다. 이날 방송 말미에 가수 진송남 씨에 대해 소개했다. 이후 1967년에 많은 인기를 모았던 '바보처럼 울었다'를 들려주겠다고 했는데, 전혀 다른 노래가 나와서 당황스러웠다. 노래가 끝난 후 진행자의 정정 멘트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서 아쉬웠다. 향후에는 방송에 실수가 있었을 때 정정해주었으면 한다. <2월 7일 보고서>

| 7. 프로그램 호평 |

○ 1TV 「다큐 인사이드」‘인생 정원 - 일흔둘 여백의 뜰’

- 홀로 가꿔온 1만 제곱미터의 뜰과 서원을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공유하는 일흔두 살의 노학자 전영애 씨의 인생철학을 들어보았다. 본인도 정원을 가꾸고 있어, 전영애 씨가 땀과 세월로 가꿔온 여백의 뜰의 사계를 감상하며 큰 감동을 받았다. 노학자의 인생 지혜가 담긴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1월 2일 보고서>

○ 1TV 「신년 기획 열린음악회」

- 이날 방송은 지난해 카디프 콩쿠르 우승자인 바리톤 김기훈 씨의 무대로 시작됐다. 이어진 베이스바리톤 길병민 씨의 감미로운 무대도 인상적이었다. 그뿐 아니라 한영애 씨, 소리꾼 고영열 씨 등 깊은 여운을 남기는 무대들이 계속 이어져 한 시간이 금방 지나갔다. 공영방송 KBS에서 좋은 방송으로 즐거움을 선사해주어 감사하다. <1월 3일 보고서>

○ 1TV 「신년 기획 아침마당」‘화요초대석’

- 화요초대석 1부에 조명한 한국월드비전 신임 회장이 출연해 아시아 최고 에이즈 전문가가 나눔 부자가 된 사연을 들려주었다. 조명한 회장으로부터 나눔 도우면서 사는 행복에 대해 듣다보니 월드비전이라는 비정부 기구(NGO)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기부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 참된 인생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드는 좋은 방송이었다. <1월 4일 보고서>

○ 1TV 「KBS 뉴스광장」“누구에게도 주눅 들지 않아”...그 시절 여성들의 ‘멋’

- 참혹했던 6·25전쟁이 끝난 뒤 1950~60년대를 살아간 여성들의 일상을 흑백 사진으로 보여주었다. 밍크 코트에 하이힐을 신고 걷는 여성, 레인부츠를 신고 손가방을 든 여성 등 암울하고 궁핍했을 거란 편견을 깨고 굉장히 멋있었다. 뉴스를 틀면 각종 사건사고와 정치권 소식으로 마음이 불편한데, 모처럼 그 시절의 향수가 느껴지는 반가운 보도였다. <1월 6일 보고서>

○ 1TV 「인간극장」‘여섯 평, 작은 집에서 삽니다’

- 여섯 평의 작은 집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문건호·손정현 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작은 집에 사는 기쁨을 전파하고 건축학교를 운영하면서 마을 사람들을 돕는 모습을 보며, ‘집이란 무엇일까?’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 특히 본인도 집 짓는 것에 관심이 많아 이번 주 방송이 도움이 됐다. 집이 가장 중요한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된 요즘, 마음에 와 닿는 방송이었다. <1월 11일 보고서>

○ 1TV 「생로병사의 비밀」‘만져보면 찾을 수 있다, 침샘암’

- 이날은 ‘침샘암’을 다뤘다. 이름도 생소한 침샘암은 인구 10만 명당 2명 정도 발병하는 매우 드문 암이라고 한다. 본인도 이날 처음 들어보았는데, 조금만 진단이 늦어도 치명적일 만큼 무서운 암이라고 하여 경각심이 들었다. 실제로 침샘에 종양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알려주어 유익했다. 매주 도움이 되는 건강 상식을 전해주어 감사하다. <1월 13일 보고서>

○ 1TV 「동네 한 바퀴」‘따뜻하다, 그 겨울 충청북도 보은’

- 충북 보은으로 203번째 여정을 떠났다. ‘보은’이라는 동네 이름처럼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 시청 내내 따뜻한 마음이 들었다. 산세가 수려하기로 이름난 속리산 풍경을 보는 재미도 쏠쏠했다. 송로

주 명인, 직접 콩 농사를 지어 메주를 쑼고 가마솥에 직접 두부를 만들어 파는 손두부 집 등이 소개되어 유익하기도 했다. 언젠가 한 번 방문해보고 싶은 고장을 소개해주어 감사하다. <1월 16일 보고서>

○ 1TV 「설 특집 옛날TV 그땐 그랬지」

- 1부에서는 여행에 대한 추억을, 2부에서는 장기 자랑 대회 열풍을 추억해보았다. 방송을 통해 잊고 있던 시절의 감성을 느낄 수 있어 행복했고, 시간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이 들어 즐거웠다. KBS에서 옛 기록을 발굴하고 손질하여 진귀한 이야기를 들려주어 감사하다. 매해 명절마다 이런 좋은 방송을 제작해주면 좋겠다. <1월 25일 보고서>

○ 1TV 「신년기획 최초의 질문」'3회'

- '질문은 진화한다'라는 부제로 진행된 이날 방송에서는 질문이 갖는 인간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평소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이 심도 있게 다뤄져 흥미로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번의 반짝이는 질문이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진화시킬 수 있는 힘이라는 교훈을 얻었다. 최재천·이정동, 두 석학의 깊은 통찰을 느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1월 26일 보고서>

○ 1TV 「다큐 온」'101마리 젓소의 특별한 비행'

- 2021년, 세계 최빈국에 속하는 네팔은 우리나라에 젓소를 요청했다. 이날 목장주와 방역 전문가, 수의사들이 출동해 101마리의 젓소를 네팔로 보내는 내용이 그려졌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 끝나고 폐허가 되었을 때 미국의 비영리기관인 헤퍼 인터내셔널로부터 가축을 받았었다. 이제 낙농선진국이 되어 네팔에 나눔의 가치를 전하는 모습을 감동적으로 시청했다. <2월 7일 보고서>

○ 1TV 「자연의 철학자들」'벌랫의 햇살처럼 바람처럼'

- 닥종이 예술가 이종국 씨의 철학을 들어보았다. '닥종이 예술가'라는 생소함에 끌려 시청하게 되었는데, 이종국 씨가 예부터 전통 방식으로 한지를 생산하던 마을 벌랫에 정착해 옛 방식 그대로 닥농사를 짓고 종이를 뜨면서 한지를 부활시키는 과정이 흥미진진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다양한 삶의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어 좋은 방송이다. <2월 13일 보고서>

○ 1TV 「동행」'내일은 태양'

- 엄마가 집을 나가 아빠와 셋이 살았던 이태양·이환희 형제의 사연이 소개됐다. 그런데 아빠마저 지난해를 심장마비로 형제의 곁을 떠났다. 현재 이태양 군은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가정환경 변화에 힘들 텐데도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대견해 후원을 결심하게 됐다. 시청자들에게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어 감사하다. <2월 20일 보고서>

○ 1TV 「이웃집 찰스」'우크라이나 떠나 가족'

- 군산시립교향악단의 수석 비올리스트인 떠나와 바이올리니스트 남편 샤샤의 사연을 소개했다. 두 사람은 20여 년 전 한국에 온 뒤 줄곧 군산에서 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걱정하는 떠나의 애타는 마음이 전해져 안타까웠다. 국적과 관계없이 한국이란 낯선 나라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응원하게 만드는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다. <2월 23일 보고서>

○ 1TV 「공영방송 50주년 특집 당신의 KBS 우리의 50년」

- KBS가 공영방송으로 50주년을 맞았다. 그래서 이날 KBS의 지난 50년을 돌아보고 미래 50년을 기약하는 특집 프로그램이 방송되어 재미있게 시청했다. 다양한 가수들의 무대가 마련됐는데, 특히 윤복희 씨

등 오랜만에 보는 가수들이 많아 반가웠다. 지난 50년간 대한민국 희로애락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한 KBS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공영방송 50주년도 축하한다. <3월 6일 보고서>

○ 1TV 「국악 한마당」‘가야금으로 그린 봄’

- 국악을 좋아하여 토요일마다 즐겨 시청한다. ‘가야금으로 그린 봄’이라는 부제로 진행된 이날 방송에서는 가야금으로 듣는 다채로운 봄 연주곡을 만나보았다. 밝고 화려한 음색의 가야금 연주를 감상하다보니 봄을 느낄 수 있어 즐거웠고, 풍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국내 최장수 국악 전문 프로그램으로 오래도록 시청자와 함께 해주기 바란다. <3월 6일 보고서>

○ 1TV 「공영방송 50주년 기획 예썰의 전당」‘1회’

- KBS가 공영방송으로 50주년을 맞아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들이 방영되고 있다. 해당 방송에서는 이날 ‘궁궐의 도시 서울’이라는 부제로 유홍준 교수와 함께 조선 왕조 500년 역사를 품고 있는 궁궐에 주목했다. 익히 알고 있는 장소지만, 방송을 통해 우리 궁궐을 제대로 즐긴 기분이었다. 서울의 문화유산을 다뤄주어 감사하다. <3월 7일 보고서>

○ 1TV 「KBS 뉴스광장」[잇슈 키워드] ‘느릿느릿’ 속 터지는 운전자들...속도 제한 풀린다’

- 정부가 재작년부터 시행 중인 ‘안전속도 5030’ 정책을 폐기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보았다. 이 속도 제한 때문에 운전자들이 강제로 거북이 운전을 하는 상황이었었는데, 참 반갑고 좋은 소식이었다. 솔직히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치게 확대해놓았다는 생각이 든다. 계속해서 KBS에서 속도 제한과 어린이 보호구역 설정에 대한 단점을 많이 보도해주면 좋겠다. <3월 16일 보고서>

○ 1TV 「KBS걸작 다큐멘터리」‘색 - 네 개의 욕망 4편’

- 지난 2009년도에 시청했던 적이 있는 ‘색 네 개의 욕망’이라는 4부작 다큐멘터리가 다시 방송됐다. 내용이 철학적이면서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어 굉장히 의미 있게 시청했다. 완성도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방송해주어 감사하다. 계속해서 이런 새벽 시간대에 좋은 다큐멘터리를 소개해주었으면 한다. <3월 17일 보고서>

○ 1TV 「공영방송 50주년 기획 동네 한 바퀴」‘미국 LA 1부’

- 이날 방송에선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했다. LA에서 한인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과, 미국인들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다음 주에 방송될 2부도 기대가 되고, 「동네 한 바퀴」가 장수 프로그램으로 나아가 유럽에 거주하는 한인들도 만나주었으면 한다. <3월 20일 보고서>

○ 1TV 「인간극장」‘산사의 소프라노, 정율’

- 이날 방송에 음악으로 불가의 가르침을 전하는 정률스님이 출연했다. 본인도 불교신자여서 잘 시청했다. 기회가 된다면 정률스님도 뵙고 싶고, 본인도 합창단에 참여하고 싶다. <3월 23일 보고서>

○ 1TV 「공영방송 50주년 기획 동네 한 바퀴」‘미국 LA 2부’

- 미국 로스앤젤레스 방문기를 재미있게 봤다. 특히 안창호 선생의 후손을 만나 도산의 발자취를 따라가보는 내용이 그려졌는데 굉장히 뜻깊었다. 미국에서 살아가는 한인들의 노고가 느껴지는 방송이었다. 진행자 이만기 씨의 구수한 진행도 재미를 더했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동네 한 바퀴」 여정을 지켜보도록 하겠다. <3월 28일 보고서>

○ 1TV 「KBS 뉴스광장」“재고 정리해드립니다”...절반값에도 위탁판매 급증’

- 판로를 확보하지 못한 기업들의 재고 물량을 대신 정리해주는 위탁 판매가 크게 늘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다. 이렇게 들어오는 상품들은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재판매된다고 한다. 가전제품 등을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관심이 간다.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주어 감사하다. <3월 29일 보고서>

○ 1TV 「생로병사의 비밀」‘한번 굳어지면 안 돌아온다 - 간경화’

- 평소 지인들에게 해당 방송을 시청하라고 권하는 문자를 보낼 정도로 오랜 애청자이다. 이날 방송에서 몸에서 가장 큰 장기이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간을 다뤄주어 유익하게 잘 시청했다. 유익한 방송을 제작해주는 KBS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4월 7일 보고서>

○ 1TV 「일요진단 라이브」‘총선 1년 앞 정국 상황은?’

- 총선을 1년 정도 앞두고 있는 이날 ‘총선 1년 앞 정국 상황은?’이라는 주제를 다뤄주어 유익하게 시청했다. 유권자들이 내년 총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정부 견제론이 50% 나왔는데, 본인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공감하며 봤다. 앞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많으니 총선 이슈를 꾸준히 다뤄주기 바란다. <4월 11일 보고서>

○ 1TV 「열린음악회」‘푸른 숲 50년, 국민 행복 50년’

- 일요일마다 「열린음악회」를 즐겨 시청하는 시청자이다. 이날 양희은 씨, 박창근 씨, 서영은 씨 등 좋은 가수들이 멋진 무대를 꾸며주어 재미있게 잘 시청했다. 매주 즐거운 방송을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4월 11일 보고서>

○ 1TV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사랑의 연못 ‘내 짝을 찾습니다’

- 해당 방송에서 ‘사랑의 연못’이라는 코너를 통해 솔로 시니어들이 짝을 찾을 수 있도록 공개 구혼의 장을 마련해주었다. 방송을 시청하던 중 본인도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본인뿐 아니라 참여를 원하는 친구들이 많다. 공영방송 KBS라서 더욱 믿음이 간다. <4월 17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7」‘혈당·심혈관질환 한 번에 잡는다’

- 최근 심혈관질환 합병증을 크게 줄이는 당뇨약이 나왔다는 보도를 시청했다. 우리나라 30살 이상 성인 6명 중 1명이 당뇨를 앓고 있다고 하고, 본인 또한 당뇨를 앓고 있어 합병증이 두려웠던 터였다. 많은 당뇨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도움이 되는 보도를 해주어 감사하다. <4월 19일 보고서>

○ 1TV 「시사기획 창」‘알고리즘 인류 스페셜 - 다시, 민주주의’

-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해당 방송에서 민주주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 굉장히 유익하게 잘 시청했다. 문제를 짚어보기 위해 정치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취재했는데, 폭넓은 취재 덕분에 공감되는 내용이 많았다. 시청자들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좋은 방송이었다. <4월 27일 보고서>

○ 1TV 「동네 한 바퀴」‘환하다, 우리의 봄날 - 서울 성북동’

- ‘성 바깥 북쪽 동네’라는 뜻으로 이름 붙은 성북동을 보여줬다. 본인이 젊은 시절에 성북동에 살았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갔고, 연애 시절도 떠올라 감회에 젖었다. 최근에 성북동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 많이 바뀐 모습에 당황스러웠다. 방송을 통해 아름다운 성북동의 곳곳을 소개해주어 감사하다. <5월 2

일 보고서>

○ 1TV 「KBS 뉴스광장」[잇슈 키워드] 잘못 둘러막다간 신용불량자...‘연 이자 18%’ 리볼빙*

- 「KBS 뉴스광장」을 유익하게 시청하고 있다. 이날 이번 달 카드값 낼 돈이 부족하면 일부를 다음 달에 내는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에 대해 보도했다. 이자율이 굉장히 높다는 내용이었는데, 시청자들이 꼭 알아야하는 부분이라 도움이 됐다. <5월 3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9」‘해고 당했는데 ‘자진 퇴사’라니...실업급여도 막막 [5인미만 차별③]’

- 이날 KBS에서 소규모 일터의 현실을 짚어보았다. 본인도 겪었던 일들이라 보도 내용에 공감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재직 기간 1년을 몇 달 앞두고 직원들을 내보내는 회사도 아직 많이 존재한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당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지속적으로 보도해주기 바란다. <5월 4일 보고서>

○ 1TV 「TV 비평 시청자 데스크」‘클로즈업 TV’

- KBS의 시청자로서, 시청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전달되는 해당 프로그램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특히 KBS 프로그램에 대해 분석하는 ‘클로즈업 TV’ 코너를 정말 좋아한다. 궁금했던 부분을 알 수 있어 유익하고 재미있으며 감동적이다. 덕분에 일요일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어 감사하다. <5월 8일 보고서>

○ 1TV 「어린이날 기획 동행」‘골목의 수사반장, 열두 살 태연이’(2명)

-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할머니와 둘이 살아가는 열두 살 김태연 어린이의 사연이 소개됐다. 본인은 얼마 전에 아들을 잃었다. 이날 힘겹게 살아가는 김태연 군의 사연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프고, 도움을 주고 싶었다. 시청자들에게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어 감사하다. <5월 9일 보고서>

○ 1TV 「어버이날 기획 가요무대」‘부모’

-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라는 주제로 특집 방송이 진행됐는데, 무척 감동적으로 시청했다. 본인의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신데, 방송을 시청하는 동안 어머니를 위해 「가요무대」에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본인뿐 아니라 지인들도 해당 방송을 좋아한다. 앞으로도 꾸준히 시청하겠다. <5월 10일 보고서>

○ 1TV 「만담 다큐 호수인」

- 충북 진천군 초평면 소재의 초평호를 소개해주었다. 호수가 너무 아름다워 관심이 갔고, 수물 전 마을 이야기도 흥미로웠다. 청주충국에서 제작한 지역 방송이라고 하는데, 아름다운 풍광과 삶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잘 시청했다. <5월 11일 보고서>

○ 1TV 「걸어서 세계속으로」‘아드리아해를 비추는 붉은 보석, 그 찬란한 빛에 물들다! - 크로아티아’

- 여행을 할 수 없는 형편이라 「걸어서 세계속으로」를 시청하며 대리만족한다. 이날은 아드리아해의 보석이라 불리는 크로아티아를 소개했는데, 집안에 앉아 전 세계를 구경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늘 아름다운 풍경, 좋은 문화 등을 소개해주는 KBS에게 감사하다. <5월 15일 보고서>

○ 1TV 「500인 회의-선거제도 공론화」'3부'

-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앞두고 500인의 시민참여단이 모여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새로운 설계를 위해 토론하는 과정을 생방송으로 보여줬다. 시민참여단이 감정보다는 이성을 앞세워 발언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배울 점도 많았다. 우리사회 중요한 이슈를 시민과 함께 풀어나가는 점이 유익했고, 토론 내용이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로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5월 15일 보고서>

○ 1TV 「5.18 기획 다큐 인사이드」

- 부마민주항쟁 시절 군인이었던 시청자이다. 이날 방송에서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80년 5월의 광주의 모습이 담긴 미공개 사진을 통해 역사적 진실을 추적했는데, 방송을 시청하는 내내 너무 기가 막혔다. 수신료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뜻깊은 다큐멘터리였다. 감사하다. <5월 22일 보고서>

○ 1TV 「6시 내고향」'홍보 장사 만만세 - 참, 왜 이렇게 맛있는거야!'

- 작년에도 「6시 내고향」을 통해 참외를 두 박스 구매해 먹었던 시청자이다. 이날 경북 성주의 참외와 대전광역시 약수농장의 블루베리가 소개되었는데, 한눈에 보기에 품질이 좋아 구매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생활에 도움 되는 알찬 방송을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5월 25일 보고서>

○ 1TV 「아침마당」'전국 이야기 대회, 도전! 꿈의 무대 - 부처님 오신 날 기획 전국 스님 노래자랑!'

-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스님 노래자랑을 기획한 제작진을 칭찬하고 싶다. 덕분에 뜻깊은 마음으로 재미 있게 시청했다. 또한 '도전! 꿈의 무대' 코너에 참가자들의 실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이호섭 작곡가를 섭외한 점도 제작진의 탁월한 선택이다.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서 좋은 방송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5월 25일 보고서>

○ 1TV 「부처님오신날 기획 국악 한마당」

- 불교 음악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음악을 좋아하지만 공연장에 직접 찾아가는 것은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담스러운데, KBS에서 다양한 방송을 통해 집안에서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항상 KBS 덕을 본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시청 중이다. <5월 30일 보고서>

○ 1TV 「부처님오신날 특집 다큐 부처님과 함께 걷다」

- 예고 영상을 접한 후, 본방송을 무척 기다렸다. 부처님의 행적을 따라 43일간 1,167km로 이어진 순례의 대장정을 다룬 로드 다큐인데, 스님들의 수행 과정을 시청하는 내내 마음이 평화로웠다. 영상미 또한 아름다워 감동이 배가 됐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뜻깊은 다큐를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5월 30일 보고서>

○ 1TV 「즐거운 챔피언 시즌3 어울림픽」'1회'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스포츠를 즐기는 모습을 너무 감동적으로 시청했다. 역시 공영방송에서만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1회는 이날 재방송으로 시청했지만, 2회는 꼭 본방송으로 시청하겠다. 장애를 뛰어넘는 좋은 방송을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6월 8일 보고서>

○ 1TV 「현충일 기획 시사기획 창」'현장 진단 우리들의 소대장'

- 현충일을 맞아 국방력의 근간이 되는 초급 간부들의 처우개선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았다. 본인의 옛 군 시절이 떠올랐는데, 아직까지도 국군 초급 간부들의 복무 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현실에 안타까웠다. 우리사회가 가야할 방향을 잘 제시해준 보석 같은 방송이었다. <6월 8일 보고서>

○ 1TV 「KBS 뉴스광장」‘새로 나온 책’

- 각종 유익한 정보들을 제공해주어 매일 오전 잘 시청한다. 특히 ‘새로 나온 책’ 코너를 눈 여겨 본다. 늘 궁금하고, 호기심 가는 책들을 소개해주어 감사하다. <6월 15일 보고서>

○ 1TV 「공영방송 50주년 특별기획 장바구니 집사들」

- 자립준비 청년들을 후원하는 프로그램인데 눈물을 흘리며 시청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답답했던 마음이, 이렇게 감동적인 프로그램들로 풀어지는 기분이다. 이런 유익한 콘텐츠를 개발한 제작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 본인은 수신료 분리 징수가 되더라도 계속해서 수신료를 낼 생각이다. <6월 16일 보고서>

○ 1TV 「KBS네트워크특선 아마도 마지막 존재 [춘천충국]」

- 휠체어 생활을 10년 가까이 한 몸이 불편한 시청자이다. 이날 웨어러블 로봇 전문기업을 운영 중인 카이스트 공경철 박사가 출연했는데 인상 깊게 시청했다. 몸이 불편한 운동선수가 로봇의 도움을 받아 걷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관심이 갔다. 유익하고 희망적인 방송에 감사드린다. <6월 22일 보고서>

○ 1TV 「시사기획 창」‘나의 난민 너의 난민’

- 더 많은 난민들이 한국에 정착하면 어떻게 될지 답을 찾기 위해 세계 각지의 난민들을 만나보았다. 전반적인 짜임새가 좋아서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했고, 호소력 있는 방송이었다. 내국민과 난민을 차별하지 않는 독일의 사례를 보여준 점도 인상적이었다. 감명 깊은 방송이었다. <6월 23일 보고서>

○ 1TV 「한국인의 밥상」‘힘이 되는 한 숟갈, 새벽밥!’

- 최불암 씨를 좋아해서 해당 방송을 항상 잘 시청한다. 이날은 새벽을 여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든든한 한 끼가 되어준 새벽 밥상을 들여다보았다. 환경미화원들이 그 주인공이었는데,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이 보기 좋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다. 감동적인 삶의 현장을 전해주어 감사하다. <6월 26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12」‘새로 나온 책’

- 70이 넘는 고령의 시청자이다. 이날 새로 나온 책을 만나보는 코너에서 ‘이충무공전서’를 소개했다. 1795년에 정조가 신하들에게 이순신 장군의 행적과 글을 모아 만든 책이라고 한다. 항상 12시 뉴스의 해당 코너를 참고해 도서를 구매하고 있다. 늘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책 정보를 제공해주어 감사하다. <6월 28일 보고서>

○ 1TV 「시사 직격」[최종회]

- KBS만의 탐사 보도 노하우와 기획력을 바탕으로 한 시사 프로그램이다. 매주 금요일마다 챙겨봤는데 이날 방송을 끝으로 종영된다고 해서 당황스러웠다.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종영되어 안타깝지만, 향후 다시 방송되는 「추적 60분」을 열심히 시청하도록 하겠다. 그동안 고생한 제작진에게 감사인사를 전한다. <7월 3일 보고서>

○ 1TV 「인간극장」‘아들만 다섯 힘들어도 괜찮아’

- 치킨집을 운영하며 아들 다섯 명을 키우는 부부의 사연이 소개됐다. 닭 튀기라, 육아하라 고생스러운 상황인데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부부의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다. 각박한 시대에 이렇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좋은 가정을 많이 소개해주었으면 한다. <7월 5일 보고서>

○ 1TV 「추적 60분」‘오염수 방류 임박, 후쿠시마를 가다」[첫 회]

- 일본의 전례 없는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제작진이 후쿠시마를 구석구석 훑으며 취재한 내용을 방송했다. 식탁 위 먹거리 등 시청자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신랄하게 다룬 점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모두가 쉬쉬하는 주제를 용기 내어 다뤄주어 감사하다. <7월 10일 보고서>

○ 1TV 「다큐 온」‘노인 돌봄 - 1부 엄마를 부탁해’

-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날 노인 돌봄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다뤘는데, 관심 있는 주제라 시청했다. 본인은 50대이지만 외로움, 고립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유럽 국가들에 비해 노인 복지가 부족하다. 언론에서 노인 돌봄에 경각심을 일깨워주어 감사하고, 계속해서 관련 방송을 많이 제작해주기 바란다. <7월 10일 보고서>

○ 1TV 「KBS UHD 명품관」‘바다의 제국-부의 빅뱅’

- 바다를 길로 본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로 바라보았던 서양의 역사를 다뤘는데 굉장히 흥미진진했다. 새로운 내용을 많이 알게 되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해 시청했다. 특히 설탕 산업으로 엄청난 부를 얻게 된 영국에 대한 내용이 흥미로웠다. 유익한 다큐멘터리 잘 시청했다. <7월 11일 보고서>

○ 1TV 「방통위 방송대상 수상작 환경스페셜」‘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

- 우리가 버린 옷들로 쓰레기장이 되어버린 개발도상국들을 보여줬다. 생각 없이 사고 버린 옷들이 다른 나라의 물과 공기, 바다를 파괴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가볍게 옷을 사고 버릴 문제가 아니라는 경각심을 일깨워줘서 감사하다. 더 많은 사람들이 심각성을 알 수 있도록 이런 다큐멘터리를 많이 방영해주기 바란다. <7월 18일 보고서>

○ 1TV 「시사기획 창」‘오래된 신도시의 꿈’

- 단기간에 초고속으로 지어낸 신도시 아파트들로 인한 부작용을 다뤘다. 우리나라 아파트들은 30년을 넘기면 재건축을 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100년도 넘는 건물들이 즐비한 해외와 비교할 때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날 방송 유익했고, 개발로 훼손된 도시 환경에 대한 후속 방송도 꾸준히 제작해주기 바란다. <7월 20일 보고서>

○ 1TV 「특집 공영방송은 왜 존재하는가」

- 본인은 KBS를 응원하는 시청자이다. 최근 정부가 전기 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해서 징수하기로 했다. 본인은 KBS가 공영방송으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선 수신료를 분리 징수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분리 징수로 인해 방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런 특집 방송을 통해 수신료가 왜 필요한지 계속 알려주기 바란다. <7월 27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7」[대전.세종.충남]‘조선업 하청노동자 파업 1년...“현실은 여전”’

- 1년 전, 옛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가 알려졌고, 시청자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때까지 언론에서 그러한 내용이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놀라웠다. 이날 7시 뉴스에서 여

전히 나아진 게 없는 노동 여건을 보도했다. KBS에서 이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8월 4일 보고서>

○ 1TV 「특별생방송 여기는 새만금 잼버리」

- KBS에서 특별생방송을 편성하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상황을 전해주었다. 대회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니 재미있게 시청했다. 더불어 「아침마당」을 진행했던 김솔희 아나운서를 오랜만에 보니 반가웠다. <8월 7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5」'친절한 뉴스K'

-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 이날 '친절한 뉴스K'에서 강풍의 위력과 대비 요령을 상세하게 정리해 보도해주었다. 대형 화면으로 관련 자료들을 보여주니 이해도 쉽고 큰 도움이 됐다. KBS가 수신료 등으로 여러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힘을 냈으면 좋겠다. <8월 9일 보고서>

○ 1TV 「광복절 기획 다큐 온」'시베리아의 패치카 최재형'

- 어린 손자와 함께 시청했다. 하얼빈 의거의 배후에 있던 독립투사 최재형을 다뤘는데,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분이라 이날 방송에서 다뤄주어 고맙다. 시청하는 동안 안타까운 우리 역사를 알아가며 한숨을 쉬기도 했다. 국민들에게 영양제 같은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고, 광복절 기획만이 아닌 꾸준히 독립투사들을 조명해주었으면 한다. <8월 17일 보고서>

○ 1TV 「다큐 인사이드」'하얼빈에서 만나자'

- 소설가 김훈의 이야기로 31세 청년 안중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내용이었다. 광복절이었던 이날 안중근 의사를 되새길 수 있어 너무 좋았다. 잘 시청했고, 감사하다. <8월 17일 보고서>

○ 1TV 「KBS 뉴스」'인도 달 탐사선, 인류 최초 달 남극 착륙 성공'

- 이 시간에 「KBS 뉴스」에서 전해주는 해외의 다양한 소식들을 잘 보고 있다. 이날은 인도의 무인 달 탐사선이 달 남극 착륙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해줬다. 다른 나라지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다. 늘 빠르고 정확하게 여러 소식을 전해주는 KBS에게 감사하다. <8월 25일 보고서>

○ 1TV 「KBS 뉴스광장」'[단독] '마약성 진통제' 매일 4백알 먹은 의사도...'셀프처방' 사각지대'

- 마약류 범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의료용 마약류와, 마땅한 규제가 없다 보니 셀프 처방에 나서는 의사들의 실태를 보도했다. 최근 마약류 범죄가 잦아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다뤄주어 매우 유익했다. 의료용 마약에 대한 규제를 촉구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주는 좋은 보도였다. <9월 7일 보고서>

○ 1TV 「시청자주간 기획 6시 내고향」'고향 情 가게'

- 이날 '고향 情 가게' 코너에서 전남 강진의 장어 주물럭이 소개됐다. 장어는 보양식이기도 하고 맛도 좋아서 방송을 시청하는 동안 너무 먹고 싶었다. 택배도 가능하다고 하니 주문해서 먹어보려고 한다. 매일 저녁 알찬 소식을 전해주어 감사하다. <9월 7일 보고서>

○ 1TV 「다큐 인사이드」'하드코어, 서울 part 2 내일은 아무도 몰라'

- 지방에 거주하는 시청자이다. 꿈을 이루기 위해 서울, 그중에서도 일자리와 문화 등이 집중된 강남을

찾은 청년들을 조명한 이날 방송을 시청했다. 본인도 아들을 키우고 있기에 굉장히 공감 가는 내용이었다. '내일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주제도 좋았고, 취재가 잘 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9월 25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9」'명절에도 '이별'하는 아이들...추석 맞은 베이비 박스'

- 지난 14년 동안 베이비 박스를 거쳐 간 아이가 2,103명이라는 보도를 접했다. 이렇게 많은 아이가 베이비 박스를 거쳐 가는 줄 몰랐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지만, 이런 보도를 통해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 같다. 추석을 맞아 베이비 박스를 조명한 KBS를 칭찬하고 싶다. <10월 4일 보고서>

○ 1TV 「추석 특집 다큐」'강에 살다, 한강 어부'

- 대를 이어 한강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한강임에도 서울의 한강과는 또 다른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흥미로워서 재미있게 시청했다. 내레이션을 맡은 배창복 아나운서의 편안한 목소리도 방송에 깊이를 더했다. 장소도 아름다워 꼭 한 번 찾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10월 4일 보고서>

○ 1TV 「열린음악회」'전국체전기념'

- 수원에서 시청 중인 시청자이다. 이날 '전국체전기념'이라는 부제의 방송이 방영됐는데 재미있게 시청했다. 목포문화예술회관 특설무대에서 진행됐는데, 자주 갈 수 없는 목포가 나오니 너무 반갑고 좋았다. 뜻깊은 주제로 좋은 방송을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10월 11일 보고서>

○ 1TV 「다큐 인사이드」'이스라엘 - 하마스 전쟁의 시작'

-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관련 방송 잘 시청했다. 몰랐던 사실을 아는데 도움이 됐다. 특히 내레이션을 맡은 유지원 아나운서를 칭찬하고 싶다. 전쟁이라는 긴장되는 주제를 다루는데, 차분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내레이션을 해주니 오히려 집중이 잘 됐다. 양질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10월 23일 보고서>

○ 1TV 「남북의 창」'클로즈업 북한'

- 남북관계를 짚어볼 수 있고, 북한 관련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어 즐겨 시청한다. 이날 '클로즈업 북한' 코너에서는 오색 단풍으로 물든 북한의 가을 풍경과 함께 북한의 관광 산업 육성 전략을 다뤘다. 덕분에 금강산의 단풍 구경을 할 수 있어 눈이 즐거운 시간이었다. 감사하다. <10월 30일 보고서>

○ 1TV 「공영방송 50주년 기획 우리말 겨루기」

- '글로벌 우리말 겨루기'를 재미있게 시청했다. K-팝, K-드라마, K-푸드 등 우리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불고 있는 와중에, 외국인들이 펼치는 한글 도전이 뜻깊게 다가왔다. 방송을 시청하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열심히 공부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외국인을 섭외한 이러한 기획을 종종 해주었으면 한다. <11월 8일 보고서>

○ 1TV 「제33회 KBS국악대경연 결선연주회」

- 이날 방송된 'KBS국악대경연 결선연주회'를 너무 재미있게 시청했다. 이렇게 좋은 연주회는 일 년에 한번만 개최할 것이 아니라, 상반기와 하반기 혹은 여름과 겨울로 나눠 두 번 개최해주기 바란다. <11월 16일 보고서>

○ 1TV 「이슈 픽 쌤과 함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이 땅에 평화는 불가능한가'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의 원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이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이 땅에 평화는 불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강연을 들어보니 쉽게 이해가 되었고, 모르는 부분을 알게 되니 큰 감동이 밀려왔다. 유익한 방송을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11월 21일 보고서>

○ 2TV 「지구촌 뉴스」

- 간밤에 전 세계에서 일어난 뉴스와 각종 사건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매일 오전 챙겨본다. 주요 이슈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넓은 세계 속 다양한 사람들의 다채로운 이야기도 들려주어 유익함과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다. 계속해서 시청자와 지구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1월 10일 보고서>

○ 2TV 「세컨 하우스」

- 시골에 방치된 빈집을 연예인들이 직접 리모델링해서 살아보는 프로그램이다. 본인도 시골에 빈집이 있어 관심 있게 시청하게 됐다. 현재 우리나라에 빈집이 151만여 채라고 하던데, 낡은 집을 고쳐 새로운 집으로 되살리는 콘셉트가 유익하다. 좋은 메시지를 담고 있으니, 추후 종영이 되더라도 시즌2, 시즌3으로 해당 프로그램이 지속되길 바란다. <1월 19일 보고서>

○ 2TV 「KBS 설 대기행 송골매 콘서트<40년만의 비행>」

- 전설의 록그룹 '송골매'가 해당 방송을 통해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사했다. 그간 대부분의 음악 방송들이 K팝과 트로트에 쏠려, 중장년층 남성 시청자들이 즐길만한 음악 프로그램이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날 모처럼 록(Rock) 음악을 감상하며 젊은 시절이 떠올라 앤도르핀이 샘솟는 기분이었다. 수준 높은 콘서트로 좋은 에너지를 선사해주어 감사하다. <1월 25일 보고서>

○ 2TV 「설 기획 2TV 생생정보」 '설 기획 가격파괴Why'

- 알찬 정보와 함께 웃음과 감동을 선사해주어 매일 저녁 시청한다. 이날 '가격파괴 Why' 코너에서 1인당 9,9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호텔런치뷔페를 소개해주어 관심이 갔다. 저렴한 물건을 판매하는 업체부터 전국 각지의 맛집 정보 등 시청자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정보를 제공해주어 너무 감사하다. 계속해서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발 빠르게 담아주길 바란다. <1월 26일 보고서>

○ 2TV 「통합뉴스룸 ET」 '호모 이코노미쿠스'

- 나이가 들수록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이날 '호모 이코노미쿠스' 코너에 실버타운 전문 유튜버 문성택, 유영란 씨가 출연해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제공해주어 주의 깊게 시청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나라에서 실버타운을 벤치마킹한 고령자복지주택에 대한 정보가 유익했다.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다뤄주어 감사하다. <2월 6일 보고서>

○ 2TV 「촌스럽게 여기도 안 와봤어?」

- 4명의 출연자가 각자의 MBTI 유형에 따라 보여주는 4색의 여행 스타일을 담은 파일럿 프로그램이다. 지난 1월에 방송되었던 시즌1도 재미있게 시청했는데, 울산 여행의 생생한 모습이 담긴 이번 편도 재미있게 시청했다. 바쁜 현대인들은 언제나 훌쩍 떠나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지역 여행을 편하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소개되어 유익했다. <2월 6일 보고서>

○ 2TV 「배틀트립 2」‘뜨끈뜨끈 국내 온천 여행’

- 스타들이 직접 발로 뛰어 만드는 최적의 여행 코스를 전달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여행할 때 참고하면 좋을 실속 있는 여행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즐겨 시청한다. 이날 김지민 씨 황보라 씨가 ‘뜨끈뜨끈 국내 온천 여행’을 주제로 경상북도 성주로 떠났다. 국내의 좋은 여행지를 알게 되어 너무 좋았고, 기회가 된다면 이날 보여준 여행 코스대로 여행을 해보고 싶다. <2월 21일 보고서>

○ 2TV 「생활의 발견 스페셜」

- 생활에 필요한 알찬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즐겨 시청한다. 이날 육회와 연어 무한리필 식당이 소개되었는데 관심이 가는 정보라 유심히 시청했다. 가족들의 생일에 방문하기 좋은 다양한 식당 정보들을 제공해주어 감사하다. <4월 27일 보고서>

○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 본인은 1인 가구 시청자이다. 해당 방송은 훈훈한 가족애가 느껴져, 본인처럼 혼자 사는 사람들은 대리 만족을 느낄 것이고 가족 단위의 시청자들은 공감하며 시청할 것 같다. 특히 축구선수 박주호 씨의 자녀들이 사랑스럽고 예쁘다.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단란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어 감사하다. <5월 2일 보고서>

○ 2TV 「해 볼만한 아침 M&W」

- 방송을 시작하며 진행자들이「해 볼만한 아침 M&W」가 1주년을 맞이했다고 전해주었다. 본인은 평소 해당 방송을 매우 유익하게 시청하는 시청자라 축하하는 마음이 들었다. 특히 경제 소식과 국제 뉴스를 전해주는 코너가 굉장히 알차다. 좋은 방송으로 활기찬 아침을 선사해주어 감사하다. <5월 10일 보고서>

○ 2TV 「노머니 노아트」

- 이날은 ‘흑과 백’ 특집으로 진행됐다. 서민들은 미술 경매에 참여할 기회가 잘 없는데, 방송을 통해 경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 수 있어 흥미로웠다. 또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었을 젊은 예술가들에게 기회와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익한 프로그램인 것 같다. <5월 15일 보고서>

○ 2TV 「2TV 생생정보」‘생생현장 - 안심 먹거리 고르는 법’

- 봄이 되면서 꽃게철이 돌아왔는데, 이날 방송에서 올해 꽃게가 풍년이라는 즐거운 소식을 전해주었다. 인천수협연안공판장과 전북 군산시의 게장 집을 소개했는데, 무엇보다 위생에 철저한 점이 보기 좋아 주문하려 한다. 시청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소개해주어 감사하다. <5월 19일 보고서>

○ 2TV 「마이 리틀 히어로」

- 가수이자 사람 임영웅을 대중에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임영웅 씨의 팬으로서 굉장히 재미있게 시청했다. 평소 방송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닌, 일상에서의 솔직담백한 모습을 볼 수 있어 좋았다. 5부작으로 제작되었다는데, 향후 음악적인 부분도 많이 다뤄졌으면 좋겠다. <5월 30일 보고서>

○ 2TV 「불후의 명곡」‘2023 KBS 아나운서 선후배 대항전’

- ‘2023 KBS 아나운서 선후배 대항전’이 펼쳐졌다. 매년 노래를 잘하는 가수들이 출연해 멋진 무대를 보여주긴 했지만, 이번 특집은 노래 실력만이 아니라 끼까지 출중한 아나운서들이 출연했기 때문에 가히 최고의 방송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시청 내내 행복했고 감동이었다. 추후 아나운서 특집 2탄도 기대하겠다. <6월 13일 보고서>

○ 2TV 「배틀트립 2」‘경상북도 포항’

- 평소 국내여행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시청자이다. 마침 포항 여행을 계획 중이었는데, 이날따라 경상북도 포항이 소개돼 반가운 마음으로 시청했다. 특히 포항의 여러 맛집이 소개돼 너무 유익했다. <7월 4일 보고서>

○ 2TV 「맛의 나라」‘김치의 나라 1부’

- 이날 첫 방송된 미식 다큐멘터리를 너무 재미있게 시청했다. 김치를 다뤘는데 다양한 음식들이 소개되어 흥미로웠다. 특히 신안군의 ‘낙지 김치’가 굉장히 맛있어보였고 호기심을 자극했다. 방송 잘 시청했다. 감사하다. <9월 13일 보고서>

○ 2TV 「아주 사적인 여행」

- 간단에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발견한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존재하는 살아있는 역사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 콘셉트인데, 항상 비슷비슷한 포맷에 지쳤던 시청자로서 이런 신선한 콘셉트가 반가웠다. 공영방송의 이미지에 최신 트렌드를 접목시킨 방송이라 칭찬하고 싶다. 우리 역사를 쉽게 알려주어 감사하다. <9월 22일 보고서>

○ 2TV 「김연자 진성 <한가위 빅쇼>」

- 추석을 맞아 트로트 가수 김연자 씨와 진성 씨가 함께 꾸미는 특집 공연이 편성됐다. 본인은 평소 트로트를 좋아하는 편이 아님에도, 해당 방송 덕분에 신명나는 명절을 보낼 수 있었다. 또한 KBS홀만의 즐거운 분위기도 느껴져 기분이 좋았다. 두 거장이 선사하는 감동의 무대 잘 시청했다. <10월 4일 보고서>

○ 2TV 「골든 걸스」[첫 회]

- 이날 첫 방송된 「골든 걸스」를 재미있게 시청했다. 국내 최정상의 네 명의 보컬리스트들이 프로듀서 박진영 씨의 프로듀싱과 함께 그룹으로 컴백하는 여정을 그린다고 하는데, 독특한 콘셉트로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생겨 기쁘다. 앞으로 재미있는 방송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10월 30일 보고서>

○ 2TV 「더 시즌즈-악뮤의 오날오밤」

- 47년의 인생을 사는 동안 KBS를 사랑해온 시청자이다. 「유희열의 스케치북」이 폐지된 후 「더 시즌즈」로 아쉬움을 달래는데, ‘유스케’와 색다른 매력이 있고 더 신선한 것 같다. 특히 이번에 진행을 맡은 이찬혁 씨과 이수현 씨의 호흡이 너무 좋다. 매주 금요일마다 감동과 재미를 선사해주어 감사하다. 장수 프로그램이 되길 바란다. <11월 21일 보고서>

○ 2TV 「2TV 생생정보」‘생생현장 - 세계로 뻗어가는 K-푸드, 김치’

- 나이가 많아서 김치를 담지 못하는데, 이날 전라남도 장성 김치를 소개해주어 유익하게 시청했다. 방송을 통해 보니 맛있게 잘 담근 김치인 것 같아 믿고 주문하려고 한다. 감사하다. <11월 29일 보고서>

○ 2TV 「개그 콘서트」

- 다시 「개그 콘서트」를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이날 방송을 시청하는 동안 여러 차례 소리 내어 웃었다. 예전보다 늦은 시간에 편성되어서인지, 이전엔 순한 맛이였다면 수위가 살짝 올라간 느낌이 들었다. 소재 또한

더욱 풍성해진 것 같다. 앞으로 해당 방송에서 더 다양한 개그맨들을 볼 수 있었으면 한다. <12월 12일 보고서>

○ 2TV 「홍김동전」

- 멤버 간 케미가 너무 좋아서 웃으며 시청한다. 홍진경 씨가 다양한 변신으로 항상 새로움을 주는 점, 조세호 씨가 좋은 말과 겸손함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점, 김숙 씨와 주우재 씨의 개그감과 착한 모습 등 너무 보기 좋다. 제작진 분들에게도 감사하다. 재미에 비해 시청률이 저조해 안타깝다. 2024년에는 시청률도 오르길 기원한다. <12월 14일 보고서>

○ 2TV 「2023 KBS 연예대상」

- 올해 연예대상 굉장히 훈훈했고, 제작진이 신경 써서 잘 제작한 것 같다. 재미있고 센스 있게 잘 만들어주어 감사하다. 31일에 방송될 「2023 KBS 연기대상」도 기대가 된다. 문자투표도 참여하며 재미있게 시청하겠다. <12월 26일 보고서>

○ 1R 「홍사훈의 경제쇼」

- 평소 홍사훈 기자의 진행 능력을 높게 평가해서 해당 방송을 열심히 청취한다. 경제전문가들이 출연해 경제 각 분야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점이 매우 유익하다. 덕분에 청취자들은 큰 도움을 받고 있고, 때론 희망을 얻기도 한다. 매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작진과 진행자에게 감사인사를 전한다. <1월 2일 보고서>

○ 1R 「희망충전 대한민국」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와 함께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를 위한 기금 모금과 정기 후원 독려 캠페인을 연중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라디오를 청취하다 보면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 본인도 ARS를 이용해 기부에 동참했다. 가난과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도울 수 있어 뿌듯하다. 좋은 취지의 방송을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1월 18일 보고서>

○ 1R 「라디오 전국일주」

- 각 지역에 관련된 간략한 뉴스 및 다양한 지역 소식들을 들을 수 있어 즐겨 청취한다. 특히 한파가 이어지는 요즘 같은 때 전국의 날씨와 교통 상황 등을 알려주어 유익하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해주는 점도 좋다. 앞으로도 각 지역의 소식을 전국으로 전달해서 지역 방송 활성화에 기여해주기 바란다. <2월 2일 보고서>

○ 1R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 한 주 동안의 사건·사고를 정리해주고, 사회 트렌드에 대한 심층취재를 통해 깊이 있는 뉴스를 전해주는 주말마다 청취한다. 덕분에 시사와 경제, 인문, 역사,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상식을 얻을 수 있어 매우 유익하다. 이날 좋은 책을 소개해주어 구매하려고 한다. 늘 도움이 되는 방송을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2월 7일 보고서>

○ 1R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 경제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주어 즐겨 청취한다. 김방희 씨의 좋은 진행과, 청취자들의 문의에 친절하게 답변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어려운 경제를 쉽고 명확하게 다루는 제작진도 칭찬하고 싶다. 계속해서 오전 출근길의 직장인과 소상공인, 주부에게 도움이 되는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2월 22

일 보고서>

○ 1R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만나고 싶었습니다 : KBS 공사창립 50주년 기획'

- 한 주 동안의 사건·사고를 정리해주고 깊이 있는 뉴스를 전해주어 주말마다 청취한다. 이날 2부에 역사 스토리텔러 썬 김 씨가 출연해 '튀르키예 대지진과 아나톨리아 반도의 주인들'이라는 주제를 다뤄주어 큰 도움이 됐다. 다양한 분야의 상식을 얻을 수 있도록 매번 유익한 방송을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3월 6일 보고서>

○ 1R 「라디오 전국일주」'KBS 지역국 연결'

- 이날 방송에서 독도명예주민 10만 명 돌파가 임박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본인도 이번 주 금요일에 울릉도에 방문할 예정인데, 독도명예주민증을 발급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울릉도나 독도에 방문할 계획이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정보 같다. <3월 30일 보고서>

○ 1R 「경제세미나」

- 자녀와 함께 해당 방송을 청취하는 청취자이다.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대해 정보를 전달해주어 매회 유익하게 청취한다. 특히 제작진이 청취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잘 인지하고 있는 것 같다. 도움이 되는 방송을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5월 2일 보고서>

○ 1R 「주진우 라이브」

- 공영방송 KBS로 인해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청취자이다. 온종일 KBS 1라디오를 청취하는데, 그중에서도 「주진우 라이브」를 애청한다. 본인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라 해당 방송 덕분에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알 수 있다. 계속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5월 17일 보고서>

○ 1R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 집안일을 하며 청취하는 주부 청취자이다. 경제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주어 꼭 챙겨 듣는다. 이날 물가상승률에 대해 다뤘는데 주부들에게 특히 유익했다. 계속해서 청취자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6월 8일 보고서>

○ 1R 「낮은 목소리-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 39년째 경비 일을 하고 있으며, 매일 1라디오를 청취한다. 며칠 전부터 「낮은 목소리-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라는 프로그램을 듣게 되었다. 짧지만 강렬한 울림이 있었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기회가 된다면 본인도 출연하고 싶다. <6월 12일 보고서>

○ 1R 「바른말 고운말」

- 2분 남짓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말을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아침마다 청취하며 바른말을 익힐 수 있어 제작진과 진행자에게 늘 감사한 마음이다. 청취자들의 일상에 도움을 주는 KBS에 찬사를 보낸다. <7월 21일 보고서>

○ 1R 「라디오 연중기획 내마음의 동요」

- 짧은 시간동안 동요를 틀어주는데,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라서 너무 좋았다. 개인적으로 찾아보니 KBS미디어에서 발매했던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에게'라는 음반에 수록되었던 곡이었다. 평소 동요를 중

아해서 즐겁게 잘 청취했다. <9월 14일 보고서>

○ 1R 「강유정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 KBS 라디오를 항상 잘 듣고 있다. 이날 해당 방송에서 일레인 아론의 '타인보다 더 민감한 사람'이라는 책을 소개했는데, 내용이 좋아서 구매를 결정했다. 늘 좋은 책과 영화를 소개해주어 감사하다. 계속해서 책과 영화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기 바란다. <9월 18일 보고서>

○ 2R 「김혜영과 함께」

- 톱툰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남기기도 하면서 즐겨 청취한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점심을 먹은 후 나른한 시간인데, 늘 흥겨운 방송으로 청취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해주는 제작진과 진행자에게 감사하다. 계속해서 좋은 음악과 이야기로 청취자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해주기 바란다. <1월 5일 보고서>

○ 2R 「박명수의 라디오쇼 8주년 특집 <팔팔한 박명수 팔팔한 라디오쇼>」

- 점심시간마다 재미있게 청취하고 있다. 요일마다 다른 코너가 준비되어 있어 지루할 틈이 없고, 각계각층의 인물들이 게스트로 출연하는 점도 흥미진진하다. 박명수 씨의 재치 있는 진행도 방송에 재미를 더한다. 8주년 축하하고, 늘 즐거움을 주고 도움이 되는 방송을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1월 5일 보고서>

○ 2R 「스윗 드라이브 인호진입니다」

- 지친 오후에 위안을 주는 방송이다. 진행자 인호진 씨의 따뜻하고 감미로운 진행이 방송에 품격을 더한다. 좋은 음악들이 많이 소개되는 점도 마음에 든다. 앞으로도 차분한 진행과 오후 시간대에 적절하게 어우러지는 선곡으로 청취자들의 오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기 바란다. <1월 16일 보고서>

○ 2R 「이각경의 해피타임 4시」

- 매일 오후 4시에 해당 방송을 청취한다. 청취자들이 좋아할만한 익숙한 가요 위주로 선곡해주는 점과, 생생한 사연들을 들을 수 있어 재미있고 즐거운 오후를 보내고 있다. 늘 유쾌한 방송을 제작해주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오랜 친구 같은 방송으로 청취자들과 함께해주기 바란다. <2월 3일 보고서>

○ 2R 「주현미의 러브레터」

- 80대 청취자이다. 주현미 씨 팬이라서 해당 방송을 빠짐없이 애청한다. 고령층 청취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곡을 많이 선곡해주어 감사하다. 앞으로 사연, 신청곡을 보내는 등 방송에 참여하며 열심히 청취하겠다. <5월 12일 보고서>

○ 2R 「김태훈의 프리웨이」

- 부산에 거주하는 청취자이다. KBS 라디오를 굉장히 좋아하며, 특히「김태훈의 프리웨이」가 너무 재미있어 매일 오전 꼭 청취한다. 이날은 방송을 청취하던 중 사연도 보냈다. 앞으로도 방송과 소통하며 열심히 청취하겠다. <6월 2일 보고서>

○ 3R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 시니어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많이 주어서 즐겨 청취한다. 좋은 노래도 많이 들려주고, 진행자 이지연 씨가 청취자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점이 마음에 들어 재미있게 잘 듣고 있다. 앞으로도 시니어들의 자기개발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송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1월 9일 보고서>

○ 3R 「명사들의 책읽기」

- 명사들이 감명 깊게 읽은 책을 직접 이야기함으로써 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프로그램이다. 일요 일마다 유익하게 청취하고 있다. 지난주에 소개되었던 문묘한 정신과 전문의의 '나는 왜 나를 함부로 대할까'라는 책도 구입해 읽을 예정이다. 공영방송에서 책을 통해 지식과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좋은 방송을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1월 10일 보고서>

○ 3R 「KBS 오디오북-최고의 클립」

- 다양한 신간과 베스트셀러, 고전 등을 짧은 오디오북 클립으로 발췌해 성우들이 읽어주는 프로그램이다. 성우들의 연기에 푹 빠져 늘 애청하고 있다. 짧은 시간임에도 한 권의 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큼 함축적이고 유익하다. 청취자들이 책에 보다 가깝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좋은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2월 9일 보고서>

○ 3R 「건강 365」

- 날마다 해당 방송을 청취하는 애청자이다. 각 분야의 전문의가 출연해 각종 의학 정보를 제공해주는 덕분에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 진행을 맡은 최윤경 아나운서가 매끄러운 진행으로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잘해주어 매우 만족스럽다. 늘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의학 정보를 전달해주는 제작진과 진행자에게 감사인사를 전한다. <2월 23일 보고서>

○ 3R 「오늘의신문」

- 국내 주요일간지 조간을 통틀어 중요한 뉴스와 시사, 교양 등 다양한 정보를 낭독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시각 장애인을 비롯하여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환자들은 신문을 읽기가 어렵다. 그런데 해당 방송에서 매일 오전 신문을 낭독해주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사회 소외계층 청취자들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기 바란다. <2월 27일 보고서>

○ 3R 「강원래의 노래선물」

- 7080가요부터 최신가요까지 다양한 음악을 들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진행자 강원래 씨의 유쾌한 진행을 좋아하고, 요일별로 다른 게스트들이 전하는 정보도 유익해 즐겨 청취한다. 이제까지는 청취만 했는데, 앞으로는 사연과 신청곡도 보내며 방송과 소통하고 싶다. 계속해서 즐거운 방송으로 청취자들의 오후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바란다. <2월 28일 보고서>

○ 3R 「내일은 푸른하늘」

-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얼마 전 방송에서 프랑스에서 열린 '제10회 국제장애인 기능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단이 7연패를 달성했다는 소식이 참 감동적이었다. KBS에서 장애인 문제에 진지하게 접근해주어 감사하다. <4월 10일 보고서>

○ 1FM 「명연주 명음반」

-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마이너 레이블의 음반을 포함해, 녹음 예술로서 가치를 인정받을만한 음반들을 중심으로 선곡해주어 애청하고 있다. 문화사적인 배경, 또는 음반과 연주자에 얽힌 에피소드 등을 들려주는 점도 흥미롭다. 늘 좋은 선곡으로 청취자들에게 기분 좋은 시간을 선사해주어 감사하다. <1월 6일 보고서>

○ 1FM 「당신의 밤과 음악」

- 편안한 음악과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심야시간대 라디오 방송으로 오랜 기간 밤마다 청취 중이다. 해당 방송은 KBS 클래식FM의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 어느덧 40주년을 맞이했다고 한다. 이를 기념하는 의미로 밤을 주제로 한 세 가지 테마의 선곡집 '기다리고 있었습니다'가 발매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40주년 축하하고 해당 음반도 구매하겠다. <1월 10일 보고서>

○ 1FM 「김미숙의 가정음악」

- 이날 베토벤과 요하네스 브람스의 곡 등 선곡이 너무 좋아서 기분 좋게 청취했다. 청취자들이 매일 아침 좋은 음악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선곡에 신경써주는 제작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음악뿐 아니라 영화와 재즈, 에세이까지 소개해주어 다방면에서 상식을 넓힐 수 있어 유익하다. 늘 감미로운 방송을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2월 1일 보고서>

○ 1FM 「국악의 향기」

- 새벽 시간에 맑고 청아한 우리음악과 잔잔한 이야기를 들려주어 자주 청취한다. 우리 음악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뒤, 그 음악을 들려주기 때문에 이해가 쉽다. 그뿐 아니라 옛글의 원문을 소개하고, 거기에 어울리는 우리음악을 알려주기도 해서 흥미롭다.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에 좋은 방송을 들려주어 감사하다. <2월 6일 보고서>

○ 1FM 「FM 풍류마을」

- KBS 1FM을 사랑하는 청취자이다. 해당 프로그램의 '풍류, 오늘을 거닐다'라는 코너에서 책 소개를 해주는데, 좋은 내용이 많아서 찾아보곤 한다. 늘 좋은 방송을 들려주어 감사하다. <3월 24일 보고서>

○ 1FM 「노래의 날개 위에」

- 홍소연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노래의 날개 위에」의 애청자이다. 이날 방송 마지막에 소개된 'Dank sei dir Herr (감사의 노래)'라는 곡이 너무 좋아 메모했다. 늘 좋은 선곡과 방송에 감사하다. <4월 6일 보고서>

○ 1FM 「KBS 음악실」

- 음악계의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전달해주어 즐겨 청취한다. 늘 선곡이 좋은 편인데, 이날 바이올린과 비올라의 연주를 들려주었는데 굉장히 좋아서 즐겁게 감상했다. 계속해서 좋은 연주를 많이 소개해주기 바란다. <6월 28일 보고서>

○ 1FM 「윤유선의 가정음악」

- 해당 프로그램의 엄청난 애청자이다. 이날 선곡이 참 좋았고, 특히 'Bob Dylan'의 'Blowing in the wind'라는 곡이 너무 좋았다. 늘 선곡이 좋아 잘 청취하고 있다. <12월 8일 보고서>

○ 2FM 「이현우의 음악앨범」

- 음악 프로그램임에도 오늘의 뉴스를 살펴보는 코너부터 남녀의 솔직한 속마음을 톡 터놓고 나눠볼 수 있는 코너까지 다양한 코너들이 준비되어 있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청취한다. 품격 있는 음악 방송으로 청취자들의 감성을 채워주는 제작진과 진행자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고 싶다. <1월 12일 보고서>

○ 2FM 「조정현의 굿모닝팝스」

- 해당 방송으로 영어공부를 한다. 혼자 영어공부를 하는 것이 쉽지 않는데, 매일 정해진 시간에 방송과 함께 하니 능률이 배가 된다. 방송이 유익해 책자도 정기구독을 할 예정이다. 늘 좋은 방송을 제작해주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유익하게 청취하겠다. <2월 13일 보고서>

○ 2FM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 윤정수 씨와 남창희 씨의 재치 있는 입담에 끌려 재미있게 잘 듣고 있다. 선곡도 좋고 청취자들의 사연도 유쾌하다. 앞으로는 흘러간 노래들을 조금 더 선곡해주길 바라며, 계속해서 청취자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8월 10일 보고서>

○ 2FM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 본인이 보이스 피싱을 당했고, 그 사건을 사연으로 작성해 해당 방송에 보냈는데 소개가 되어 고맙다. 본인의 사연을 통해 청취자들이 보이스 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으면 한다. 더불어 이금희 씨의 음성과 진행 실력도 칭찬하고 싶다. 늘 변치 않고 좋은 방송을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8월 18일 보고서>

○ 2FM 「박명수의 라디오쇼」

- 평소 해당 방송을 즐겨듣는 애청자이다. 본인이 퀴즈 푸는 것을 좋아해서 '음악 듣기 평가'라는 코너에 참여하기도 한다. 이날은 당첨까지 되어 더욱 기분이 좋았다. 늘 즐거움을 주고 도움이 되는 방송을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10월 26일 보고서>

○ 한민족1 「세월따라 노래따라」

- 해당 방송의 애청자로, 시대적 감성을 좋은 음악과 함께 전해주는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이른 시간 대 편성으로 청취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본방송은 물론 재방송까지 챙겨 듣고 있다. 원석현 아나운서의 차분한 진행도 새벽 시간과 잘 어우러진다. 따뜻하고 다정다감한 방송으로 오래도록 청취자들과 함께 하길 바란다. <1월 11일 보고서>

○ 한민족1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 역사에 관심이 많은 청취자이다. 해당 방송은 중국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 역사로 만들기 위해 2002년부터 중국이 추진한 '동북공정'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유익한 점이 많아 꾸준히 청취한다. 청취자들에게 역사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선사해주어 감사하다. <2월 14일 보고서>

○ 한민족1 「문화 공감」

- 온종일 KBS 라디오를 청취하는 애청자이다. 해당 방송은 문화와 예술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제공해주어 즐겨 듣는다. 매회 좋은 내용들이 다뤄지지만, 얼마 전 정리정돈을 잘 하는 방법을 다뤘는데 무척 도움이 됐다. 감사하다. <8월 11일 보고서>

| 8. 표현(소재) |

○ 1TV 「자연의 철학자들」‘하늘을 지붕 삼아’

- 자연의 이끌림을 따라다니며 완벽한 자유를 느낀다는 배우이자 캠퍼인 조화영 씨의 철학을 들어보았다. 그런데 조화영 씨가 산속에서 불을 피워 체온을 올리고 밥을 해먹는 장면이 방송됐다. 겨울이 되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요즘 같은 때에는 곳곳에 산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산속에서 불 피우는 장면은 가급적이면 방송하지 않길 바란다. <1월 2일 보고서>

○ 1TV 「6시 내고향」‘발길 따라 고향 기행’

- 실속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어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음식이나 지역 특산물 등을 소개할 때 대략적인 가격대도 함께 제공해주었으면 한다. 방송을 시청한 후 방문했을 때 생각보다 금액이 비싸 당황한 경험이 여러 번 있다. 가령 이날 ‘발길 따라 고향 기행’에서 영덕 대게가 소개됐는데 가격대를 알 수 없어 답답했다. 앞으로는 방문에 참고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주기 바란다. <1월 6일 보고서>

○ 1TV 「설 기획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 시대가 변하며 설 풍경도 달라졌다. 이날 옛날과 지금의 설날을 비교했을 때 가장 달라진 ‘세뱃돈’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초등학교 기준 5만 원부터 준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서민경제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적합한 주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세뱃돈은 각자의 생활 수준에 맞게 주는 것이다. 서민들이 위화감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은 자제해주기 바란다. <1월 25일 보고서>

○ 1TV 「설 기획 1020 전국노래자랑」

- 민족 대명절인 설날을 맞아 「설 기획 1020 전국노래자랑」이 방송됐다. ‘1020’ 특집인 만큼 10대와 20대가 주인공이 되어 끼와 재능을 펼쳤는데, 전 국민이 사랑하는 방송에서 연령의 제한을 둔 점이 안타까웠다. 다양한 연령대가 출연했다면 더 재미있었을 것 같고, 진행자 김신영 씨가 해당 프로그램만의 구수한 정감을 살리지 못하는 점도 아쉬웠다. <1월 25일 보고서>

○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먹을래? 줄일래? 굶을래? 밀가루의 맛’

- 밀가루 관련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이다. 이날 성인병을 불러오는 원인으로 밀가루 음식을 지목하며, 밀가루 중독 진단과 줄이는 법, 건강하게 먹는 법을 소개했다. 이렇게 밀가루의 해로움을 주제로 한 방송이 방영될 때마다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타격이 크다. 공영방송의 파급력을 고려해, 모두가 사는 상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주기 바란다. <2월 2일 보고서>

○ 1TV 「남북의 창」

- 남북관계 현안을 분석하고, 북한의 이모저모를 영상과 함께 전해주는 북한 전문 프로그램이다. 이날은 북한과 중국의 트럭 운송 재개와 난방비 쇼크로 더 추운 겨울을 보내는 탈북민 관련 소식 등을 전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새로 출범한 이후 북한 측에서 30여 차례에 가까운 미사일 도발이 있었고, 현재 남북관계가 좋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관련 소식을 접하니 피로도가 쌓이고 불편한 마음이 든다. <2월 6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9」‘7층 건물 한순간에 와르르...튀르키예·시리아 규모 7.8 강진’

- 이날 새벽 튀르키예 동남부에서 강진이 일어났다. 9시 뉴스에서 강진의 여파가 시리아에까지 미치면서 두 나라에서 확인된 사망자가 천 명이 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 본인은 부모님과 함께 시청

중이었는데, 터키의 국호가 바뀐 것을 몰랐기 때문에 튀르키예가 어느 나라일까 의아했다. 아직도 국호가 바뀐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 진행자나 자막을 통해 언급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2월 8일 보고서>

○ 1TV 「특별생방송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절망에서 희망으로」

- KBS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돕기 모금 생방송을 진행했고, 본인도 모금에 동참하고자 방송을 시청했다. 그런데 일단 ARS 번호가 너무 작게 기재돼 고령의 시청자들은 자막을 읽기가 어려웠고, 기부금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어디로 전달되는지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점도 아쉬웠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모금 현황 및 누적 금액을 알려주었더라면 더 많은 기부금이 모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2월 22일 보고서>

○ 1TV 「6시 내고향」'한라산을 닮은 맛있는 한라봉'

- 이날 리포터가 제주 애월에 있는 유난히 맛있는 한라봉 농가를 찾는 장면이 방송됐다. 그 장면을 시청하며 본인도 구매하고 싶어 상담실을 통해 연락처를 문의했으나, 공개된 연락처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방송에 출연한 업체라면 당연히 연락처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하기에 당황스러웠다. 시청자의 편의를 위해 가급적이면 연락처를 공개하는 업체만 소개해주기 바란다. <2월 24일 보고서>

○ 1TV 「동물의 왕국」'새끼 재규어 프리다'

- 세계 일류의 다큐멘터리 제작사들이 제작한 고급 다큐멘터리들을 엄선해 보여주고 있다. KBS에서 직접 제작하는 것이 아니다보니 겹치는 내용이 많아 지루하다. 가령 이날도 재규어를 다뤘는데, 이미「동물의 왕국」에 여러 차례 등장했던 동물이다. 또한 방송 초반에 전 날 마지막 부분과 중복되는 장면을 5분가량 보여주는 점도 아쉽다. <2월 27일 보고서>

○ 1TV 「특집 대담 공영방송 50년 미래를 묻다」

- 2023년은 KBS가 공영방송으로 출범한 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이날 전문가들과 함께 공영방송의 역할과 앞으로 가야할 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았다. 시청자들이 느끼기에 OTT 시대에 KBS가 경쟁에서 앞서가려면 1TV에서는 공정함이, 2TV에선 유쾌함이 더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진단 없는 전문가들의 대답은 탁상공론처럼 느껴져 답답했다. <3월 2일 보고서>

○ 1TV 「공영방송 50주년 기획 가요무대」'2월 신청곡'

- 매달 말에는 시청자들의 신청곡으로 꾸며진다. 이날 방송 역시 신청곡으로 채워졌는데, 다른 날들에 비해 선곡이 좋지 않아 감동이 떨어졌다. 그뿐 아니라 출연자들 또한 사전준비가 덜 된 듯 실력이 부족해 보여 실망스러웠다. 1985년부터 이어오는 가요의 명가답게 제작진들과 출연진 모두 분발하여 조금 더 수준 높은 무대를 선사해주기 바란다. <3월 2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7」'대기업 55% "상반기 신규채용 계획 없거나 미정"'

- '대기업 55% "상반기 신규채용 계획 없거나 미정"' 보도 중 자료화면에 삼성과 LG의 로고가 방송됐다. 그런데 LG 로고가 변경된 지 꽤 됐는데, 바뀌기 전 로고가 사용됐다. 해당 의견이 제작진에게 전달되길 바란다. <3월 9일 보고서>

○ 1TV 「더 라이브」'JMS 정명석, 그는 왜 아직 건재한가?'

- 김도형 단국대 교수가 게스트로 출연해 JMS 정명석 총재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런데 김도형 교수가

“KBS 직원 중에도 신도가 있다.”고 발언하며 설명을 이어가자, 진행자들이 “저희가 시간이.... 죄송합니다.”라며 서둘러 방송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 식구 감싸기로 보여 실망스러웠다. <3월 13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9」'김민재, 대표팀 내 불화설까지...클린스만의 첫 과제는 '원팀'

-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을 위해 뛰는 건 영광이라며 김민재 선수를 겨냥한 듯한 글을 썼다고 보도했다. 손흥민 선수는 A매치 후 항상 팬들에게 감사인사를 해왔는데, 이를 겨냥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서로가 SNS 계정 팔로우를 끊은 흔적까지 포착됐다는 내용도, 김민재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차단해서 팔로우가 끊긴 것이기 때문에 정정이 필요해 보인다. <4월 3일 보고서>

○ 1TV 「시사기획 창」'저출산 40년 다가오는 재앙'

- 저출산 문제를 다뤘다. 현재 우리나라가 인구위기로 심각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이날 방송에서는 저출산이 심각하고, 그로 인해 닥칠 고통스러운 미래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반면 대책은 방송 말미에 조금 다뤄졌을 뿐이다. 저출산 위기보다, 대책 및 외국의 저출산 극복 사례 등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했더라면 더 유익했을 것 같다. <4월 6일 보고서>

○ 1TV 「역사저널 그날」'김재규는 대통령을 꿈꿨나'

-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을 다뤘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범행동기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출연자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을 패륜아로 보는 시각과 민주 의사라고 하는 시각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살인을 저지른 자에게 민주 의사라는 표현은 지나치다. 또 당시를 겪지 않은 젊은 출연자들이 하는 발언에도 신뢰가 가지 않는다. <4월 18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해서 공분을 사고 있다. 무려 3명이 목숨을 잃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힘들어하는데 언론에서는 왜 사기범에게 '빌라왕·건축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왕'이라는 호칭에 상당히 거부 반응을 보이는 시청자들이 많으니, 범죄자들에게 '왕'이라는 표현은 자제해주시기 바란다. <4월 21일 보고서>

○ 1TV 「동물극장 단짝」

- 해당 프로그램에서 동물을 지나치게 의인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개나 고양이를 자식이라고 부르는 등, 동물을 키우지 않는 시청자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다. 부동산 침체, 마약, 자살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쏟아지고 있는데 황금시간대에 동물들이 한가롭게 노는 모습이 보기 불편하다. <4월 24일 보고서>

○ 1TV 「KBS 뉴스광장」'지진 위기경보 '관심' 발령...대형 지진 전조?'

- 시각장애인 시청자이다. 이날 보도 중 '깜깜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라고 해서 사용하지 말자는 문제제기가 있었던 '깜깜이'라는 표현을 아직도 사용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누군가 불편할 여지가 있는 단어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게 해주길 바란다. <4월 27일 보고서>

○ 1TV 「시사 직격」'전세사기의 뒷 - 죽음으로 내몰리는 세입자들'

-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날 그 사건과 관련해 국가와 제도로부

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다뤘다. 그런데 전세 계약 체결 전에 등기부를 보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등을 본인이 살펴야 한다. 또한 주변 시세보다 싸다는 이유 등으로 위험을 감수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니, 피해자의 잘못도 있다. 방송에서 이런 점도 짚어주어야 할 것 같다. <5월 2일 보고서>

○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친절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알쏭달쏭 건강검진표’

- 이날 알쏭달쏭한 건강수치를 제대로 확인하는 법을 알려주었다. 방송 중 콜레스테롤 수치 기준표를 보여줬는데, ‘LDL콜레스테롤’과 ‘HDL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바뀌어 표기됐다. 시청자들이 건강의 지표로 삼을 기준표인 만큼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기 바란다. <5월 8일 보고서>

○ 1TV 「500인 회의」

- 500인의 시민참여단이 모여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새로운 설계를 위해 토론하는 과정을 KBS에서 생중계해서 잘 시청했다. 그런데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의원 정수 축소다.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려면 국회의원 정수가 축소되어야하는데, 이러한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토론이라 유익하지 않았다. <5월 8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9」‘일시정지 의무화에도..또 끔찍한 우회전 사고, 왜?’

- 우회전 사고를 막기 위해 전방 신호등이 빨간 불일 때 우회전 차량도 일시 정지하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한 보도였다. 우회전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이 맞지만, 보행자도 함께 조심해야 한다는 걸 강조해주기 바란다. 또한 우회전하는 공간과 횡단보도 사이의 간격을 조금 더 넓히는 식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5월 15일 보고서>

○ 1TV 「2023 프로축구 K리그」‘울산:서울’

- 2023 프로축구 K리그 울산 대 서울 경기를 시청했다. 그런데 중계 카메라를 높은 곳에 설치했는지, 경기 모습을 계속 폴샷 위주로 잡아서 시청 내내 답답했다. 축구 팬들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이날 원거리 카메라 앵글에 대한 불만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앞으로는 카메라 앵글에 더 신경써주기 바란다. <5월 16일 보고서>

○ 1TV 「시사기획 창」‘같이 삽니다’

- 1년 6개월째 계속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를 조명했다. 본인 또한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하루 평균 7백만 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역에서 시위하며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장애인들의 행동이 좋게 보이지 않는다.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혜택이 있다. 언론에서 장애인의 시위를 너무 조명하지 않았으면 한다. <5월 18일 보고서>

○ 1TV 「KBS 뉴스특보」‘오염수 시찰단 결과 발표’

- 유국희 시찰단장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일본을 방문해 진행한 현장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카메라가 유국희 단장의 모습만 잡을 뿐, 정작 유국희 단장이 브리핑 지시봉으로 가리키는 보드판은 보여주지 않아 답답했다. 자료화면 위주로 잡아주기 바란다. <6월 1일 보고서>

○ 1TV 「KBS 뉴스」‘일기예보’

- 시골에 거주하는 시청자이다. 시골에 거주하면 일기예보 의존도가 높다. 일기예보를 시청한 후 일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일기예보의 정확도가 떨어져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기상청의 예보를 바탕으로 보

도하는 것은 알지만, 언론에서도 놓여준 시청자들을 위해 조금 더 정확한 날씨를 전달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기 바란다. <6월 13일 보고서>

○ 1TV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 중년 여자 스타들의 동거 생활을 담고 있는데, 시청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이다.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한데 이런 방송을 통해 젊은 층이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연예인들이 먹고 노는 프로그램이 아닌, 우리사회가 건강하게 발전될 수 있는 건설적인 프로그램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6월 19일 보고서>

○ 1TV 「특별기획 수신료와 공영방송의 가치」

- KBS가 수신료와 공영방송의 가치를 살펴보는 특별기획을 긴급 편성했다. 주제는 '수신료 분리 징수'였는데, 시청자들이 분리 징수를 찬성하는 이유는 KBS 시사 프로그램들이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제동 씨, 주진우 씨 등에게 고액의 출연료가 지급되는 점에 불편함을 느낀다. 수신료는 납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납부하게끔 되어야 한다. <6월 20일 보고서>

○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혈당 잡고 무더위 이기는 당뇨밥상'

- 슬기롭게 먹으며 당뇨병을 관리하는 방법이 다뤄졌다. 그런데 방송 초반에 홍삼 관련 내용은 협찬을 받아 제작되었다는 자막이 표기됐다. 시청자 입장에서선 순수한 의학지식을 전달하려는 것이 아닌, 광고를 위한 방송으로 해석이 된다. 거의 협찬으로 이뤄지는 타 방송사들과 달라서 KBS만 시청했는데, 신뢰가 떨어진다. <6월 29일 보고서>

○ 1TV 「특별기획 수신료와 공영방송의 가치」

-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KBS는 공적인 업무, 특히 재난방송주관방송사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본인처럼 고령층 시청자들은 유튜브나 OTT로 과감히 옮겨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적절한 대안 없이 수신료 분리 징수를 추진하는 과정이 보기 좋지 않고 안타깝다. <7월 7일 보고서>

○ 1TV 「KBS 뉴스특보」

- 역대급 폭우가 내려 각종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KBS 기자들이 전해주는 소식을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기자들이 재난현장에서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 없이 소식을 전한다. 시청자로서 걱정이 되고 보기 불편하다.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 나간 기자들은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해주기 바란다. <7월 17일 보고서>

○ 1TV 「아침마당」'화요초대석'

- 방송인 장영란 씨가 남편과 함께 출연했다. '화요초대석'은 각계각층의 명망 높은 인사들이 출연해 깊이 있는 인생이야기를 들려줬으면 좋겠는데, 매번 연예인들이 출연해서 사생활 얘기를 하는 점이 아쉽다. 또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부부가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모습이 보기 안 좋았다. <7월 19일 보고서>

○ 1TV 「특집 KBS 뉴스 9」'침수 대피 이렇게'

- 비가 많이 올 때 지하도로를 지나던 중 차량이 침수되었을 때 대피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창문 가장자리를 날카로운 물체로 쳐야한다며 기자가 시범을 보였다. 그런데 영상에선 유리창이 너무 쉽게 깨지는

것으로 표현됐다. 실제로는 그렇게 쉽게 깨지지 않는다. 유리창이 깨지지 않는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등 조금 더 깊고 세밀하게 소개되었으면 유익했을 것 같다. <7월 20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9」‘공항 대기실서 9개월...“난민 심사라도 받고 싶다”’

- 난민 신청 심사를 받지 못해 9개월째 공항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보도를 접했다. 법무부에서는 난민 인정 이유가 없어 난민 신청을 심사하지 않는 것인데, 난민과 변호사의 인터뷰를 통해 난민 측 입장만 다뤄졌다. 난민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많다. 출입국 관계자 측 입장도 함께 다뤄져야 한다. <7월 25일 보고서>

○ 1TV 「KBS 뉴스」‘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 관리 부실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관련 보도가 지나치게 많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뉴스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스스로 국격을 깎는 격이다. 오는 11월에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 투표가 있는데, 이러한 보도들이 부산 엑스포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 또한 잼버리 논란을 현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도 지나치다. <8월 7일 보고서>

○ 1TV 「광복절 기획 역사저널 그날」‘전두환, 히로히토를 만나다’

- 광복절을 맞아 ‘전두환, 히로히토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방송이 진행됐다. 그런데 진행자와 출연자 모두 ‘천황’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시청 내내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일왕을 높여 부르는 반면, 본인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을 아무 호칭 없이 “전두환”으로 언급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는데 지나친 것 같다. <8월 16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7」‘일기예보’

- 인천 시민이다. 인천과 서울은 거리도 멀고, 온도차가 꽤 나는 편이다. 그럼에도 날씨 정보를 제공할 때 인천 지역은 따로 보도하지 않고, 서울과 묶어서 보도한다. 반면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는 거리가 가까워도 매번 따로 보도한다. 인천광역시도 보다 세밀하게 날씨 정보를 제공해주기 바란다. <8월 17일 보고서>

○ 1TV 「일꾼의 탄생」‘전남 완도 동백마을 첫 번째 이야기’

- 일꾼들이 대한민국 다시마 최대 생산지인 금일도를 방문해 어민들을 돕는 모습이 방송됐다. 시청자가 보기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 수입을 창출하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착취당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해당 마을에서는 임금을 지불하고 인부를 쓰면 되는 것이다. 이런 곳보다는 수해 피해지역 등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 <8월 18일 보고서>

○ 1TV 「TV쇼 진품명품」

- 오랜 시청자이다. 유익하면서도 구수하고 정감 있어 「TV쇼 진품명품」을 좋아한다. 그런데 최근 들어 출연자 소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 같다. 그래서 때때로 출연자들이 본인의 홍보를 위해 해당 방송에 출연한 것처럼 보여, 해당 방송만의 특색과 분위기가 흐려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날은 여성 출연자가 노출이 심한 의상을 착용한 점도 보기 안 좋았다. <8월 28일 보고서>

○ 1TV 「TV 비평 시청자 데스크」‘클로즈업 TV’

- 이날 ‘클로즈업 TV’는 KBS 시청자위원회 8월 정례회의 소식을 전해주었다. 시청자 위원들이 회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각자 앞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테이크아웃 컵이 놓여있었다. 요즘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플라스틱 컵은 부적절한 노출인 것 같다. 회의 중 부득이하게 사용을 하더라도 화면에는 노출시키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다. <8월 28일 보고서>

○ 1TV 「국악 한마당」'전북 부안 변산해수욕장 노을광장 특집'

- 이날은 창작 국악곡의 무대를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냥 콘서트를 보는 기분이었다. 제목만 「국악 한마당」이지, 기타와 드럼 등으로 이뤄진 밴드들의 공연이었다. 신선함도 좋지 만, 국악을 감상하기 위해 해당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을 위해 전통 국악 위주로 보여주기 바란다. <9월 18일 보고서>

○ 1TV 「추적 60분」'대통령 취임 500일 - 한가위 민심은 말한다'

- 우리나라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 민심을 들어봤다. 경제가 어렵다는 식으로 방송되었는데, 현재 우리나라 경제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석유값이 폭등하는 등, 많은 나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만 어렵다는 식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9월 25일 보고서>

○ 1TV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다. 현재 2023년인데 2022년으로 표기되어 상담실에 문의했고, 원래 2022년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되었기에 공식 명칭이 바뀌지 않아 2022년으로 표기되었다는 답변을 받았다. 본인처럼 자막이 잘못 표기되었다고 생각할 시청자들이 많을 것 같다. 2022년으로 표기된 이유를 방송 중 설명해주거나, 자막으로 안내해주면 좋을 것 같다. <9월 26일 보고서>

○ 1TV 「공영방송 50주년 대기화 다큐 인사이드」'인간 신세계로부터 - 1부 모나리자'

- '인간 신세계로부터 - 1부 모나리자' 편을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좌측 상단에 적힌 제목을 도저히 알아 볼 수 없다. 어떤 시청자가 저 글자를 '인간'이라고 읽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예술적인 면을 강조했는 지는 몰라도, 자막은 의사전달이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한다. 앞으로는 시청자가 읽기 쉽게 자막을 표기해주기 바란다. <11월 13일 보고서>

○ 1TV 「스크롤 자막」

- KBS 1TV에서 '럼피스킨(소 바이러스성 질병)' 관련 재난방송 스크롤 자막이 지속적으로 표기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축산인들은 곡물가 상승, 한우 가격 하락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지속적인 재난방송 자막은 소비자에 부정적인 인식을 심고, 소비 저하로 이어져 농가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백신 접종으로 상황이 진전되어가니 재난방송 자막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11월 28일 보고서>

○ 2TV 「2022 KBS 연기대상」

- 연말에는 KBS에서 진행하는 각종 시상식을 시청하며 한 해를 마무리한다. 그런데 이번 '연기대상'에서 배우 이승기 씨가 대상을 수상한 점은 다소 의아했다. 「법대로 사랑하라」는 시청률이 높거나 화제성을 몰고 온 드라마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시청률과 완성도 모두 높았던 「태종 이방원」의 주상욱 씨와 공동 대상을 안긴 점이 아쉽다. <1월 3일 보고서>

○ 2TV 「신상 출시 편스토랑」'박수홍'

- 스타들이 직접 만든 메뉴를 공개하면, 그 중 승리한 메뉴가 편의점에서 출시되는 프로그램이다. 스타들

이 유용한 레시피를 많이 공개해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이날은 박수홍 씨 부부의 신혼여행이 큰 비중을 차지해서 요리 예능프로그램인지, 러브스토리를 다루는 예능프로그램인지 알 수 없을 지경이었다. 스타들의 메뉴와 그 메뉴의 레시피에 집중해주기 바란다. <1월 9일 보고서>

○ 2TV 「1박 2일」

- 해당 방송의 홈페이지와 방송이 시작될 때 무지개처럼 보이는 육지개 로고가 표현된다. 남색과 보라색이 합쳐진 육지개는 동성애와 성소수자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다.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국민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로고가 사용된 점이 좋지 않다. 여섯 명의 멤버를 표현한 것일지 모르겠으나, 보기 불편한 시청자들을 위해 수정해주기 바란다. <1월 11일 보고서>

○ 2TV 「걸어서 환장 속으로」 '김승현 가족'

- 김승현 씨 가족의 프랑스 파리 여행 3일 차가 그려졌다. 험난한 여정 탓에 가족들은 신경이 곤두섰고, 끝내 백옥자 씨가 시삼촌 김경중 씨와 신경전을 벌였다. 경제가 어려운데 연예인의 가족들이 큰돈을 들여 해외여행 하는 모습이 보기 안 좋았고, 「살림하는 남자들」에서 익히 봤던 광산 김씨 가족의 신경전도 피로감을 안겼다. <1월 31일 보고서>

○ 2TV 「2TV 생생정보」

- 실생활에 밀접한 정보를 제공해주어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방송이 전반적으로 먹거리 소개에 치우친 것 같아 아쉽다. KBS 프로그램인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는 비만이 건강을 해치는 질병이라고 경고하면서, 정작 KBS 프로그램들 중엔 이른바 '먹방'을 부추기는 콘텐츠가 많다. 음식 외에도 여행, 건강, 살림살이 등 더욱 다양한 소재를 담아주기 바란다. <3월 2일 보고서>

○ 2TV 「옥탑방의 문제아들」

- 「옥탑방의 문제아들」의 프로그램 취지가 변질되어 토크쇼로 변한 것 같다. 그래서 제대로 된 퀴즈를 즐길 여지가 없다. 홍보 차원에서 출연하는 게스트들이 많은데, 홍보보다는 퀴즈를 푸는데 최적화된 게스트들을 섭외해 토크 비중을 줄이고 퀴즈가 주가 되는 방송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3월 21일 보고서>

○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권상혁'

- 먹방 유튜버들이 출연해 대식가 대결을 펼치는 모습이 방송됐다. 필요 이상으로 먹는 것은 결국에는 환경파괴를 불러오기 때문에 공영방송에서 사용할 소재가 아니다. 더구나 무조건 많이 먹으며 서로 경쟁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공영방송에서 먹방을 조장하는 콘텐츠를 제작하지 않길 바란다. <3월 21일 보고서>

○ 2TV 「신상 출시 편스토랑」 '수홍&다홍의 스페셜 건강 밥상'

- 분당에서 시청 중인 시청자이다. 이날 박수홍 씨가 건강검진으로 고생한 고양이를 위해 거대 대구와 대게로 특식을 차려주는 내용이 방송됐다.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하지만 사람도 쉽게 먹지 못하는 값비싼 식재료를 고양이에게 먹이는 게 보기 불편했다. 개인적으로 먹이는 것까지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굳이 방송에서 저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4월 10일 보고서>

○ 2TV 「신상출시 편스토랑」

- 해당 방송을 늘 즐겨 시청해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출연자들이 오직 맛을 위해 설탕을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 같다. 고혈압, 당뇨 등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비만인데, 거리낌 없이 설탕을 사용하는 모습이 보기

불편하다.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연구해서 소개해주기 바란다. <5월 18일 보고서>

○ 2TV 「노머니 노아트」

- 신진 작가들에게 재능을 선보일 기회를 제공하는 '아트 버라이어티쇼'이다. 그런데 시청자들이 「노머니 노아트」라는 제목을 들었을 때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도저히 감을 잡기 어려웠다.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제목을 지어주기 바란다. <5월 22일 보고서>

○ 2TV 「마이 리틀 히어로」

- 가수 임영웅 씨의 LA 여행을 담은 5부작 프로그램이다. 타 방송사의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가 된 경우로, 특정 팬덤이 있을 뿐이지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거나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 아니다.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에서 임영웅 씨 하나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할 것까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많은 시청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송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5월 31일 보고서>

○ 2TV 「과학수사대 스모킹 건」

- 과학수사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경각심을 주고, 과학수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방송이라는 것은 알겠다. 그러나 범죄 장면 및 수법 등을 너무 생생하게 알려주니 모방범죄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 전 연령층이 시청할 수 있는 공영방송인 만큼 파급력을 고려해 자극적인 장면이나 내용은 자제해주기 바란다. <6월 2일 보고서>

○ 2TV 「1박 2일」

- 멤버들이 전통시장을 찾아 옛날과자를 구매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한 상인이 옛날과자 1.5kg을 7만원에 판매하는 장면이 방송됐는데, 상인의 말과 달리 저울에 표기된 가격은 100g에 4,499원으로 책정돼 있었다. 7만원이라는 금액은 일반적인 가격대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시청자 입장에서선 제작진이 미리 상인을 섭외해 연출된 장면처럼 여겨졌다. <6월 7일 보고서>

○ 2TV 「가요대축제」

- K팝 가수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진행하는 「가요대축제」를 올해는 일본에서 개최한다는 기사를 접했다. 공영방송의 연말시상식을 왜 일본에서 개최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일본 오염수 방류로 국민감정이 좋지 않은 시기라 더욱 당황스럽다. 일본 개최를 철회해주기 바란다. <6월 20일 보고서>

○ 2TV 「해 볼만한 아침 M&W」 '무너진 교권?! 지금 우리 학교는?'

- 최근 발생한 교사의 죽음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다. 이날 방송에서도 교권이 무너진 이유를 학생과 학부모 탓을 했다. 반대로 교사 자격 없는 선생님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학생도 많다. 학생과 학부모 입장이 다뤄지지 않아 아쉽다. <7월 27일 보고서>

○ 2TV 「2TV 생생정보」 '대물을 찾아라!'

- '대물을 찾아라!' 코너에서 도라지 중에서도 귀하다는 먹도라지를 채취하는 과정을 보여줬다. 요즘 등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들이 등산만 하지 않고 각종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해당 코너에선 산에서 귀한 약초를 채취하는 장면을 자주 보여주는데, 이런 방송 때문에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등산객들이 많아질까 우려된다. <9월 11일 보고서>

○ 2TV 「2TV 생생정보」‘믿고 떠나는 스타의 고장’

- ‘믿고 떠나는 스타의 고장’에서 120여 년이 된 고택 한정식 집을 소개했다. 그런데 장독을 열어 무장아찌를 꺼내는 장면에서 구더기가 보였다. 맛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에서 이런 장면은 해당 한정식 주인과 시청자 모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식사 시간 대 방송이기에 불편함이 더 심했다. 사전 심의를 꼼꼼하게 진행해주기 바란다. <10월 18일 보고서>

○ 2TV 「개는 훌륭하다」

- 반려견의 이상 행동을 교정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시청하다보면 틈틈이 자극적인 영상이나 사진이 방송되어 놀랄 때가 많다. 이날도 함께 키우는 강아지들이 서로를 공격해 죽을 위기의 상처를 내는 영상 및 피투성이 사진 등을 보여줘서 무섭고 불편했다.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잔인한 영상 혹은 사진은 자체해 주기 바란다. <10월 25일 보고서>

○ 2TV 「개그 콘서트」‘니통의 인간극장’

- 이날 ‘니통의 인간극장’ 코너에서 시어머니가 외국인 며느리에게 “너 이번에 친정 보내주기로 한 거 그거 취소다.”라고 발언하는 장면을 보았다. 며느리가 친정에 가는 것으로 협박하는 것으로 여겨져 불편했다. 2023년의 웃음 코드와 지양해야 할 부분, 지향해야 할 부분을 고려해주기 바란다. <12월 6일 보고서>

○ 2TV 「2023 뮤직뱅크 글로벌 페스티벌」

- 시상식 제도 없이 진행되니 긴장감이 떨어지고 지루하게 느껴졌다. 내년부터는 케이팝뿐 아니라 발라드, 트로트, 인디밴드, 힙합 등 장르를 다양하게 나눠, 장르별로 시상식을 진행해주었으면 한다. <12월 18일 보고서>

○ 1R 「KBS 열린토론」

- 옛날 KBS가 가장 좋았던 시절의 라디오 방송을 기억하는 청취자이다. 최근에는 정치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이 생겨났고, 매일 비슷비슷한 주제로 끝없이 정치 이야기를 하니 지치고 식상하다. 「KBS 열린토론」에서도 정치에만 편중되지 말고, 청취자의 입장에서 청취자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주제를 다뤄주었으면 한다. <4월 6일 보고서>

○ 1R 「스포츠 스포츠」‘스트라이크 존’

- 월요일에 ‘스트라이크 존’ 코너에서 프로야구 소식을 전한다. 그런데 아무래도 인기팀 위주로 내용이 구성된다. KBS는 공영방송이므로 인기팀 위주의 방송은 지양해야 한다. 모든 팀을 폭 넓고 균형감 있게 다뤄주기 바란다. <5월 24일 보고서>

○ 1R 「오늘 아침 1라디오」

- 농어촌 소식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어른의 성장법’ 코너에 정신과전문의가 출연했다. 3라디오 「건강 365」라는 아침 프로그램에서 매일 오전 50분가량 의사들이 출연해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내용이 겹친다. 겹치는 내용이 최대한 없도록 프로그램 별 특색을 살려 제작해주기 바란다. <6월 16일 보고서>

○ 1R 「낮은 목소리-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 KBS 라디오를 매일 청취하는 청취자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서민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송인데, 왜

‘낮은 목소리’라고 표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등의 직함을 가진 사람의 목소리는 ‘높은 목소리’인지 반문하고 싶다. <8월 25일 보고서>

○ 1R 「뉴스브런치」 「브런치 초대석」

- 시각장애인 청취자이며 해당 프로그램을 즐겨 청취한다. 이날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 이야기 나눴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 본인은 후천적으로 눈을 다쳤는데, 밖에 나오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 사회생활이 힘들다.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지 말고, 은둔형 외톨이들이 왜 집밖으로 나오기 힘든지에 대한 원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뤄주면 좋을 것 같다. <12월 11일 보고서>

○ 2R 「김태훈의 프리웨이」

- 선곡에 대한 건의를 하고 싶다. 해당 방송에서 소개하는 곡 대부분이 팝송이라 획일적이고, 그마저도 너무 전문적이다. 다양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친숙한 곡들도 선곡해주었으면 한다. 또한 팝송에 국한하지 말고 상송을 비롯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소개해주기 바란다. <3월 14일 보고서>

○ 2R 「이상호의 드림팝」

- 몇 년 동안 해당 방송을 청취해왔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의 잠을 자기보다는 일을 하는 시간이다. 기존에는 밝고 경쾌한 곡 위주로 선곡되었었는데, 최근 들어 조용한 곡 위주로만 선곡이 되다보니 차분하다 못해 하품이 나올 지경이다. 분위기가 너무 다운되지 않도록 조용한 곡과 경쾌한 곡을 적절히 섞어서 선곡해주기 바란다. <3월 23일 보고서>

○ 1FM 「FM 실황음악」

- 클래식 음악을 좋아한다. 특히 KBS 1FM에 질 높은 방송이 많아 늘 애청한다. 이날 ‘디타 로만 첼로 리사이틀’을 들려주었다. 해당 방송은 저녁 시간대 방송으로 대부분의 청취자들이 하루를 마감하며 잠자리에서 듣는 경우가 많은데, 박수소리 등 소음이 많아 잠을 청할 수 없었다. 아무리 실황이지만, 그래도 편성 시간을 고려해 선곡에 신경써주기 바란다. <3월 15일 보고서>

○ 1FM 「출발 FM과 함께」

- 수십 년간 출근길에 KBS 1FM을 애청해왔다. 해당 방송은 오전 출근 시간대 방송인데, 조용하고 서정적인 곡 위주로 선곡돼 졸음이 밀려온다. 또한 진행자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교육방송을 듣는 기분이다. 말보다는 음악 위주로 제작되었으면 하고, 활기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경쾌한 곡 위주의 선곡을 해주기 바란다. <9월 21일 보고서>

| 9. 언어 |

○ 1TV 「예썰의 전당」

-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예술작품을 둘러싼 창의적인 감상법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본인은 고령의 시청자인데, 제목만 봤을 때 ‘예썰’이라는 표현이 너무 생소해 이해하기 어려웠다. ‘예술’과 ‘썰’을 합친 표현인 것 같은데, ‘썰’은 의견이나 생각 따위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올바른 우리말을 사용하는데 앞장서야 할 공영방송에서 줄임말 등을 자주 사용하는 점이 보기 안 좋다. <1월 17일 보고서>

○ 1TV 「히든 어스 한반도 30억 년」

- 본인은 KBS의 애청자이다. 해당 방송을 시청하던 중, 공영방송에서 굳이 영어를 사용해 제목을 지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숨겨진 지구' 등 얼마든지 우리말로 대체가 가능하다. 고령층 시청자들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목을 바르고 쉬운 우리말로 지어주었으면 한다. <3월 13일 보고서>

○ 1TV 「이슈 픽 쌤과 함께」

- 한 주도 빠짐없이 시청 중인 시청자이다. 각 분야의 유능한 선생님들이 출연해 좋은 강연을 들려주는데, '쌤'이라는 표현은 듣기 불편하다. '쌤'은 선생님의 줄임말이자 은어로, 선생님을 낮추어 부르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공영방송 KBS에서 올바른 우리말을 사용해주기 바란다. <6월 7일 보고서>

○ 1TV 「KBS 뉴스광장」

- 울산에 거주하는 시청자이다. 해당 뉴스 프로그램을 시청하다 보면 '이슈 연예', '이슈 SNS', '이슈 키워드' 등의 코너명이 등장한다. 이건 얼마든지 '인기 검색어' 등으로 순화할 수 있다. 가령 울산에서는 교차로를 '외솔동근갈림길'이라고 표기한다. 외래어 코너명을 국립국어원에 조언을 구해 순우리말로 변경해주기 바란다. <11월 3일 보고서>

○ 1TV 「다큐 인사이드」 '히든 트랙'

- 현재 우리나라는 언론을 비롯해 외국어를 남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날도 「다큐 인사이드」를 시청하는데, 부제가 '히든 트랙'이라 외국어 남발이 심각하다고 느꼈다. 시청자들의 외국어 남발을 계도해야 할 공영방송에서 오히려 외국어를 사용하니 우려된다. 우리말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주길 당부한다. <12월 19일 보고서>

○ 2TV 「홍길동전」

- 멤버들이 평창동 홍진경 씨의 집에서 1박 2일을 보내는 '홍진경 생가 투어' 편을 재미있게 시청했다. 그런데 '생가'라 함은 '어떤 사람이 태어난 집'이라는 뜻의 단어인데, 방송에 나온 평창동 집은 '홍진경 자택'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다. <3월 24일 보고서>

○ 2TV 「개는 훌륭하다」

- 해당 방송을 시청하다보면 인터넷 용어 같은 신조어 자막들이 사용될 때가 있다. 뜻 파악이 어려울 뿐 아니라, 보기에 좋지 않다. KBS는 공영방송이므로, 유튜브나 개인방송에서 사용할 법한 신조어와 외래어 사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5월 31일 보고서>

○ 2TV 「뮤직뱅크」

- K-팝에서 한국어 가사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을수록 한국어 비중이 줄어드는데, K-팝의 'K'가 의미하는 정체성은 간직했으면 한다. 예전에는 영어 가사 비율이 높으면 공중파 방송 불가였다. 「뮤직뱅크」의 제작진과 관계자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주었으면 한다. <12월 27일 보고서>

| 10. 방송품질 |

○ 1TV 「KBS 뉴스 7」'73년 만에 드러난 아산 방공호 학살사건'

- 충남 아산에서 6·25 전쟁 당시 억울한 죽임을 당한 유해 40여 구가 발굴되었다는 보도를 보았는데, 자료화면에 유골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 아이와 함께 시청하던 중 깜짝 놀랐다. 모자이크 처리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3월 30일 보고서>

○ 1TV 「가요무대」

-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진행자 뒤로 붉은 색 벨벳 커튼이 쳐져 있어 덥고 답답해 보인다. 계절이 바뀌었는데 커튼을 걷거나, 색상과 소재를 바꿔주었으면 한다. 계절에 어울리는 세트를 꾸며주기 바란다. <6월 29일 보고서>

○ 1TV 「우리말 겨루기」

- 60대 시청자이다. 출연자들이 쓴 정답을 띄우는 전광판이 파란 바탕이다. 글자는 하얀색으로 표기되어, 본인처럼 고령의 시청자들은 글자가 잘 보이지 않는다. 고령층 시청자의 경우 대부분 시력이 좋지 않다. 바탕색을 하얀색으로 바꾸고 글자를 진한 색으로 표기하는 등, 고령층 시청자들이 읽기 편한 방향으로 시정해 주기 바란다. <8월 23일 보고서>

○ 1FM 「KBS 음악실」

- 간결하고 알찬 구성으로 음악계의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전달해주어 즐겨 청취한다. 이날 '포커스 한국 클래식'의 순간들'에서 피아니스트 정진우의 공연실황을 들려주었다. 그런데 베토벤 삼중 협주곡 C장조 Op.56 중 3악장을 들려줄 때 5~6차례 음악이 끊기는 부분이 있었다. 앞으로는 청취자들이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송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해 주기 바란다. <1월 27일 보고서>

| 11. 시청자 참여 |

○ 1TV 「일꾼의 탄생」

- 연예인들이 일꾼이 되어 시청자들에게 육체적 노동과 정서적 감동을 선사하는 프로그램이다. 본인은 고령의 시청자이며 해당 방송에 참여하고 싶다. 그러나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만 참여할 수 있어,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의 시청자들은 참여할 수 없다. 고향에 계신 어르신들의 많은 신청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정작 다양한 참여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 <1월 5일 보고서>

○ 1TV 「가요무대」

- 본인은 고령의 시청자로, 흘러간 옛 노래를 들으며 젊은 시절을 추억할 수 있어 즐겨 시청한다. 꼭 한번 방청하고 싶은데, 방청신청이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이뤄져 안타깝다. 본인은 인터넷 사용이 어렵고, 본인을 대신해 방청신청을 해줄 사람도 없는 상황이다. 고령층 시청자들이 쉽게 방청신청을 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 <2월 16일 보고서>

○ 1TV 「시사기획 창」

- KBS에 뉴스 제보를 여러 차례 했던 시청자이다. 본인이 불법 촬영 범죄를 목격해 해당 방송에 제보하고자 했으나, 제보할 수 있는 방법이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메일을 보내는 방법뿐이라 안타깝다. 컴퓨터가 없어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람도 많고, 필력이 부족한 사람도 많다. 전화 제보가 꼭 필요하

다고 생각된다. <3월 16일 보고서>

○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딱딱하게 굳는 혈관과 장기를 지켜라’

- 이날 방송을 시청하던 중 문의사항이 생겨 연락을 취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날따라 생방송 ARS 전화가 없었고, 티벳이라는 어플을 통해서만 문의가 가능했다. 시청자들 중에는 티벳이 뭔지, 어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다양한 시청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항상 생방송 ARS 전화 참여를 열어주기 바란다. <3월 28일 보고서>

○ 1TV 「아침마당」‘명불허전’

- 새롭게 단장한 ‘명불허전’에서 야심작으로 ‘명불허전 무조건 맞혀봐’라는 코너를 만들었다. 티벳으로 정답을 맞힌 시청자 5명에게 선착순으로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보내준다고 했다. 그러나 고령층 시청자들은 어플 사용에 능숙하지 않아 참여가 어렵다. 전화 연결이나 문자 참여의 기회도 열어주기 바란다. <5월 3일 보고서>

○ 1TV 「6시 내고향」

- 본인은 경로당의 회장이고, 해당 방송을 유익하게 잘 시청하고 있다. 일반인들이 사연을 신청하고 출연하는 코너에 경로당 지인들과 함께 출연하고 싶다. 그러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 같은 고령층 시청자들은 신청이 어렵다. 전화 신청도 받아주기 바란다. <9월 5일 보고서>

○ 1TV 「사랑의 가족」‘끝까지 간다’

- 해당 방송의 ‘끝까지 간다’ 코너에 제보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 그런데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제보가 가능한 점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든다. 한글을 적을 수 없는 시청자들도 있다. 전화로도 제보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 <11월 23일 보고서>

○ 1TV 「6시 내고향」‘장바구니를 잡아라’

- 40년이 넘게 KBS를 시청한 애청자이다. 해당 방송에서 이벤트로 나눠주는 장바구니가 너무 갖고 싶다. SNS를 통해서만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데, 본인은 SNS를 사용할 줄 모른다. 전화로도 참여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 <12월 6일 보고서>

○ 1R 「라디오 전국일주」

- 본인은 손과 발의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 청취자로 해당 방송의 애청자이다. 각 지역의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 주어 늘 유익하게 청취한다. 다만 방송에 참여하고 싶어도 문자나 티벳 참여 외에는 방법이 없어 아쉬울 때가 많다. 본인처럼 장애가 있는 청취자들도 방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화 참여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주었으면 좋겠다. <6월 19일 보고서>

○ 2R 「박명수의 라디오쇼」

- 해당 방송의 오랜 애청자이다. 본인도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는 등 해당 방송에 참여하며 소통하고 싶지만, 홈페이지나 문자로만 참여가 가능해 속상하다. 예전에는 사서함이나 우편 등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았다. 고령층 청취자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1월 31일 보고서>

○ 2R 「주현미의 러브레터」

- 주현미 씨의 방송을 애청하는 청취자이다. 7080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옛 가수들의 노래가 많이 선곡되어

마음에 든다. 다만 본인처럼 고령의 청취자들은 방송에 참여하며 소통하고 싶어도 문자사용이 어려워 불가능하다. 문자사용이 어려운 청취자들을 위해 엽서나 사서함 등 다른 참여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2월 3일 보고서>

| 12. 홈페이지 |

○ 1TV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

- 특별한 사연이 있거나 실력을 검증 받고 싶은 가수들에게 무대를 빌려주는 '도전! 꿈의 무대'의 애청자이다. 본인도 홈페이지를 통해 수차례 참여 신청을 했지만, 본인의 글에 한 차례도 답변이 달리지 않았다. 채택된 사람에게만 연락이 가는 것은 알지만, 탈락자 입장에선 계속 연락을 기다리게 되고 허무한 마음도 든다. 시청자와 제작진 간 조금 더 원활한 소통을 기대한다. <1월 3일 보고서>

○ 1TV 「한국인의 밥상」 '밥상조리서'

- 각 지역의 별미를 소개해주어 매주 재미있게 시청한다. 방송이 끝난 후 홈페이지에 접속해 '밥상조리서'를 찾아보기도 한다. 그런데 10월 12일 방송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아 답답하다. 방송정보를 신속하게 업데이트해주기 바란다. <10월 16일 보고서>

○ 2TV 「해 볼만한 아침 M&W」

- 다양한 생활 정보부터 고품격 지식 정보까지 전달해주어, 해당 방송을 시청하며 오전시간을 알차게 보내는 시청자이다. 다만 여느 정보 프로그램들과 달리 홈페이지에 방송정보를 올려주지 않는 점이 불편하다. 홈페이지에 '알려드립니다'라는 코너가 있지만 게시글은 없는 상태다. 시청자들이 방송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활성화해주기 바란다. <2월 14일 보고서>

○ 2TV 「개그 콘서트」

- 해당 프로그램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시청자 의견을 받는 곳이 없다. 시청자가 소감을 남길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11월 21일 보고서>

○ 2TV 「고려 거란 전쟁」

- 사극을 좋아해서 KBS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드라마를 다시보기 할 때가 있다. 그런데 TV를 통해 본방송으로 시청할 때와는 화질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아쉽다. 비록 무료로 제공되는 다시보기 서비스라 할지라도 화질이 조금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11월 27일 보고서>

○ 2R 「송진우의 용감한 라디오」

- 대부분의 라디오 프로그램들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당첨자 명단과 선곡리스트가 함께 게재된다. 그런데 해당 프로그램은 당첨자 명단만 게시판에 게재되고, 선곡리스트는 홈페이지 하단에 따로 올라와 보기 불편하다. 다른 프로그램들처럼 게시판에 선곡표 메뉴를 만들어 당첨자 명단과 선곡리스트를 함께 볼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 <5월 11일 보고서>

○ 3R 「우리는 한가족」

- 본인은 시각장애인 청취자이다. 해당 방송은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인 전문 프로그램으로, 늘 잘 청취하

고 있다. 가끔씩 방송을 듣던 중 중요한 멘트를 놓칠 때가 있는데 홈페이지에서 다시듣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홈페이지에서 다시듣기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9월 8일 보고서>

○ 1FM 「명연주 명음반」

- 홈페이지 선곡표를 자주 이용하는 청취자이다. 언제부터인가 선곡표에서 연주자를 검색하면 1년 전 방송까지만 검색이 된다.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어 그렇다고 하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공영방송에서 시스템 과부하가 걸린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개선해주기 바란다. <3월 9일 보고서>

○ 1FM 「생생클래식」

- KBS 1FM의 애청자이다. 이날 「생생클래식」의 홈페이지 선곡표에 실수가 있는 것 같다. 'Chopin' 곡과 '커피 칸타타' 사이에 애니메이션 '인어공주'의 삽입곡이 선곡되었는데, 홈페이지 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아 의아하다. 홈페이지 선곡표를 수정해주기 바란다. <3월 15일 보고서>

○ 1FM 「국악의 향기」

- 경상북도 구미에서 청취하고 있다. 이날 진행자가 한시를 읊어줬는데, 너무 좋아서 다시 한 번 읽고 싶었으나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다. 1FM은 다시듣기 서비스도 중단된 상태라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방송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선 선곡표 정도만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그날그날의 방송 정보도 함께 제공해주었으면 한다. <3월 31일 보고서>

○ 1FM 「KBS 음악실」

- 해당 방송의 애청자이다. 「KBS 음악실」은 선곡표가 항상 당일 오전 중에 업데이트 되는 편인데, 이날 방송분은 아직까지 업데이트 되지 않아 궁금하다. 빠른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부탁한다. <4월 5일 보고서>

○ 1FM 「출발 FM과 함께」

- KBS 1FM의 애청자이다. 홈페이지 선곡표에 대해 건의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방송을 처음부터 청취하는 경우에는 선곡표를 보며 어떤 음악이 나오는지 알 수 있지만, 중간부터 청취하게 되었을 땐 선곡표를 봐도 어떤 음악인지 알 수 없어 불편하다. 멜론, 벅스 등에선 현재 나오는 음악이 표시된다. 청취 중에도 선곡 정보를 조금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4월 13일 보고서>

○ 1FM 「FM 풍류마을」

- 국악을 전문으로 소개하는 방송으로 즐겁게 잘 청취하고 있다. 그런데 홈페이지 선곡표 코너에, 그날그날 오프닝에서 소개했던 시도 함께 표기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마음에 드는 시를 소개했는데 제목을 놓쳤을 경우 다시듣기 서비스도 제공되지 않기에 찾을 방법이 없다. 부탁드린다. <10월 23일 보고서>

| 13. 프로그램 구매 |

○ 1TV 「한국인의 밥상」

- 우리나라 곳곳의 비경과 지역 별미를 소개해주어 즐겨 시청한다. 지금까지 방송된 내용을 책으로 간직하고 싶어 찾아보니 2011년대 후반에 발간된 도서 정보만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몇 년간 방송됐던 여행지와 요리법에 대한 정보를 책으로 발간해 준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 도서를 발간해주기 바란다. <1월 2일 보고서>

○ 1TV 「생로병사의 비밀」

-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알아야할 모든 정보를 시청자의 눈높이로 쉽게 전달해주어 즐겨 시청한다. 건강한 삶의 방식을 제시해주는 제작진에게 늘 감사하다. 이제까지 다루었던 건강 정보를 책으로 발간해 준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 도서를 발간해주기 바란다. <2월 15일 보고서>

○ 1TV 「TV쇼 진품명품」

- 해당 방송의 오랜 팬이다. 해당 방송에서 감정가와 가장 가까운 답을 내놓은 패널에게 장구 하나가 주어진다. 방송을 시청할 때마다 그 장구가 너무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판매하지 않아 아쉽다. 「TV쇼 진품명품」의 팬들을 위해 소품을 판매해주기 바란다. <5월 10일 보고서>

○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은 시청자이다. 해당 방송은 건강 분야와 음식 등 꼭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해주어 일상에 도움이 된다. 방송에서 다뤘던 정보들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방송내용을 바탕으로 도서를 발간해주기 바란다. <9월 12일 보고서>

○ 1TV 「6시 내고향」

- 해당 방송을 시청하다보면 각 지역의 시장을 다니며 농산품을 소개한다. 볼거리가 많고, 굉장히 다양한 정보가 제공된다. 시청자들이 활용할 수 있게 이런 정보들을 모은 책자가 발간되었으면 한다. <12월 13일 보고서>

○ 2TV 「2TV 생생정보」 '엄마의 밥상'

- '엄마의 밥상' 코너에 출연하는 엄마들의 음식 솜씨가 굉장히 좋다. 해당 코너에 등장했던 요리들을 만들어보고 싶은데 레시피가 기억나지 않아 안타까울 때가 많다.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엄마들의 레시피를 따로 모아 도서로 발간해주면 좋을 것 같다. <7월 24일 보고서>

○ 1FM 「세상의 모든 음악」

- 장르 제한 없이 다양한 음악들을 선곡해주어 즐겨 청취한다. 해당 방송에서 음반을 발매하는데, 현재 12집까지 발매된 상황이다. 13집이 발매되었을까 싶어 광화문 교보문고에도 문의해보았는데, 아직 발매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 애청자로서 13집이 발매되길 기다리고 있으니, 속히 발매해주었으면 한다. <4월 10일 보고서>

| 14. 보도 제언 |

○ 1TV 「KBS 뉴스광장」

- 각종 유익한 정보들을 제공해주어 해당 뉴스 프로그램을 즐겨 시청한다. 특히 일기예보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요즘 미세먼지가 축적돼 대기질이 상당히 나쁜데, 미세먼지 예보가 간략하게만 다루져 안타

값다. 산소농도의 미세한 차이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하니, 미세먼지 농도를 보다 집중적으로 다뤄주기 바란다. <1월 12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사흘간의 아부다비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의 UAE 순방 성과가 큰데, 정작 KBS 뉴스에서 이에 대한 보도가 적어 아쉽다. 시청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한-UAE 정상회담 결과를 상세히 보도해주시기 바란다. <1월 18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9」“고갈 시점 2년 빨라졌다...연금 보험료율 2배 올려야?”

- 널 사람은 계속 줄어드는데 받는 사람은 늘면서 국민연금이 2055년에 바닥날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는 보도를 보았다. 본인이 알기론 공무원연금이 여러 차례 개혁을 거쳤지만, 여전히 국민연금과의 수급액 차이가 크다고 한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만 보도하지 말고, 많은 연금 수령액으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보도해주시기 바란다. <1월 30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 국회가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내용의 선거제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국민들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반대한다. 공영방송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여론을 조사해서 보도해주시기 바란다. <3월 22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9」“미추홀에서만 3명째...”“살아갈 길이 없다”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로 청년 3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에 안타깝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는 중개인을 통해 진행한다. 큰 금전이 오가기 때문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체크하면 좋은데, 피해자들이 이런 절차를 거쳤는지 궁금하다. 국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피해당하지 않도록 언론에서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4월 20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 배우 이선균 씨가 사망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언론도 있다. 마약 투약 혐의 관련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사적 통화 내용을 보도한 것은 지나치다. 앞으로는 이런 자극적인 보도는 자제해주시기 바란다. <12월 29일 보고서>

5 정보공개 안내

KBS는 KBS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제도의 의의에 맞게 시청자가 청구하는 정보에 대하여 최대한 공개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공영방송 KBS의 투명성과 시청자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노력하였다. 정보공개제도는 방송법 제 90조(방송사업자의 의무)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운영되고 있으며 KBS에서도 시대 흐름에 발맞추어 KBS 민원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고 KBS 정보공개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을 제정하는 등 적극 조치하고 있다.

【정보공개 제도 운영 법령 근거】

방송법 제90조(방송사업자의 의무)

- ①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제 88 조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⑤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요구하는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KBS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목적은 정보공개청구 건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이의신청 및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것이다. KBS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부사장과 감사실장 등 위원 7명을 두고 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운영부서장인 시청자센터장이다.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 소집은 처리부서의 청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개최를 결정하며, 위원회 심의과정과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 의사록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도록 되어 있다.

KBS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KBS 홈페이지 내 시청자상담실의 정보공개 청구사이트(<http://office.kbs.co.kr/info>)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KBS에서 처리한 정보공개 청구 건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정보공개 청구처리 실적 : 59건】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기타(이송, 자료 부존재 등)	계
16	9	10	24	59



2023 정보공개 청구 처리내역

접수 번호	청구일	청구인	청구내용	공개여부	
				결정구분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1	1월 2일	강**	KBS업무분장 및 간행물 책자명 등	부분공개	업무분장은 9조7항 경영상, 영업상 비밀
2	1월 2일	이**	2018, 2022 신입직원 응시 확인서 등	부분공개	2018 공개채용 지원내역은 개인정보 해당
3	1월 3일	부**	KBS 촬영기자에 대한 징계 결과건	비공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6항 개인정보 해당
4	1월16일	강**	KBS가 가입한 보험가입항목 및 화재보험 등	비공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7항 경영, 영업상 비밀
5	1월17일	황**	본인이 송달한 우편물의 수취인, 전달자 관련 내용	기타	비정보대상에 해당, 우편 안내
6	1월20일	이**	KBS가 재난방송을 위해 중앙기관 누구와 협력하는지 등	공개	
7	2월27일	허**	1996년경 "신나는 날, 즐거운 날" 프로그램 영상	기타	비정보대상에 해당, 이메일로 안내
8	3월27일	강**	2002년 전주경찰관 피살 사건 동영상 구매	기타	비정보대상에 해당, 이메일로 안내
9	4월 6일	황**	강화도 일부지역 공중파TV 전파 차단 이유 등	부분공개	불청, 난청 등 원인조사 장비, 강화도 전역 수신료총액 등
10	4월10일	장**	양천구 입양아동 사망 사건	기타	정확한 청구내용 요청했으나 이후 불청구

접수 번호	청구일	청구인	청구내용	공개여부	
				결정구분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11	4월12일	김**	2001년 7월31일 "6시 내고향" 방송	기타	비정보대상에 해당, 이메일로 안내
12	4월19일	박**	KBS재난 포털 기록과 지도, 헬기 이동 기록지	정보 부존재	이메일로 안내
13	4월21일	김**	1972년 이후 김봉길 변호사 관련 모든 방송	기타	비정보대상에 해당, 이메일로 안내
14	4월21일	남**	2020.1월부터 4.23까지 뉴스속보 제목, 발송시간	정보 부존재	이메일로 안내
15	4월24일	함**	2008-2009 "상상플러스 시즌2" 시청여부	기타	비정보대상에 해당, 이메일로 안내
16	5월 3일	한**	KBS의 1980년,1981년 예산 결산서	비공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7항 경영, 영업상 비밀
17	5월 7일	이**	정연옥, 김기화 기자의 징계내역 등	비공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5항 감사 등에 관한 사항
18	5월 7일	TBS	KBS의 방송출연규제 심사위 운영기준	공개	
19	5월15일	김**	시사기획 창<이대남,이대녀> 성별 댓글 비율 등	정보 부존재	이메일로 안내
20	5월23일	최**	수상기 등록대장 정보	공개	

접수 번호	청구일	청구인	청구내용	공개여부	
				결정구분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21	5월30일	강남경 찰서	(주)K웨이브와 KBS가 잡지를 운 영하는지 등	공개	
22	6월 1일	(법무)대 륜	KBS 직원의 과거 10년간 성비 위 관련 징계 자료 등	비공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1 항5호 업무수행 공정성 지 장
23	6월 7일	정**	KBS 이사, 집행기관 전원의 2023년 (1월~5월) 업무추진비 등	부분공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1 항6호 개인정보에 관한 사 항
24	6월 7일	정**	이사회 운영규정 등	공개	
25	6월 9일	최**	수상기 등록대장 정보	공개	
26	6월15일	이**	KBS직군, 연차별 임금 기준 등	비공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1 항7호 경영, 영업상 비밀
27	6월19일	김**	1984년~1986년 읍면동별 시청 료 징수내역	정보 부존재	이메일로 안내
28	6월29일	권**	2012~2016 KBS사업계획서, 법 률 검토대리인 등	부분공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1 항6호 개인정보에 관한 사 항
29	7월 5일	이**	원작이 있는 콘텐츠의 재방료 지급 여부 등	공개	
30	7월 6일	박**	KBS한국어 능력시험 기출문제 등	비공개	저작권법 / 정보공개법 제 11조3항 제3자 요청 사항

접수 번호	청구일	청구인	청구내용	공개여부	
				결정구분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31	7월12일	이**	이승철 기자 등 변호사비 내역, 수신료 사용여부 등	비공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1 항4 (재판), 7호(경영, 영업 상 비밀)
32	7월13일	김**	비정규직 고용구조 및 처우개선 보고서	정보 부존재	이메일로 안내
33	7월18일	김**	무죄를 받기 위한 매뉴얼	불문처리	재소자의 불순한 의도 및 자료 부존재
34	7월25일	안**	1988-2001년 단체협약서 등	부분공개	부재한 자료는 비공개
35	7월31일	정**	공감토론 토론 내용 전문	기타	비정보대상에 해당, 이메일 로 안내
36	8월10일	변**	추적60분 관련 회차 정보 (방통 위 이첩 건)	부분공개	일부내용 자료 부존재
37	8월 8일	강**	KBS 비즈니스의 용역 계약 관련 자료	비공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7 항 경영, 영업상 비밀
38	8월22일	최**	수상기 등록대장 관련 이의신청 서	공개	
39	8월22일	김**	뮤직뱅크 결방관련	공개	시청자청원 등에서 답변으 로 같음
40	8월30일	이**	2023 KBS 대기획 <ㅇㄹㄷ 지오 디> 공연과 관련	공개	

접수 번호	청구일	청구인	청구내용	공개여부	
				결정구분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41	8월30일	황**	1969년-71년 봉은사 소개영상 등	기타	비정보대상에 해당, 이메일로 안내
42	9월 7일	이**	KBS뉴스 촬영지에 관한 정보	기타	비정보대상에 해당, 이메일로 안내
43	9월 8일	최**	이태원참사 당시 시민제보 영상 등	공개	
44	9월17일	조**	KBS와 관련 없는 민원과 관련된 내용	기타	비정보대상에 해당, 이메일로 안내
45	10월 4일	이**	본인이 출연했던 방송프로그램 자료	기타	비정보대상에 해당, 이메일로 안내
46	9월 12일	k*****	2002-3년 유재석 강호동 덕성여대 편 동영상 받고 싶어	기타	비정보대상에 해당, 이메일로 안내
47	9월 18일	우**	1983년 1TV 스튜디오 830 영상 요청	기타	비정보대상에 해당, 이메일로 안내
48	11월 1일	양**	전주KBS 열려라 동요세상 2010년 전주서원초교 방영분 영상 요청	기타	비정보대상에 해당, 이메일로 안내
49	11월 7일	김**	프로그램 폐지에 관한 공문서	공개	
50	11월19일	k*****	더라이브 폐지 사정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	공개	

접수 번호	청구일	청구인	청구내용	공개여부	
				결정구분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51	11월23일	김**	전국노래자랑 포천편 2000년도 이전 오빠영상 요청	기타	비정보대상에 해당, 이메일 로 안내
52	11월24일	박**	1990년 이전 방영 프로그램 목 록	공개	
53	11월29일	t*****	10월 28일 KBS TS-2 발생 LED 영상장비 파손 CCTV공개요청	비공개	개인정보법 제19조 제1항 등 (공개연장통지 12/12)
54	12월 1일	전**	KBS취업규칙, 단체협약, 아나운 서 징계규정, 징계절차	공개	
55	12월 1일	김**	11/17 회신문서 관련 비공개사 유, 정보부존재 사유	부분공개	특집방송 기획안 비공개, 개 인정보 보호, 경영상, 영업 상 비밀사유
56	12월 4일	조**	KBS와 관련 없는 내용	기타	비정보대상에 해당, 이메일 로 안내
57	12월11일	박**	1979년 방영 드라마 토지 시청 방법 문의	기타	비정보대상에 해당, 이메일 로 안내
58	12월19일	박**	1988-1989 방영 방송의 현장 소재목 요청	공개	
59	12월20일	y*****	KBS사장 11월, 12월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요청	부분공개	12월분은 전표제출 마감일 이전 이므로 제출곤란



시청자 권익보호

■ 시청자 권익보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한 국민의 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방송사는 방송프로그램에 의한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자율적 활동을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인권침해에 대한 의견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직접 만든 프로그램으로 참여할 수 있고 방송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 1 | 명예훼손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해 사회로부터 받은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며 개인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명예훼손이라고 한다. 언론보도에 지칭된 사람이 누구인지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었다면 그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 2 | 재산권 침해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를 가진 권리, 즉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잘못된 보도로 개인이나 회사 등의 매출감소와 같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재산권 침해가 된다.

| 3 | 초상권 침해

초상권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이다.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이나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고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이다. 언론보도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사진 등이 게재되거나 방송될 경우 초상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초상이 공표되었더라도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나 본인이 공표한 초상이라도 본인의 공표 의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가 성립된다.

| 4 | 사생활 침해

흔히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사생활의 비밀이란, 자신의 사생활 내지는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공개당하지 않을 권리이다.

| 5 | 음성권 침해

음성권이란 자신의 목소리에 대한 권리이다. 제 3자가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음성을 비밀로 녹음하거나 이를 언론 매체에 공개하는 행위 등은 모두 음성권 침해로 볼 수 있다.

| 6 | 성명권 침해

언론보도에서 익명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을 실명으로 보도하는 경우, 성명권이 침해될 수 있다. 공인이 아닌 개인의 성명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사용해야 한다.

(자료원 : 언론중재위원회 교육교재)

■ 시청자권리보호소위원회(권리소위)

1. 구성

- 시청자위원(3명) 및 KBS고충처리인으로 구성

2. 시청자권리보호소위원 직무 및 권한

- KBS고충처리인의 고충처리 실적 검토
- 고충처리 미해결 안건에 관한 시정조치 요구
- 방송으로 발생한 초상권 침해, 저작권 침해, 명예손상, 재산상의 피해 등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의견제시 및 시정 요구
- 기타 시청자의 피해 및 불만이 많은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제시 및 시정 요구

3. 소위원회 운영

- 정기회의 : 월 1회
- 조치
 - 시청자권리보호소위 회의에서 검토, 결정된 의견은 시청자위원회 본회의에 상정, 보고

■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는 주요 기능은 지상파방송 및 종편·보도 PP 정책, 방송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시 조사·제재,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정책 수립·시행, 개인정보보호정책 수립·시행 및 불법 유해정보 유통방지, 방송광고, 편성 및 평가정책 수립·시행, 미디어다양성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이 있다.
 - 홈페이지 : <http://www.kcc.go.kr>
 - 대표전화 : 02-500-9000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1 조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 및 인터넷, 모바일 등의 불법·유해정보 콘텐츠를 심의하고 있다. 방송프로그램의 공정성·선정성·폭력성에 대한 내용이나 음란·불법 등에 대한 정보통신 정보에 대하여 처리한다.
 - 홈페이지 : <http://www.kocsc.or.kr>
 - 대표전화 : 국번없이 1377
-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매체의 사실적 주장으로 피해를 입은 자들이 반론보도, 정정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사건을 접수하여 조정·중재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입니다.
 - 홈페이지 : <http://www.pac.or.kr>
 - 대표전화 : 02-397-3114
-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증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한 인권전담 독립 국가기관입니다.
 - 홈페이지 : <http://www.humanrights.go.kr>
 - 대표전화 : 02-2125-9700
- **국민권익위원회**는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해 왔던 기능들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의 기능은 크게 다음 세 가지이다.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공직사회 부패 예방·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 행정쟁송을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관이다.
 - 홈페이지 : <http://www.acrc.go.kr>
 - 대표전화 : 국번없이 110

6

KBS고충처리인 활동

KBS고충처리인은 고충처리인 운영지침 제4조(자격)에 따라 KBS에 15년 이상 재직한 직원 중에서 시청자 서비스 업무를 주관하는 시청자센터장이 3인 이내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고충처리인으로 지정되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한 KBS고충처리인과 시청자위원회 권리보호소위원회 간사의 지위를 갖고 활동한다.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고충처리인이 연임 시 별도 임명하지 않으나 고충처리인이 퇴직 또는 타부서로 인사발령이 날 경우 후임자 임명과 동시에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 KBS고충처리인 설치 근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고충처리인)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일반 일간신문을 말한다)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에 언론 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 권한과 직무

-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 권고
- 구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 그 밖에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 자율성 보장

- KBS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하고 있다.

2023년 한 해, KBS 고충처리인이 처리한 민원은 총 138건이고, 이를 월별, 부문별 그리고 내용별로 분류한 처리실적은 다음과 같다.

[접수 및 처리현황 : 138건]

월	구분	고충처리 홈페이지	우편·전화·팩스	외부기관 (방통위, 인권위 등)	계
1		0	1	5	6
2		0	3	5	8
3		0	4	2	6
4		0	5	6	11
5		0	2	4	6
6		0	2	9	11
7		0	1	6	7
8		0	2	12	14
9		7	0	5	12
10		7	0	6	13
11		10	4	7	21
12		3	2	18	23
계		27	26	85	138

[부문별 처리현황]

구분	제작부문(71건)			비제작부문(67건)			총계
	편성	보도	프로그램 (TV, Raido)	경영 (수신료, 시설)	수신기술 (난시청, IT)	기타	
건수	19	21	32	16	37	13	138

[민원 내용별 처리현황]

구분	건	비율(%)
편성 제안	8	5.8
보도 취재요청	1	0.7
공정성, 사실성, 객관성	4	1.4
진행(아나운서 언어 등)	3	2.2
정정요청(보도, 프로그램)	25	18.1
권리침해(초상권, 명예정보 등)	9	6.5
시청자만족(프로그램, 공개방송, 홈페이지)	51	37.0
난시청	8	5.8
경영(직원, 시설)	17	12.3
수신료	2	1.4
기타	10	7.2
계	138	100.0

■ 시청자청원이란

KBS의 주인은 시청자 여러분입니다. KBS는 시청자가 요구하면 친절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발의할 수 있습니다. 30일(한 달) 동안 1,000명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부서의 책임자가 직접 답변을 드립니다.

■ 시청자청원 절차

청원 발의를 위해서는 KBS 홈페이지 가입이 필요합니다. 발의된 청원에 대한 동의, 추천은 주요 SNS (Facebook, Twitter, Naver)계정으로 가능합니다. (참고. 카카오의 경우 중복 아이디 차단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지금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성사된 청원에 대해서는 30일 안에 시청자 프로그램, 동영상, 이메일 등을 통해 답변을 드립니다.



■ 시청자청원 운영세칙

한국방송공사 시청자청원 홈페이지 운영세칙

1. 욕설 및 비속어는 삼가 주세요.
2. 폭력적, 선정적인 내용, 청소년에게 해로운 내용은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3. 허위 사실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4.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한국인터넷 자율정책기구의 [정책규정] 등을 기반으로 문제 게시물은 [숨김처리]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5. 청원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글을 반복해 게재할 경우 사이트 접속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청원 작성을 위해서는 [KBS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답변 및 회신 등을 위한 것입니다. 단, 청원 동의는 SNS회원도 가능합니다.
7. 청원 작성 전 비슷한 청원이 있는지 검색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8. 같은 내용으로 중복 게시한 청원은 최초 1개 청원만 남기고 삭제됩니다.
9. 작성된 청원은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신중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청원 취지와 다른 내용으로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여 청원 참여자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접수 현황]

월	구분	접수	비고
1		169	
2		57	
3		127	
4		166	
5		82	
6		127	
7		134	
8		120	
9		82	
10		59	
11		261	
12		798	
계		2,182	

※ 청원: 2018.09.04. 오픈

8

제작진 답변과 시청자 권익보호

1 제작진 답변

‘KBS 제작진 답변’은 시청자상담실과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기관을 통해 접수, 이첩된 시청자 의견에 대하여 제작진과 각 담당 부서로부터 공식적으로 제출받은 답변이다. 이는 시청자 의견 접수부서인 시청자센터에서 각 부서에 시청자 의견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조치결과를 민원사무처리규정상의 민원 사무처리 기간에 따라³⁾ 문서로 요청하여 담당 부서로부터 회신을 받은 것이다.

제작진의 답변은 ‘시청자상담실’ 홈페이지 게시판⁴⁾의 ‘제작진의 답변’으로 게시되고 시청자는 자신이 낸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 할 수 있다.

시청자센터에서는 시청자의 의견에 대한 ‘제작진 답변’을 보다 내실 있게 하고자, 시청자상담 일일보고서에 게재된 시청자의 의견에 대한 객관적인 선정기준⁵⁾을 만들어 제작진의 답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 민원처리규정 제9조(처리기간) : 방송에 대한 각종 문의 5일, 방송에 대한 거의, 이의신청 10일, 방송에 대한 진정 14일, 수신료 및 난시청에 대한 문의 또는 진정 10일, 견학 신청 3일, 행사주최, 후원승인 요청 20일이다.

4) 홈페이지 주소는 <http://iaudience.kbs.co.kr/>

5) 선정기준은 2011년 1월 27일자로 확정, 시행되었으며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중이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_다수의 민원인이 제기한 의견. (10인 이상)
- _금전적 피해, 신체상의 피해 등의 발생으로 이에 대하여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견.
- _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보도, 방송에 대한 의견.
- _출연자들의 음전운전, 폭행, 도박 등 관련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 시청자의 항의가 있는 의견.
- _타 방송, 신문 등 보도에서 논란이 있는 방송내용에 대한 의견.
- _업무와 관련, 실명이 거론되는 공사 직원에 대한 불만 의견.
- _경미한 사안으로 판단되나,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견.
- _기타 제작부서 등 관련부서의 사실관계 확인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견.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보 도	<p><input type="checkbox"/> 1TV [KBS 뉴스 9] 보도 제언</p> <p>- 이날 홍사훈 기자가 본인이 진행하는 「홍사훈의 경제쇼」에서 “오늘 KBS 9시 뉴스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새로운 사실 하나가 보도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오늘만큼은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9시 뉴스를 시청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보도되지 않았다. 신뢰가 중요한 공영방송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유감스럽고, 보도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기 바란다.</p>	<p><input type="checkbox"/> 담당부서 : 저널리즘책임무실</p> <p>- 새로운 사실이 제기됐고,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와서 일시 보류되었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KBS 뉴스(홈페이지)] 보도 제언</p> <p>- 기사 중 '교사'라는 단어가 사용됐다. 7살 김 모군이 언어치료센터에서 치료받던 중 학대당한 내용이다. 학대한 사람은 '언어재활사'이고 치료를 담당하는 사람이기에 교사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보도에서 제목과 내용에 교사로 지칭하여, 내용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제목만 보고 교사를 비하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공교육을 정상화 하려는 교사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주의 해주기 바란다.</p>	<p><input type="checkbox"/> 담당부서 : 사회부</p> <p>- 제목에서 '교사' 표현 삭제했습니다.</p>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보 도	<p>□ 1TV [KBS 뉴스광장] 보도 제언</p> <p>- 고령운전자가 전체운전자의 12%이며, 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접했다. 다른 세대 운전자의 사고율과 비교한 것도 아니고, 오직 고령운전자가 낸 사고에만 집중한 보도였다. 사고는 운전자만의 잘못이 아니고 상대방의 과실에 의해,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다. 나이에만 집중해 조건부면허제 도입 등을 언급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p>	<p>□ 담당부서 : 보도본부 네트워크</p> <p>- KBS 뉴스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시청자에게 감사드립니다. 교통사고가 과실이나 자연재해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당시 사고 운전자가 신호와 보행자를 전혀 보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엄청난 과속으로 큰 인명 피해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경찰은 고령 운전이 사고의 원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적성검사 강화나 조건부 면허제 도입 등은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KBS 뉴스를 시청해 주시고 적극 의견을 개진해 주신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p>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시 사 교 양	<p>□ 1TV [사사건건] 출연자 섭외 제언</p> <p>-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출연해 경기도 김포의 서울 편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데 여당 측 인사만 출연한 점이 공정하지 않게 느껴졌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야당 측 인사의 의견도 들어보아야 하니, 양쪽 다 섭외해서 방송해주기 바란다.</p>	<p>□ 담당부서 : 시사제작 2부</p> <p>- '사사건건' 11월 21일자 방송 조경태 의원 출연 건 관련한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조경태 의원은 국민의 힘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사사건건'은 복잡한 법안에 대한 시청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 가능성만 집중 조명된 '뉴시티 프로젝트' 관련 내용을 심도깊게 들여다보기 위해 관련 법안의 핵심 당사자인 조경태 의원을 섭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섭외 과정에서 이 사안에 대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반영하기 위해서 민주당 측 인사들을 두루 접촉하였지만, 스케줄 상의 이유로 조경태 의원의 출연 당일에 함께 출연하는 안에 대해서는 모두 거절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이에 따라 '사사건건'팀은 대담 진행 과정에서 앵커가 민주당 측이 이 사안을 보는 관점을 거듭 제시하면서 야당 측 반론에 대한 국민의힘 측 입장을 듣는 형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며 시청자들께서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단언컨대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발언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서울시 편입보다 시급한 것은 김포시의 교통 문제"라는 주장을 영상 구성을 통해 반영하였음을 설명 드립니다. '사사건건' 팀은 향후 메가시티와 김포의 서울 편입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경태 의원의 출연 건과 관련한 반론이 있다면 제작 과정에서 충분히,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사건건'에 보여주신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시청자 여러분께 균형 잡히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제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p>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시 사 교 양	<p><input type="checkbox"/> 1TV [동물극장 단짝] 방송 제언</p> <p>- 지리산에서 김태헌 씨와 함께 살아가는 반려견 나나와 장군이 사연이 방송됐다. 그런데 애견인으로서 장군의 앞다리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다. 방송 내내 장군이 절뚝거리는데 너무 안쓰러웠다. 향후 아픈 다리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길 바란다.</p>	<p><input type="checkbox"/> 담당부서 : 멀티플랫폼편성국</p> <p>- 장군은 촬영 전 다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촬영을 진행하는 동안 컨디션을 잘 살피며 촬영했습니다. 촬영 후 제작진이 확인한 결과 현재는 치료를 잘 받고 많이 좋아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장군의 상태는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p>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연 예 오 락	<p>□ 2TV [1 박 2 일] 방송 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방송의 홈페이지와 방송이 시작될 때 무지개처럼 보이는 육지개 로고가 표현된다. 남색과 보라색이 합쳐진 육지개는 동성애와 성소수자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다.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국민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로고가 사용된 점이 좋지 않다. 여섯 명의 멤버를 표현한 것일지 모르겠으나, 보기 불편한 시청자들을 위해 수정해주기 바란다. 	<p>□ 담당부서 : 예능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 색 무지개 깃발은 1970년대부터 미국에서 사용되었다고 하나, 「1 박 2 일」의 로고도 시즌 1 부터 사용되어온 유서 깊은 로고입니다. 6 지개 색깔 구성이 아닌 멤버 고유색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시즌 별 멤버 수에 따라 5 가지 색상이 되기도 하고 7 가지 색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p>□ 2TV [홍김동전] 우리말 사용 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멤버들이 평창동 홍진경 씨의 집에서 1 박 2 일을 보내는 '홍진경 생가 투어' 편을 재미있게 시청했다. 그런데 '생가'라 함은 '어떤 사람이 태어난 집'이라는 뜻의 단어인데, 방송에 나온 평창동 집은 '홍진경 자택'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다. 	<p>□ 담당부서 : 예능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진경 씨는 위인도 아니고, 해당 자택은 태어난 집도 아니지만, 예능에서 재미 요소로 생가라는 표현이 사용된 점 양해바랍니다.

9

부록(강령, 규정, 기준, 지침)

1

KBS 방송강령

[전문]

우리는 이 땅의 방송을 대표하는 KBS 인이다.

우리는 공영방송의 기능을 다해 국가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세계 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추구하는 높은 이상을 실현한다.

우리는 자유언론의 실천자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실과 정직 그리고 균형을 바탕으로 한 공정방송을 성실히 수행한다.

우리는 전문방송인으로서의 직업윤리를 준수하며 지혜와 용기를 다하여 품위 있고, 책임 있는 방송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 한국방송공사 전체 사원의 뜻을 모아 -

1990 년 1 월 1 일

[총 강]

I. 자 유

우리는 헌법과 방송법이 보장하는 바에 따라 방송을 통한 편성과 보도·제작의 자유를 갖는다.

<개정 2002.11.18.> 우리는 이 자유를 오직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만 책임 있게 행사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자유를 지킨다.

II. 책 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와 민족의 자주성을 존중하며 통일을 지향하는 국민적 합의의 창출에 이바지한다.

우리는 진실추구의 바탕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방송의 공적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건전한 민주여론 형성에 기여한다.

III. 독 립

방송은 완전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는 내부와 외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배제하며 국민의 방송으로서 전통과 권위를 수호한다.

IV. 방송의 공정성

우리는 공정성, 정확성, 객관성을 바탕으로 진실만을 전달한다.

방송은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우리사회 모든 계층의 다양한 의견이나 주장, 요구 등을 고루 반영할 수 있는 민주여론의 장이 되도록 한다.

V. 인권의 존중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며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지 않는다. 또한 방송이 국민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미풍양속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한다.

VI. 정 정

우리는 정확성과 성실성만이 방송이 갖는 공신력의 근원임을 인식하여 방송내용의 명백한 잘못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이를 정정한다. 특히 명예훼손 및 권리침해 등 정당한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에게는 반론의 기회를 준다.

VII. 품 위

우리는 방송인으로서의 직업윤리에 충실하며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우리의 의지를 한데 모아 “방송강령”을 만들고 이를 실천덕목으로 삼는다.

[방송 강령]

- 제 1 항** 방송은 국가의 존엄성과 민족의 자주성을 존중하며 국기 및 애국가를 모독하는 표현은 하지 않는다. 이 정신은 다른 나라를 다루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준용한다.
- 제 2 항** 방송편성권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진실을 바탕으로 한 보도나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함에 있어 외부의 압력은 물론 내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한다.
- 제 3 항** 방송은 민족 고유의 전통예술을 계승, 발전시키도록 노력하며 이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묘사나 표현은 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
- 제 4 항** 방송은 표준어 및 표준발음법에 따른 언어와 품위 있고 순화된 우리말을 사용해 국어문화 확산에 이바지한다.
- 제 5 항** 방송은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최대한 존중 보호해야 한다. 공공의 이익과 관계없거나 또는 호기심 등으로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 제 6 항**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취재과정에서 완벽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나 영상은 가급적 방송하지 않는다.
- 제 7 항**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 보도하는데 있어서는 그 말이 사실인지와 제 3 자의 명예를 훼손하는지를 확인하는데 최대한 주의를 기울인다.
- 제 8 항** 공공의 문제에 관한 논평이나 해설은 정확한 분석, 평가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의견이 찬반으로 갈라져 있는 쟁점에 관해서는 쌍방의 의견을 대표하는 논평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 제 9 항** 정부나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진실 여부를 가리도록 노력하며 그러한 기관의 일방적인 선전에 이용되지 않는다.
- 제 10 항** 방송내용과 관계가 없거나 무의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방송대상 인물의 출신지역, 출신학교, 가족, 사상, 종교, 직업, 인종, 국적 등을 필요이상으로 강조하지 않는다.
- 제 11 항** 방송은 혼인의 순결성과 가정생활을 보호해야 하며 이를 손상하는 소재를 긍정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남녀의 성은 평등하게 취급하며 어느 한 쪽을 비하하여 다루지 않는다.
- 제 12 항**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 올바른 품성을 심어주며 미래에 대한 꿈을 갖도록 노력한다.
- 제 13 항** 육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다룰 때에는 본인이나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같은 장애로 괴로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 제 14 항**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고 특정종교나 종파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며 어떠한 종교의식이라도 이를 모독하지 않는다. 다만, 사이비종교에 대한 방송에 있어서는 교리, 의식 등을 비판할 수 있다.
- 제 15 항** 경제 각 분야의 균형된 발전과 유통질서의 안정에 기여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 제 16 항** 노사문제는 객관적이며 공정한 관점에서 다루어야 하며 노동의 가치와 직업의 존귀함을 부정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 제 17 항** 법률을 어긴 행위를 정당화하는 보도나 논평은 하지 않으며 범인을 영웅시하거나 범인 또는 범죄 행위에 대해 호기심을 유발할만한 기사나 영상은 피한다.
- 제 18 항** 인명을 경시하거나 자살과 불륜을 미화하는 내용을 방송하지 않으며 범죄의 수단이나 방법, 악덕, 패륜행위의 내용을 필요이상으로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는다.
- 제 19 항** 범죄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사람이나 피의자라 하더라도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범인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제 20 항** 법원의 판결이나 공적기관의 판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도나 논평은 신중을 기한다.
- 제 21 항** 방송대상 인물이 전과자라 할지라도 방송내용과 직접 관계가 없거나 다른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범죄전과는 언급하지 않는다.
- 제 22 항** 범죄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용의자나 범인의 가족과 주변인물에 대한 불필요한 언급을 삼가며 피해자에 관련된 사항도 꼭 필요한 내용만을 방송한다.
- 제 23 항**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본인의 이름은 물론 인상착의나 직업, 주소, 부모이름, 학교이름 등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과 영상은 밝히지 않는다.
- 제 24 항** 변사사건을 다룰 때는 당사자의 유족이나 친척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유족들이나 비탄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이나 모욕감을 주는 취재행위를 삼간다.
- 제 25 항** 환자나 사고, 재난에 의한 피해자의 입원치료를 취재할 때는 당사자들의 동의 없는 취재는 가급적 삼가며 입원사실 이상의 정보는 의료당국의 제보에 의존한다.
- 제 26 항** 의료나 의약품은 정확한 용법을 제시해야 하며 의료이외의 환각제, 각성제, 마약 등의 사용은 긍정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 제 27 항** 천재지변이나 사고 등 긴급사태 및 인명구조에 관련된 내용은 우선적으로 방송한다.
- 제 28 항** 우리는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며 정치나 정치조직을 위한 활동은 하지 않는다. 그 밖의 특정 이익집단을 위한 방송은 하지 않는다.

- 제 29 항** 방송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가 상충될 수 있는 사회활동이나 영리행위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특히 본인이나 가족의 부업이 직무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제 30 항** 우리는 취재원에 비밀을 보장했을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는 직업윤리를 존중한다. 그러나 절실한 필요가 없는 한 경솔하게 비밀보장을 약속하지 않는다.
- 제 31 항** 풀(Pool)제 취재는 피치 못 할 경우에 한해서 수용하되 출입처와 수행취재 등에서 편의 등을 목적으로 한 담합이나 풀제는 배척한다.
- 제 32 항** 취재를 위해 개인의 주거나 집무실에 무단출입하지 않으며 취재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터뷰 등을 강요하지 않는다.
- 제 33 항** 인터뷰할 때에는 대상자에게 방송을 전제로 한 것인지 또는 단순한 정보로 이용할 것인지를 미리 알려야 하고 인터뷰내용을 편집할 때는 전체의 흐름에 어긋나거나 일방적인 방향으로 편집해서는 안 된다.
- 제 34 항** 선거유세, 시위, 공연 등의 행사를 다룰 때는 그 시위나 행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한다. 특히, 정치성 군중집회일 경우 인원수 추계와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카메라 앵글조작 및 편집에 신중을 기한다.
- 제 35 항** 모든 방송자료는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하며 위장이나 속임수로 취재나 촬영협조를 받지 않는다.
- 제 36 항** 영상, 녹음 등으로 취재한 방송자료는 명백하고도 절실한 국익이나 공익을 위한 경우가 아니면 수사기관을 비롯한 외부에 제공하지 않는다.
- 제 37 항** 취재내용가운데 공표되지 아니한 자료나 영상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나 취재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 제 38 항** 다른 목적으로 취재한 영상을 뒷날 당사자에게 불명예스러운 자료화면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 제 39 항** 다른 매체의 자료와 영상을 표절하지 않으며 다른 매체나 타인의 자료와 영상을 활용할 때는 그 출처를 명시한다.
- 제 40 항** 우리는 보도, 제작, 중계방송을 함에 있어 상업적인 영향력을 배제한다.
- 제 41 항** 우리는 신분을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거나 외부기관에 청탁하지 않으며 직무와 관련해 청탁을 받지 않는다.
- 제 42 항** 우리는 회사가 제공하는 비용으로 취재 또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직무와 관련해 외부에서 제공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거절한다.
- 제 43 항** 우리는 취재, 편집,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방송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방송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제정 1984.2.29 규정 제221호
 개정 1986.12.8 규정 제279호
 직권개정 2001.4.7 규정 제767호
 개정 2008.8.5 규정 제1081호
 개정 2016.4.20. 규정 제1328호

개정 1984.9.3 규정 제222호
 개정 1991.4.29 규정 제412호
 직권개정 2004.8.25 규정 제944호
 직권개정 2010.6.17 규정 제1148호
 직권개정 2019.6.19. 규정 제142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접수한 민원 업무를 친절, 공정,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처리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고충처리제도 및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인 : 공사에 대하여 각종 민원을 요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자를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 8. 1>

가. 국가기관 또는 공법인이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나. 공사와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다. 주소, 성명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공사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2. 민원 : 민원인이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16. 4. 20.>

가. 질의, 건의, 진정 및 이의신청 <개정 2016. 4. 20.>

나. 기타 공사에 대하여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제3조(민원서류의 접수)

- ① 접수된 민원서류에 대하여 본사는 시청자센터, 지역방송(총)국은 시청자업무소관부서에서 접수하고, 직할 송·중계소 및 업무사업지사·소는 자체에서 접수하되, 민원처리부(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지역 방송국 송중계소는 관할 지역방송국에 이송한다. <개정 2008. 8. 1., 개정 2016. 4. 20., 직권개정 2019. 6. 19.>
- ② 접수된 민원서류 중 그 처리가 민원담당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 ③ 민원담당부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서류의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고의로 접수시간을 지연시키거나 부당하게 반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민원담당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민원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민원담당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제4조(구술에 의한 민원접수)

- ① 구술에 의해 제기된 민원사항의 접수는 구술에 의한 민원처리부(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단순 문의 등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8. 1, 개정 2016. 4. 20.>
- ② 주무부서에서는 민원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구술에 의한 민원처리부”를 비치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개정 2016. 4. 20.>

제5조(불문처리사항)

민원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8. 1>

- 1. 민원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2. 민원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 3. 민원사항의 내용이 막연하여 이해할 수 없거나, 특정지을 수 없어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 4.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불만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였고,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보한 경우
- 5. 기타 민원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접수증)

민원서류를 접수한 민원담당부서에서는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접수증(별지 제3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민원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 등)

- ① 민원담당부서 또는 주무부서에서는 접수된 민원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불확실하여 별도의 자료가 요망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 ② 보완이나 보정의 요구는 구술, 전화 또는 문서로 하되, 그 이유 및 필요한 보완 또는 보정사항과 요구기간 등을 민원처리부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0.>
- ③ 민원인이 제1항에 정한 기간 내에 서류의 보완이나 보정을 하지 못하거나 제출된 내용이 요구한 내용과 상이할 때는 1차에 한하여 당해 민원서류 처리기간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재차 보완 또는 보정의 독촉을 하여야한다.
- ④ 민원인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보완요구 등이 2회에 걸쳐 반송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취하한 것으로 보며, 제3항의 독촉기간 내에 당해 민원서류를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민원인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8조(민원서류의 처리 및 협조)

- ① 접수된 모든 민원서류는 일반문서에 우선하여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삭제 2008. 8. 1>
- ③ 민원서류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부서 상호간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문서규정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내일반문서를 사용, 회신기간을 명기하여 협조요청한다. <개정 2008. 8. 1>
- ④ 협조요청을 받은 부서에서는 일반문서에 우선하여 협조기한 내에 회신하여야 하며, 협조요구부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연사유, 진행상황 및 회신예정일 등을 협조요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제9조(처리기간)

- 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의 종류별 처리기간(별표3)을 정한다. 다만, 별표3에 열거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별표3에 준한다.<개정 2016. 4. 20.>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이를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소요되는 기간
 - 2. 민원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 3. 서류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 4. 민원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 ③ 본 규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5조의 기간 계산 시 공휴일, 토요일, 공사기념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 8. 1>

제10조(처리기간의 연장 또는 지연)

- ① 부득이한 사유로 **별표3**에 규정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처리기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7일 이상 연장할 때에는 그 결과와 처리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결과의 통지)

- ① 민원사항의 처리를 완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할 필요가 없음이 명백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민원인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거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민원서류의 통제 및 발송)

민원서류의 발송은 문서부서에서 일반문서 발송처리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제13조(처리지연의 신고)

- ① 민원인은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거부나 반려, 처리기간의 경과, 소정의 구비서류외의 서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민원담당부서의 장 또는 주무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8. 1>
-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민원부서의 장 또는 주무부서장은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처리상황의 확인 및 독려)

본사의 각 주무부서의 장은 민원처리상황을 매월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지역방송국 송중계소 및 업무사업지사는 처리부진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조치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개정 91.4.29, 개정 2016.4.20>

제14조의2 (민원심사관) <본조신설 2016. 4. 20.>

- 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시청자주관부서에 민원심사관을 둔다.
- ② 민원심사관은 민원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부서의 장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의3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운영) <본조신설 2016. 4. 20.>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3. 기타 필요 사항
- ② 제1항의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5조(고충처리인) <신설 2008. 8. 1>

- 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시청자주관부서에 고충처리인을 둔다.
- ② 고충처리인은 전항의 법률에 근거한 민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고충처리인은 시청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시청자위원회 권리보호소위 간사가 되며, 관련 업무를 시청자위원회와 함께 처리할 수 있다.
- ④ 공사는 고충처리인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정보공개) <신설 2008. 8. 1>

- ① 정보공개에 관한 청구·통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 ② 공사는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7조(보칙)

-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8. 8. 1, 개정 2016. 4. 20.>
-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4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4 년 9 월 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6 년 12 월 8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1 년 4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 년 4 월 7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8. 25) 이 규정은 2004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8. 5) 이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6. 17) 이 규정은 201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4. 20) 이 규정은 2016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6. 19)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삭제 2008. 8. 1>

[별표2] <삭제 2008. 8. 1>

[별표3] <개정 2008. 8. 1, 개정 2016. 4. 20>

<민원 종류별 처리기간>

민원명	처리기간
■ 방송에 대한 각종 문의	5 일
■ 방송에 대한 건의, 이의신청	10 일
■ 방송에 대한 진정	14 일
■ 수신료 및 난시청에 대한 질의 또는 진정 등	10 일
■ 견학 신청	3 일
■ 행사주최, 후원승인 요청	20 일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 4. 20>

<민원 처리부>

접 수		접수 또는 처리담당자	종류	건명 및 내용	민원인		처리 기간	경유 또는 이송	협조 또는 조회		처리		비고
번호	월일				성명	주소			월일	회 월 일	월일	내용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08. 8. 1, 개정 2016. 4. 20>

<구술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부>

접 수		접수자 또는 처리담당자	종류	건명 및 내용	처 리		처 리 내용	민원인			비고
번호	월일시				기간	년월일		주소	성명	전화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6. 4. 20>

NO

민원 접수증(보관용)

민원건명 :
민원인 :
주소 :

상기 민원을 접수함.
20 년 월 일

한국방송공사

민원사무처리부 접수번호 :

NO

민원 접수증(민원인용)

민원건명 :
민원인 :
주소 :

상기 민원을 접수함.
20 년 월 일

한국방송공사

■ 작성근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민원처리규정 제15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해 고충처리인을 두는데 있어 자격, 지위, 신분, 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과 직무)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제3조(독립성)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격)

공사에 15년 이상 재직한 직원 중에서 시청자서비스업무를 주관하는 센터장이 지정하는 3인 이내의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제5조(지위)

고충처리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한 KBS 고충처리인
2. 시청자위원회 권리보호소위원회의 간사

제6조(임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고충처리인이 연임 시 별도 임명하지 않으나 고충처리인이 퇴직 또는 타부서로 인사발령이 날 경우 후임자 임명과 동시에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7조(보수)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다음과 같다.

1.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공사 보수규정에 따른다.
2. 공사는 고충처리인이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고충처리 절차)

고충처리 절차는 민원처리규정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고충처리인은 별첨 「고충처리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내용 등을 검토하여 직접 처리하거나 관련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이첩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관련부서에서 요청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거나 처리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청자권리보호소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3. 시청자권리보호소위원회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고충처리에 대한 결정사항을 수용하도록 해당 부서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4.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청자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는 고충처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고충처리 사항은 시청자평가프로그램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제9조(기타사항)

1.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공사는 고충처리인의 연간 활동실적은 익년도 2월말까지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09 년 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임명된 고충처리인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3. 이 지침은 2016 년 4 월 20 일부터 시행한다.
4. (2019.6.19.) 이 지침은 2019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고충처리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 번호		핸드폰 번호	
	주 소			
	이메일 주소			
방송채널명		방송일시	년 월 일(요일), 시	
프로그램명				
피해사실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기록(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가능)			
요구사항				
<p>위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하며 고충처리를 신청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년 월 일</p> <p>신청인 : (인)</p> <p>KBS 고충처리인 귀하</p>				
* 증거서류 :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 첨부				

4

KBS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안

1. **목적:** 한국방송공사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기능:** 정보공개 여부 등 심의
3. **심의사항**
 - 가.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나. 이의신청
 - 다.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구성:** 위원장 포함 7 인
 - 위원장: 부사장
 - 위원: 전략기획실장, 편성본부장, 보도본부장, 제작 1 본부장, 기술본부장, 감사실장
 -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 부서의 장인 시청자센터장이 맡는다.
5. **개의 및 의결:**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6. **소집 및 부의절차:** 처리부서의 청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집회의 개최 결정
 - ※ 정보 공개여부 결정 : 청구를 받은 날부터 7 일 이내
7. **의사록**
 - ① 위원회 심의과정과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함.
 - ② 의사록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함.
8. **서면의결:**
 - ① 위원장은 보고 또는 토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의안이나 긴급한 의안으로써 회의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의결에 의해 결정할 수 있음.
 - ② 서면의결에 의하여 의안을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부의안과 함께 서면심의위원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각 위원에게 회부하여 찬성여부 표시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함.
 - ③ 서면 의결시의 의결방법 및 부의 절차는 서면의사록에 서명 날인함.
9. **의결사항 통보 및 의결서 보존:**
 - ① 간사는 위원회 의사록 및 부의원안 등 의결서를 보존하여야 함.
 - ②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사항을 서식에 의하여 청구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함.

제 차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소집통보서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소집을 통보합니다.

1. 일 시: 20 년 월 일 시

2. 장 소:

3. 상정부의 안건

가.

나.

다.

라.

20 년 월 일

위 원 장

(인)

위 원 귀하

제 차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사록

(부의번호 호)

건 명			
상 정 자			
일 시			
장 소			
출석인원			
결석인원			
참 석 자			
회의전말		기록자	

위 의결의 명학을 기하기 위하여 연서 날인함

20 년 월 일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서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사록

(부의번호 호)

제 목:

표제와 같은 별첨 사항을 서면 의결코자 하니 찬성여부를 다음에 날인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위원장 (인)

찬성함		반대함		의견
위원장	(인)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결과				

위 결정을 인정함.

20 년 월 일

위원장 (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통보서

수 신:

제 차 심의위원회(년 월 일)의 의결사항을 심의위원회 지침에 따라
별지와 같이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원 장

(인)

1. **목적:** 공영방송 KBS의 주인인 시청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청자권익을 증진하고, 시청자 신뢰 강화를 위해 구축된 '시청자 청원' 시스템을 아래 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2. **청원의 주체:** 대한민국 국민이면 성별, 연령 제한 없이 시청자 청원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중복해 청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최초 청원 발의자는 KBS 회원에 가입하여야 한다.
3. **청원대상 및 분류:** 청원관리, 업무효율성을 위해 청원글은 8가지 항목으로 분류한다. 청원글 작성자는 작성시 분류를 선택한다.

시청자청원 사이트 카테고리 분류

분류	세부 내용	비고
편성	편성요청, 폐지(반대), 방송분량, 편성 변경	
보도	정규 뉴스, 특보, 속보	
프로그램	시사, 교양, 드라마, 예능, 출연자, 방송참여, 외주제작, 호평, 불만, 광고	
방송기술	난시청, 송수신, 영상, 음향, 세트,	
방송경영	경영사업, 계열사, 수신료	
SNS·홈페이지	다시보기, 게시판, 방송정보, 실시간 방송, 애플리케이션, 팟캐스트	
시청자권익	방송 피해(저작권, 명예훼손, 초상권)	
기타	제언 등	

4. 청원 발의 및 후속처리 절차

- ① 발의된 청원은 KBS 시청자청원 홈페이지에 즉시 등록된다.
- ② 한번 작성된 청원은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하다. 최초 청원취지와 다른 내용으로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여 청원참여자의 의견을 보호하는 차원이다.
- ③ 발의일로부터 30일 이내 천 명 이상의 동의(추천)를 받은 경우 청원이 성사된 것으로 간주한다.
- ④ 발의된 청원에 대한 동의기능은 주요 SNS를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한다.
- ⑤ 성사된 청원에 대해서 관리자는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쳐 30일 이내에 시청자 청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답변을 게재하도록 한다. 관련부서와의 협의는 기존 민원업무처리 절차에 따른다.
 - ⑤-1. 공익성,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허위의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파장을 불러오는 사안의 경우 청원성사 요건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 청원에 대한 유관부서의 신속한 답변요구 및 답변게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⑥ 정해진 기한 내 청원 성사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원은 일정기간 게시 후 삭제할 수 있다.
- ⑦ 청원글 게시, 100명의 동의를 받은 이슈청원 성사 시, 1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성사 시, 해당 청원에 대한 답변이 홈페이지에 게재될 시, 관련사항을 이메일과 SMS 등을 통해 청원발의자에게 알려

준다.

5. 청원제한 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청원사안은 관리자 권한으로 제한(삭제 또는 숨김처리)할 수 있다.

- ① 동일인이 동일 내용으로 제기한 중복 청원
- ② 욕설 및 비속어가 포함된 청원
- ③ 폭력적이고 선정적이어서 청소년에 유해한 내용이 담긴 청원
- ④ 허위 사실이나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는 내용,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담긴 청원
- ⑤ 검찰, 경찰 등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과 관련된 청원
- ⑥ 기타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한국인터넷 자유평책기구의 '정책규정' 등에 저촉되는 청원

6. 청원업무 관리자와 권한

- ① 원활한 청원업무처리를 위해 복수의 관리자를 둔다.
- ② 관리자는 시청자 청원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 ③ 관리자는 시청자가 발의한 청원내용이 관련법에 위배되거나 '청원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임의 삭제 및 숨김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원 발의자에게 해당내용을 통지한다.
- ④ 관리자는 타인의 ID를 도용하거나 중복ID사용의 사례가 발견될 경우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⑤ 관리자는 이용자들이 발의된 청원에 동의(추천)를 할 수 있도록 SNS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⑥ 관리자는 청원이 성사된 경우 청원답변 시한 내 답변이 게재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한다.
- ⑦ 관리자는 일정기간 동안 성사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청원에 대해서는 임의 삭제할 수 있다.
- ⑧ 관리자는 청원에 대한 관련부서의 답변이 제출된 경우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 ⑨ 청원제한 사항을 게재하는 경우 경고메시지를 발송하고 3차례 이상 어길 경우 접속을 제한할 수 있다.

7. 시청자청원에 대한 관련부서의 답변제출

- ① 청원내용과 관련된 부서책임자(본사 부장급이상, 지역(총)국은 국장급이상)는 성사된 청원에 대해 성실히 답변한다.
- ② 청원내용에 대한 답변은 영상물 등으로 제작하여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예산과 인력은 시청자 센터 내 시청자프로그램 예산과 제작인력을 활용한다.
- ③ 기타 세부업무처리는 기타 민원업무 처리 절차에 따른다.